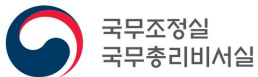


정책보고서 2016-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최정수 · 정기혜 · 김동영 · 이경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최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제2차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패널 설계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정기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김동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경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Ⅶ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1
제2절 연구의 내용	22
제3절 연구 및 분석방법	52
제2장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현황 및 통계 발전 방안	3..... 3
제1절 총괄 현황	3
제2절 한국	3
제3절 미국	3
제4절 유럽	7
제5절 일본	8
제6절 시사점	9
제3장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설계	9..... 9
제1절 조사설계	11
제2절 조사계획	18
제3절 사전조사	11
제4장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31..... 1
제1절 조사 계획	15
제2절 조사 결과	1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4

제5장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761
제1절 조사 계획	19
제2절 조사 결과	13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6
제6장 2016년을 포함한 연도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122
제1절 조사계획	23
제2절 조사결과	2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
제1절 결론	25
제2절 정책제언	26
참고문헌	29
부록	273
부록 1.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설문지	372
부록 2.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설문지	182

표 목차

〈표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5
〈표 2〉 패널표본 설계 기본원칙	5
〈표 3〉 조사실시 개요	6
〈표 4〉 조사 선호 방법	7
〈표 5〉 2014, 2015, 2016년 전체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8
〈표 6〉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9
〈표 7〉 세부영역별 2014년, 2015년,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평균값 비교	1
〈표 8〉 2016년 상·하반기 안전체감도 총괄 비교	1
〈표 9〉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1
〈표 10〉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인지 정도 결과 비교	1
〈표 1-1〉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설문지 구성 변경 내용	2
〈표 1-2〉 표본설계 기본원칙	2
〈표 1-3〉 맞춤형 조사방법	2
〈표 1-4〉 조사설계 개요	2
〈표 2-1〉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인식조사	3
〈표 2-2〉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개요(2014년 기준)	4
〈표 2-3〉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평가대상 전략목표 및 정책	4
〈표 2-4〉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및 내용	4
〈표 2-5〉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일반국민)	4
〈표 2-6〉 항목별 중요도(2014년 기준)	4
〈표 2-7〉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개요(2015년 기준)	5
〈표 2-8〉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표본 산출	5
〈표 2-9〉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항목(2015년 기준)	5
〈표 2-10〉 기상서비스 3대 지표 결과	5
〈표 2-11〉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개요	5
〈표 2-12〉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조사항목	5
〈표 2-13〉 미국 Food & Health Survey 조사 개요	6
〈표 2-14〉 미국 Food & Health Survey 조사 중 식품안전 관련 문항	6
〈표 2-15〉 영국 Tracker 조사 개요	7
〈표 2-16〉 영국 Tracker 조사 내용	7

〈표 2-17〉 독일 BfR Consumer Monitor 조사 개요	1	8
〈표 2-18〉 독일 BfR Consumer Monitor 조사 내용	1	8
〈표 2-19〉 일본 식품안전모니터 조사 개요	7	8
〈표 2-20〉 식품안전모니터 구분(14년 1회차 기준)	7	8
〈표 2-21〉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조사의 세부내용	9	8
〈표 3-1〉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10	1
〈표 3-2〉 표본설계 기본원칙	30	1
〈표 3-3〉 모집단 분포 현황	40	1
〈표 3-4〉 식품패널 분포	50	1
〈표 3-5〉 표본설계 세부내역	60	1
〈표 3-6〉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대상계층별 오차발생 현황	70	1
〈표 3-7〉 조사실시 개요	80	1
〈표 3-8〉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구성	90	1
〈표 3-9〉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항목 수정 내용	0	1
〈표 3-10〉 2016년 상하반기 설문지 비교(부가조사)	11	1
〈표 3-11〉 하반기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값	11	1
〈표 4-1〉 상반기 조사개요	51	1
〈표 4-2〉 조사 선호 방법	61	1
〈표 4-3〉 조사목표 식품패널 현황	71	1
〈표 4-4〉 최종 조사목표 식품패널 현황	71	1
〈표 4-5〉 상반기조사 조사성공률 현황	81	1
〈표 4-6〉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1	1
〈표 4-7〉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0	2
〈표 4-8〉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1	2
〈표 4-9〉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2	2
〈표 4-10〉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2	2
〈표 4-11〉 내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3	2
〈표 4-12〉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4	2
〈표 4-13〉 세부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5	2
〈표 4-14〉 정보 구득 매체	7	2
〈표 4-15〉 식품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2

〈표 4-16〉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8·2·1
〈표 4-17〉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	9·2·1
〈표 4-18〉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0·3·1
〈표 4-19〉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1·3·1
〈표 4-20〉	패널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2·3·1
〈표 4-21〉	전문가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3·3·1
〈표 4-22〉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2016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4·3·1
〈표 4-23〉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5·3·1
〈표 4-24〉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6·3·1
〈표 4-25〉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7·3·1
〈표 4-26〉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8·3·1
〈표 4-27〉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9·3·1
〈표 4-28〉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정도	0·4·1
〈표 4-2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1·4·1
〈표 4-30〉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2·4·1
〈표 4-31〉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3·4·1
〈표 4-32〉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4·4·1
〈표 4-33〉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5·4·1
〈표 4-34〉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6·4·1
〈표 4-35〉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7·4·1
〈표 4-36〉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8·4·1
〈표 4-37〉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9·4·1
〈표 4-38〉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0·5·1
〈표 4-39〉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1·5·1
〈표 4-40〉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2·5·1
〈표 4-4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세부변수별 분석	3·5·1
〈표 4-4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4·5·1
〈표 4-43〉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5·5·1
〈표 4-44〉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6·5·1
〈표 4-45〉	조사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7·5·1
〈표 4-46〉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5·1

〈표 4-47〉 조사대상자 특성별 영향요인	9·5·1
〈표 4-48〉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0·6·1
〈표 4-4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1·6·1
〈표 4-50〉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2·6·1
〈표 4-5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3·6·1
〈표 4-52〉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패널)	4·6·1
〈표 4-53〉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전문가)	5·6·1
〈표 5-1〉 하반기 조사개요	961
〈표 5-2〉 조사 선호 방법	071
〈표 5-3〉 최종 조사목표 식품패널 현황	1·7·1
〈표 5-4〉 하반기조사 조사 성공률 현황	1·7·1
〈표 5-5〉 상·하반기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값 비교 (패널, 전문가)	2·7·1
〈표 5-6〉 하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7·1
〈표 5-7〉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4·7·1
〈표 5-8〉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5·7·1
〈표 5-9〉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6·7·1
〈표 5-10〉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6·7·1
〈표 5-11〉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7·7·1
〈표 5-12〉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8·7·1
〈표 5-13〉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9·7·1
〈표 5-14〉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1·8·1
〈표 5-15〉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2·8·1
〈표 5-16〉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	3·8·1
〈표 5-17〉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4·8·1
〈표 5-18〉 불량식품의 근절되지 않는 이유	5·8·1
〈표 5-1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6·8·1
〈표 5-20〉 전문가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7·8·1
〈표 5-21〉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	8·8·1
〈표 5-22〉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	9·8·1
〈표 5-23〉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0·9·1
〈표 5-24〉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1·9·1

〈표 5-25〉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2·9·1
〈표 5-26〉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3·9·1
〈표 5-27〉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4·9·1
〈표 5-28〉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5·9·1
〈표 5-29〉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6·9·1
〈표 5-3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7·9·1
〈표 5-31〉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8·9·1
〈표 5-32〉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9·9·1
〈표 5-33〉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0·0·2
〈표 5-34〉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1·0·2
〈표 5-35〉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2·0·2
〈표 5-36〉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3·0·2
〈표 5-37〉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4·0·2
〈표 5-38〉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5·0·2
〈표 5-39〉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6·0·2
〈표 5-40〉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의 세부변수별 분석	7·0·2
〈표 5-4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8·0·2
〈표 5-42〉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0·2
〈표 5-43〉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0·1·2
〈표 5-44〉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1·1·2
〈표 5-45〉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2·1·2
〈표 5-46〉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3·1·2
〈표 5-47〉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4·1·2
〈표 5-48〉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5·1·2
〈표 5-49〉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패널)	6·1·2
〈표 5-50〉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전문가)	7·1·2
〈표 5-51〉 2016년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비교	8·1·2
〈표 6-1〉 2016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패널)	3·2·2
〈표 6-2〉 2016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전문가)	4·2·2
〈표 6-3〉 2016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패널의 목표대비 비율	5·2·2
〈표 6-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2·2

〈표 6-5〉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7	2	2
〈표 6-6〉 2016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패널 체감도 비교	9	2	2
〈표 6-7〉 2016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전문가 체감도 비교	1	3	2
〈표 6-8〉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2	3	2
〈표 6-9〉 세부영역별 2014년, 2015년 ,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평균값 비교	4	3	2
〈표 6-10〉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5	3	2
〈표 6-11〉 2016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7	3	2
〈표 6-12〉 2016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8	3	2
〈표 6-13〉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9	3	2
〈표 6-14〉 2016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1	4	2
〈표 6-15〉 2016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2	4	2
〈표 6-16〉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4	4	2
〈표 6-17〉 2016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6	4	2
〈표 6-18〉 2016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7	4	2
〈표 6-19〉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8	4	2
〈표 6-20〉 2016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0	5	2
〈표 6-21〉 2016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1	5	2
〈표 6-22〉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2	5	2
〈표 6-23〉 2016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4	5	2
〈표 6-24〉 2016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5	5	2
〈표 6-25〉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6	5	2
〈표 6-26〉 2016년 상·하반기 정책이 잘 추진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비교	7	5	2
〈표 6-27〉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인지 정도 결과 비교	8	5	2
〈표 6-28〉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0	6	2

그림 목차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0	3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1	3
[그림 2-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SWOT분석	7	3
[그림 2-2]	정책설명문 예시	5	4
[그림 2-3]	2014년 환경정책 만족도	7	4
[그림 2-4]	2014년 환경정책 만족도 조사 전략목표 및 정책별 만족도	8	4
[그림 2-5]	2014년 환경정책 우선순위 비교 평가	9	4
[그림 2-6]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산출 방식	3	5
[그림 2-7]	기상서비스 3대 지표 연도별 추이	4	5
[그림 2-8]	기상서비스 3대 지표 연도별 추이	5	5
[그림 2-9]	기상서비스 이용매체	6	5
[그림 2-10]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변화 여부	0	6
[그림 2-11]	지역발전 기여도	0	6
[그림 2-12]	지역발전 기여도	1	6
[그림 2-13]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한 신뢰도	7	6
[그림 2-14]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2016년)	8	6
[그림 2-15]	식품내 첨가물 등과 관련된 경험으로 인해 식습관 변경 여부	9	6
[그림 2-16]	정보를 얻는 경로	0	7
[그림 2-17]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5	7
[그림 2-18]	판매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의 시계열적 변화	7	7
[그림 2-19]	FSA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	8	7
[그림 2-20]	FSA의 책임에 대한 인지도	9	7
[그림 2-21]	식품안전에 대한 추정 정도	4	8
[그림 2-22]	식품안전에 대한 추정 정도	5	8
[그림 2-23]	독일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6	8
[그림 2-24]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분야별 불안정도	5	9
[그림 2-25]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정도 시계열 분석	5	9
[그림 2-26]	일본 식품안전모니터가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6	6	9
[그림 3-1]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절차	2	0 1
[그림 4-1]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0	2 1

[그림 4-2]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비교	6·2·1
[그림 5-1]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4·7·1
[그림 5-2]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비교	0·8·1
[그림 6-1]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8·2·2
[그림 6-2]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6·3·2
[그림 6-3]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0·4·2
[그림 6-4]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5·4·2
[그림 6-5]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9·4·2
[그림 6-6]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3·5·2

Title: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6

As one of the presidential agenda, study of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13 and biannual study was implemented from 2014. To the present, the survey was carried out seven times. Especially, from 2015, not only Food panel, but also expert from various food areas was added as a research subject. Also, some modifications on the survey were conducted. Above this, analyzing consumer's perception of major countries and deriving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ood sector statistics were performe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and to implement the survey of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to calculate the level of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6. Detail purposes are as follows; 1) Understand surveys from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for applying result from food expert; 2) Develop and supplement questionnaire for survey; 3) Figure out consumer survey result from other countries 4) Investigate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in first and second half of 2016; 5) Analyze periodic time-series result from 2013; 6) Suggest policies for research efficiency of next year survey.

There were some changes on survey from the latter half of the year. In basic survey, overall food safety management level and five investigation areas, which are safety of imported food; safety of food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safety of eating out; safety of communal food service; and

safety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and evaluation on level of food safety management were studied. From this year, the comparison on 5 investigation areas compared to last year were added. Also,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food safety policy and the reason of good evaluation on the policy, which were added from last year, were moved to this area.

In supplement survey, factors affecting food safety, using the information related with food safety were eliminated due to similar results from last 6 surveys. Rooting out low-quality food were remained. Overall Cronbach's alpha value appeared as 0.91.

In the first study from first half of the year, total 952 of food panel and 174 of food experts completed the survey. Overall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of panel was 75.9% and level of experts was 87.9%. Safety level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was 49.8% of panel and 58.6% of expert which were the lowest among five areas.

In the second study, total 912 of food panel and 165 of food experts completed the survey. Overall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of panel was 84.6%, which is highest level so far, and level of experts was 89.6%. The lowest area of panel was imported food area which was 58.7% and area of food expert was selling food around schools area which was 67.7%. In this study, safety level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which were steadily being one of the lowest area got 60.0%, which is all time highest.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lternative social study of Statistics Korea(KOSTAT) and presidential agenda of current government. However, it has not approved for national statistics yet and composition of panel is not statistically perfected either. Therefore, appropriate plan for the study and panel would be needed.

* Key Words: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6, Building up survey system, Supplement surve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3년부터 국정과제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2016년에도 상, 하반기로 나뉘어 2번 조사를 실시하여 총 7회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조사결과는 회차별, 상하반기별, 연도별로 비교, 분석이 실시되었음
- 2015년부터 전문가 조사가 추가되었으며 10여개 대표 식품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를 조사하여 안전체감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 그리고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체감도 조사 및 주요국의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2011년 국무총리실 수탁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도출한 조사설계를 바탕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패널조사가 추진되는 있는데 패널수가 1,000명에 불과해 17개 시도별 분석은 표본오차가 커서 수행할 수 없는 등의 미흡한 점이 있는 실정임
- 조사비용의 절감, 조사의 효율화 등을 위해 통계청에서는 인터넷 조사 확대, 행정 자료 활용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동향에 걸맞게 2016년 조사에서 방문에 의한 대면조사가 제외됨
- 또한 현 패널의 경제적, 학력 등의 평균 수준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통계청의 사회조사 중 식품안전분야를 대체하려고 하는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실시의 목적에 입각하여 2016년 식품안전 체감도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갖고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음

첫째, 전문가 조사 결과 활용 등에 관한 타부처 현황 파악

둘째, 기본 및 부가조사 설문내용 일부 개선 등 설문지(Questionnaire)보완

셋째,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소비자 조사 현황 파악 및 조사결과 최신화

넷째,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다섯째,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여섯째, 2013년부터 연도별 시계열 분석

일곱째, 향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활용 확대 등 정책제언

2. 주요 연구결과

가. 조사설계

- <표 1>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내용이 제시되어있음.
2015년 조사에 참여했던 식품패널의 85% 정도가 2016년 식품패널로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의 조사가 실시되었음
- 2015년부터 전문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조사가 추가되었음

〈표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안전체감도 조사	
조사내용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조사구분	표본조사	
조사종류	패널조사	
패널규모	패널 1,200명 및 전문가 220명 이내	탈락률 등 고려
표본추출	층화비례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	
조사주기	1년 2회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인터넷조사	
자료수집	설문조사법	
조사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한국갤럽	
조사주체	국무조정실	
결과발표	7월, 12월	

나. 표본설계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 원칙 하에 설계되었는데 조사대상단위는 개인으로 하며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패널의 표본추출단위(Sampling Unit)는 성, 연령, 지역이었음

〈표 2〉 패널표본 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 식품패널은 총 1,197명이 선정되었음

□ 전문가 조사대상자는 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220명이 유작위 추출에 의해 선정되어 조사가 실시되었음

다. 조사실시

□ 사전조사와 상반기, 하반기 조사가 <표 3> 제시된 바와 같이 실시되었음

<표 3> 조사실시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식품패널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11월 28일 ~ 12월 1일
상반기 조사	식품패널	1,170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6월 7일 ~ 6월 17일
	전문가	211명	전수	상동	상동
하반기 조사	식품패널	1,158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11월 28일 ~ 12월 11일
	전문가	205명	전수	상동	상동

□ 2016년 하반기 조사시 기본조사 문항 신설 및 부가조사 일부 내용 삭제, 수정 등으로 설문지에 대한 통계학적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계산하니 전체 항목은 0.91로 2015년 0.82보다 높게 나타났음.

라. 설문지 보완

- 상반기 조사는 2015년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하반기 조사에서는 상반기와 달리 설문지 번호체계의 수정이 있었음
- 수정된 내용은 부가조사 설문항목이 일부 기본조사로 이동하는 개선이 있었음

마. 조사대상자별 맞춤형 조사방법 활용

- 2016년 조사에서는 파악된 개인별 선호하는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음
- 조사비 절감 및 조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면조사는 제외됨

〈표 4〉 조사 선호 방법

(단위: 명)

구분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변동
합계		1,417	1,417	-
전화조사	패널	385	364	-21
	전문가	13	11	-2
인터넷조사	패널	785	794	+9
	전문가	198	194	-4
대체표본	패널	27	39	+12
	전문가	9	15	+6

바. 주요 조사결과

1) 기본조사

□ <표 5>에는 2014년부터 2016년 상하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도 (식품안전체감도)와 각 주요영역별 안전체감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음

○ 2016년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해당년의 체감도를 하반기 결과를 활용함에 따라 84.6%로 나타나 작년 79.6%보다 5.0% 포인트 상승하였음. 평균적으로는 2016년 평균 체감도는 2015년 평균 체감도보다 3.3% 포인트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음

－ 역대 회차별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였음

<표 5> 2014, 2015, 2016년 전체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패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14년	2차	74.4	970	1.1	24.4	49.2	24.1	1.1
	3차	73.2	974	1.9	25.0	48.5	24.3	0.4
	2·3차 평균	73.8	—	1.5	24.7	48.9	24.2	0.8
'15년	4차	74.3	995	1.8	23.9	53.4	20.2	0.7
	5차	79.6	984	1.1	19.3	53.0	26.2	0.4
	4·5차 평균	77.0	—	1.5	21.6	53.2	23.2	0.6
'16년	6차	75.9	952	2.4	21.6	53.5	22.1	0.4
	7차	84.6	912	1.3	14.0	51.4	31.5	1.8
	6·7차 평균	80.3	—	1.9	17.8	52.5	26.8	1.1

- 세부영역별로 보면 2016년 상·하반기 모두 패널은 단체급식 안전체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외식의 안전으로 나타났음. 상반기에는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이 49.8%로 가장 낮았으나 하반기에는 60.0%로 크게 상승하였음. 하반기에는 수입식품 안전이 58.7%로 가장 낮았으나 이 역시 상반기 보다는 상승한 결과를 보였음

〈표 6〉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회차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수입식품 안전	1차	52.9	928	7.8	39.3	42.4	9.7	0.9
	2차	52.1	970	5.9	42.1	41.0	10.7	0.3
	3차	51.5	974	7.9	40.6	38.8	12.3	0.4
	4차	51.3	995	5.0	43.7	37.5	13.4	0.4
	5차	56.6	984	5.2	38.2	41.1	14.9	0.6
	6차	51.6	952	6.2	42.2	39.0	12.1	0.5
	7차	58.7	912	5.3	36.1	36.7	20.8	1.1
	6, 7차 평균	55.2	—	5.8	39.2	37.9	16.5	0.8
제조·유통 식품 안전	1차	79.4	928	1.4	19.2	54.0	24.6	0.9
	2차	77.5	970	1.4	21.0	57.4	19.8	0.3
	3차	78.8	974	1.3	19.9	56.3	21.9	0.6
	4차	69.1	995	2.2	28.6	46.3	22.0	0.8
	5차	70.7	984	1.6	27.6	49.5	20.3	0.9
	6차	65.7	952	2.0	32.4	47.6	17.6	0.4
	7차	68.6	912	2.4	28.9	40.1	26.5	2.0
	6, 7차 평균	67.2	—	2.2	30.7	43.9	22.1	1.2
외식 안전	1차	74.5	928	2.6	23.0	58.0	16.1	0.4
	2차	69.8	970	2.2	28.0	54.9	14.4	0.5
	3차	74.9	974	1.5	23.6	57.9	16.4	0.5
	4차	68.7	995	3.5	27.7	51.6	16.7	0.5
	5차	67.8	984	2.4	29.8	48.7	18.7	0.4
	6차	68.1	952	2.3	29.6	52.7	14.9	0.4
	7차	68.8	912	2.7	28.5	43.1	24.5	1.2
	6, 7차 평균	68.5	—	2.5	29.1	47.9	19.7	0.8

단체급식 안전	1차	73.4	928	2.4	24.3	46.4	25.8	1.2
	2차	75.7	560	2.5	21.8	42.1	31.8	1.8
	3차	81.3	512	2.7	16.0	45.1	32.8	3.3
	4차	77.2	474	2.3	20.5	41.8	32.5	3.0
	5차	74.2	507	3.0	22.9	40.0	32.0	2.2
	6차	70.3	505	4.0	25.7	38.4	28.7	3.2
	7차	71.5	445	4.9	23.6	36.2	29.4	5.8
	6, 7차 평균	70.9	—	4.5	24.7	37.3	29.1	4.5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1차	43.0	928	11.1	45.9	34.2	8.4	0.4
	2차	47.7	970	6.3	46.0	36.8	10.6	0.3
	3차	51.6	974	5.7	42.7	38.0	12.9	0.7
	4차	45.6	995	6.3	48.0	38.0	7.2	0.4
	5차	51.5	984	6.2	42.3	41.0	10.4	0.2
	6차	49.8	952	5.9	44.3	39.9	9.5	0.4
	7차	60.0	912	5.4	34.6	38.3	19.8	1.9
	6, 7차 평균	54.9	—	5.7	39.5	39.1	14.7	1.2

□ 세부영역에 대한 회차별 평균값 비교는 <표 7>에 제시되어있음

○ 2015년 대비 제조·유통식품 안전 분야, 단체급식 안전 분야에서 안전체감도가 감소하였음. 특히 2015년의 ‘백수오 사건’ 및 ‘가공육의 발암성에 대한 WHO 발표’ 영향 등으로 제조·가공식품분야의 안전체감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올해 하반기 ‘사골곰탕 사건’의 영향으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여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급식사고, 여름 발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 실태점검 결과의 영향 등으로 단체급식분야의 안전체감도는 2015년에 비하여 2.7% 포인트 하락하여 역대 최저값으로 조사됨

○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분야 체감도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8.5% 포인트 상승하여 타 분야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이는 2016년 하반기 체감도 상승에 주 기여 요인이 됨. 하반기 조사에 앞서 학교주변 판매식품 담당 부처인 식약처의 적극적인 정책홍보 실시가 체감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됨

〈표 7〉 세부영역별 2014년, 2015년,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평균값 비교

(단위: %)

구분	'15년 대비 증감	패널										전문가			
		2016년			2015년			2014년			13년	2016년		2015년	
		평균	하	상	평균	하	상	평균	하	상		하	상	하	상
수입식품 안전	2.1	55.2	58.7	51.6	54.0	56.6	51.3	51.8	51.5	52.1	52.9	68.3	62.1	72.9	65.4
제조·유통 식품 안전	-2.1	67.2	68.6	65.7	69.9	70.7	69.1	78.2	78.8	77.5	79.4	84.1	88.5	86.8	85.2
외식 안전	1.0	68.5	68.8	68.1	68.3	67.8	68.7	72.4	74.9	69.8	74.5	75.6	77.0	78.9	74.7
단체급식 안전	-2.7	70.9	71.5	70.3	75.7	74.2	77.2	78.5	81.3	75.7	73.4	82.4	88.9	86.0	89.5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8.5	54.9	60.0	49.8	48.6	51.5	45.6	49.7	51.6	47.7	43.0	67.7	58.6	72.3	60.5

- 세부분석은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권역의 6가지 변수별로 수행되었음
- 2016년 상·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를 조사계층간 비교해 보면 하락한 계층보다는 상승한 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별로 보면 상·하반기 모두 안전체감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고, 학력별로 보면 상반기엔 고졸 층이, 하반기엔 중졸 층이 상대적으로 다른 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소득 수준별로 보면 500만원 이상인 층의 체감도가 상·하반기 모두 제일 높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체감도가 낮아지다가 100만원대에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분포를 보였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 권역별로는 중부권, 직업별로는 무직에서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어 작년(50대, 중부권, 무직)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

〈표 8〉 2016년 상·하반기 안전체감도 총괄 비교

구분		2016년 상·하반기 비교			중복 응답자
		전체 체감도 변화	상승한 그룹	하락한 그룹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패널	상승	남성, 여성 / 30대 이상 모든 권역/ 100만원대 이상 고졸 이상 / 자영업, 기능직, 판매서비스직, 사무관리직	—	811명
	전문가	상승	200만원대	—	143명
수입식품	패널	상승	남성, 여성 / 40대 이상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100만원 미만, 2~300만원대, 500만원 이상 모든 학력 공무원,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주부	—	811명
	전문가	상승	남성 / 30대, 50대 수도권 / 500만원 이상 대졸 이상 / 전문자유직	—	143명
제조·유통 식품	패널	상승	남성, 여성 30대, 50대, 60대 이상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100만원 미만, 2~300만원대 모든 학력 자영업, 주부, 무직	—	811명
	전문가	상승	남성 / 50대 500만원 이상 대졸 이상 / 공무원	—	143명
외식	패널	상승	남성 / 40대, 60대 이상 중부권 / 300만원대 주부	—	811명
	전문가	—	—	—	143명
단체급식	패널	상승	판매서비스직, 전문자유직	—	317명
	전문가	—	—	—	75명
학교주변 판매식품	패널	상승	남성, 여성 / 30대 이상 모든 권역 / 1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고졸 이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주부, 사무관리직, 무직	—	811명
	전문가	상승	남성, 여성 / 50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200만원대, 500만원 이상 대졸 이상 공무원, 사무관리직	—	143명

-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여 대표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추진 체감도는 상반기까지는 부가조사에서 조사됐으나 하반기부터 기본조사로 이동하여 조사되었음
- 중복응답 기법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모두 선정하는 방식으로 상반기에 총 2,594명(건), 하반기에 3,052명(건)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 패널의 경우 상하반기 모두 HACCP 적용, 나트륨 줄이기 운동, 식품표시 확대 등 표시 확대 등의 순으로 추진이 잘되었다고 평가했음
- 전문가도 패널과 동일하게 상하반기 모두 HACCP 적용, 나트륨 줄이기 운동, 식품표시 확대, 순으로 나타남. 전문가는 특히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모든 정책에 대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선택한 비율이 상승하였음

〈표 9〉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6 상반기	'16 하반기	'16 상반기	'16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17.9	16.0	21.1	24.1
나트륨 줄이기 운동	13.6	13.6	11.4	16.9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12.9	12.1	12.3	16.9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10.5	10.6	10.4	14.4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9.9	9.1	9.0	13.2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에게 정보(음식점, 부적합 등) 공개	8.6	8.6	12.3	14.2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7.5	9.3	4.9	8.4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농약, 중금속 등) 강화	7.1	7.7	5.3	10.9
부적합한 식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제품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6.9	5.4	7.7	10.7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4.3	7.0	5.1	10.7
기타	0.8	0.6	0.5	—

2) 부가조사

□ 부가조사는 2016년 상반기에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 이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불량식품 근절이 조사되었으나 하반기 부터 불량식품 근절만 조사되었음

○ 불량식품을 보통 이상으로 인지한다는 응답은 패널의 경우 상반기 80.0%에서 하반기 85.5%로, 전문가는 상반기 93.7%에서 96.3%로 모두 상승하였음

〈표 10〉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인지 정도 결과 비교

(단위: %)

구분		보통 이상	응답자 수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16년 상반기 조사	80.0	952	2.6	17.3	44.3	32.1	3.6
	'16년 하반기 조사	85.6	912	1.1	13.3	48.7	33.6	3.4
	'16년 상·하반기 평균	82.8	—	1.9	15.3	46.5	32.9	3.5
전문가	'16년 상반기 조사	93.7	174	—	6.3	25.3	51.1	17.2
	'16년 하반기 조사	96.3	164	0.6	3	29.3	56.1	11.1
	'16년 상·하반기 평균	95.0	—	0.3	4.7	27.3	53.6	14.2

3. 정책제언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체계에 대한 재검토

- 1,000명으로 국한된 패널 수는 17개 시도별 조사결과를 생산하기에도 부족함.
또 패널관리와 패널조사가 유례없이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한 패널관리가 식품안전관리 부처의 산하기
관이 담당하고 있어 과도한 패널관리로 조사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현 조사체계에 대한 재검토 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반기 조사가 바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식품안전체감도의 시계열 분석 완성 및 시사점 도출

-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17년 하반기 조사가 완료되면, 9회차에 걸쳐
실시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총괄적이고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조사결과에 근거한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체계, 추진정책 및 제4차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맥을 같이하는 식품안전관리의 미래 예측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어야 함

□ 조사결과 활용 확대 및 조사내용 검토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사설계
수정안과 더불어 확립하여야 함. 체감도가 가장 낮은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및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지급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 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을 위한 조사내용을 개선하여 기본조사의 세부조사
분야에는 현 5개 분야 외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축산물의 안전, 정보 제공
및 소통, 영양정책 등의 분야가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조사대상 전문가 범위 확대

- 2015년부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참여하는 200여명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풀(pool)이 현재는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전문가 풀(pool)에서 선정이 되고 있어 자칫 조사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향후에는 기본조사 분야에 농축수산물의 안전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전문가 대상 범위를 농축수산 분야까지 확대하여 조사대상 전문가가 선정되어야 하겠음

* 주요용어: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세부영역별 안전체감도, 조사설계, 부가조사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6년 올해는 식품안전체감도에 관한 6, 7회차 조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되었다.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체계는 영국 FSA의 Tracker Survey와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근거로 설계되었으며, 식품안전체감도의 산출방식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체계가 준용되고 있다.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3년 하반기에 1회차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1,000명의 식품 패널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총 2회의 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조사의 응답체계는 5단계 리커르트 척도(매우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조사에서 올해의 식품안전관리 수준과 5개 세부영역별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모두 더한 % 값을 식품안전체감도라 일컫고 있다.

조사 회차가 거듭되면서 각 회차 조사가 가지는 특성과 정책적 함의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동종의 조사결과도 최신화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조사결과는 75.9%로 지난 상반기중 최고의 체감도를 보였고, 하반기는 84.6%로 조사되어 역대 최고의 체감도를 보였다. 지난 총 7회차 식품안전체감도중 2016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는 84.6%으로 다른 회차 조사결과보다 약 5% 이상 상승된 결과를 보였다.

2016년은 2015년 발생한 백수오 사건처럼 큰 식품사고가 없었던 한해로 식품사고가 식품안전체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인해 식품안전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다른 해와 달리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기본 조사 설문지의 내용이 일부 삭제되고, 대신 새로운 조사내용이 첨가되었다. 예를 보면 식품안전정보 구독 매체,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 매 회차 거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설문내용은 삭제되었고, 식품안전체감도 세부영역별로 작년 대비 안전관리 수준 변화에 관한 설문 문항이 1문항씩 추가되었다.

다음은 설문문항의 배열 순서를 일부 교체한 것으로 기존 부가조사 설문이었던 식품 안전정책의 추진도가 기본조사 7번으로 문항의 순서를 바꾸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문항이 바뀜으로 인해 설문지의 통계학적 신뢰도인 크롬바흐 알파계수값은 큰 변화가 없어 설문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2015년부터 일반인인 식품패널 대상의 식품안전체감도 수준 평가 외에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는 패널선정처럼 통계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참여자 자의적 의사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성, 연령, 지역을 단위로 동일 확률로 선정된 패널 조사결과와 전문가 조사결과의 단순 비교분석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환경부 등 국내 타 부처의 인식조사 결과도 전문가 조사결과와 일반인 조사결과는 비교분석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식품분야의 타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식품안전체감도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식품패널보다 상하반기 모두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이 간극을 발생시키는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로 식품안전체감도는 총 7회 조사가 실시되어 회차별 결과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에서 의미 있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자료가 축적되고 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체감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도별 식품안전체감도 값에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기본조사와 부가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세부분석하고 세부영역별 정책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도입 등의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총 7회차 조사를 실시한 식품패널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1,000명으로 조사대상 패널수가 적어 전국 17개 시도별로 세부분석할 수 없는 등의 현 식품안전체감도를 도출하는 패널조사가 갖고 있는 몇몇 약점도 있지만 식품분야의 유일한 종단면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

활용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목표, 내용 및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고, 제2장은 환경부 등 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체감도 조사 및 주요국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제3장은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조사설계 및 사전조사 실시 결과가 분석되어있다. 제4장은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결과가 분석되어있으며, 제5장은 2016년 하반기 조사 결과가 분석 되었다. 제6장에서는 2013, 2014, 2015, 2016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는 이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이 개진되어있다.

3.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온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하고, 또한 2013년 하반기에 1회차 조사부터 시작되어 2014, 2015, 2016년 상반기 각각 1회씩 총 2회 조사를 실시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함이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통계학적인 표본추출 등을 하기 위한 조사설계
- 둘째, 부가조사 개선 및 설문지(Questionnaire)보완
- 셋째,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소비자 조사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넷째,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 다섯째,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 여섯째, 2013년부터 연도별 시계열 분석
- 일곱째, 향후 식품안전체감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제2절 연구의 내용

1. 기존 자료 검토 및 분석

- 1) 상하반기 년 2회 조사에 따른 조사설계에 대한 검토
- 2)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한 기존 문헌 등의 고찰
- 3) 국내 타 부처, 미국, 유럽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 현황 파악
- 4)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2. 부가조사 내용 변경 및 설문지(Questionnaire) 보완

- 1) 기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설문지 구성체계상 번호 이동
 - 상반기 부가조사 항목을 기본조사로 이동시켜 조사 실시
 - 일부 용어의 경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를 첨언
- 2) 일부 설문지 개선에도 전체적인 설문지 구성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구성체계 준용

〈표 1-1〉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설문지 구성 변경 내용

변경 내용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수정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다음 정책 중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복선택) ①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농약, 중금속 등) 강화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활성화 ③ 부적합한 식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제품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④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⑤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에게 정보(음식점, 부적합 등) 공개 ⑥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⑦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⑧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⑨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⑩ 나트륨 줄이기 운동 ⑪ 기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②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③ 식품관련 이슈 감소 ④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⑤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⑥ 기타
--	--	--

3. 조사설계

- 1) 전체적인 조사체계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
 - 기존에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조사 실시
- 2) 식품안전체감도를 국가통계화하기 위한 표본틀 검토
- 3) 전문가 조사결과도 시계열 분석틀 마련
- 4) 부가조사의 설문내용은 상반기의 경우 2015년과 동일하나 하반기에 ‘식품안전 관련 정보 이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삭제되고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본조사로 이동하며 ‘불량식품 근절’만 조사

4. 표본 설계

- 1) 모집단은 2012년 통계청이 전국의 성인을 추계한 인구추계치를 근간으로 설정
- 2) 2012년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바탕으로 확률층화추출법에 의해 1,000명의 패널을 표본으로 선정
- 3) 표본추출 단위(Sample Unit)는 성, 연령, 지역
- 4) 조사 성공률을 감안하여 총 1,200명의 조사대상자 추출

5. 사전조사(Pilot survey) 실시

- 1) 일부 설문문항 변경 및 번호체계 수정에 따른 평가표의 통계학적 검증 및 수정을 목적으로 조사 실시
- 2) 설문지 일부 변경에 따른 Cronbach's alpha 값(0~1)의 산출로 설문지의 타당도 변화 확인
- 3) 조사결과의 통계학적 분석 범위는 전문가 조사가 시작된 2015년과 동일

6. 상·하반기 조사 실시

- 1)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을 위한 상·하반기 조사 실시
- 2) 조사대상자는 2013년에 식약처가 구축한 식품패널 및 2015년부터 새로 추가된 전문가로 구성
- 3) 최종 조사대상 목표치는 식품패널 1,000명, 전문가는 자의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대상으로 국한

7.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

- 1) 최종 개선, 확정된 설문지에 의한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
- 2) 총괄 및 세부분석 실시
- 3) 2013년 하반기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7회에 걸친 조사결과를 시계열 분석

8. 명년 최종 조사를 위한 정책제언

-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의 활용성 극대화 방안 제언
- 2) 식품안전체감도의 객관화를 위한 지수화 방안 검토

제3절 연구 및 분석방법

1. 연구방법

가. 조사 설계

- 1)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결과 발표 일자 등을 설계
 - 2015년에 추가된 전문가 조사는 현행 유지로 200명 조사 실시
- 2) 설문내용 일부 변경에 따른 통계학적 검증 실시
- 3)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번호체계 개선
 - 주요 정책의 추진에 대한 체감도 조사

나. 표본설계 및 추출

-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설계되었음. 즉, 모집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이며, 패널은 1,200명을 구축하며, 표본추출단위는 성, 연령, 지역으로 하였음

〈표 1-2〉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 2) 표본 추출의 Final Sampling Unit은 개인으로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고,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로 16개 시도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였음
- 3) 표본의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설계되었고, 표본의 거주지에 제주도도 포함되었음
- 4) 전문가는 조사 참여 의사가 있는 식품전문가 중 200여명을 유작위로 선정함

다. 설문지 보완

- 1) 2013년에 개발된 기본조사의 설문내용중 식품안전에 관한 정부 구득원 등 회차별 조사결과의 변동이 없는 설문내용 삭제 및 새로운 설문내용 추가
 - 2016년은 설문지 구성체계가 상하반기가 다르게 설계
- 2) 수정된 설문지의 구성체계는 통계청 사회조사 형태를 준용
- 3) 기본조사 설문내용의 주요 골자인 전체 식품안전체감도와 5가지 세부영역별 안전체감도는 시계열 분석을 위해 그대로 유지
- 4) 부가조사의 경우 설문내용은 동일하나 번호체계 변경
- 5) 일부 설문지 내용 및 번호체계 변경에 따른 Cronbach's alpha 값 산출 및 새로운 설문지의 통계학적 타당도 검증

라. 맞춤형 조사방법 파악

- 1) 2013년은 전화조사에 의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 2) 2014년 처음 1,000명의 패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이 파악되었음
 - 조사방법은 통계청에서 기존 방문조사 대신 확대하고 있는 인터넷조사, 전화조사로 구분하여 파악

3) 맞춤형 조사방법은 조사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파악되었음

〈표 1-3〉 맞춤형 조사방법

(단위: 명)

구분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변동
합계		1,417	1,417	-
전화조사	패널	385	364	-21
	전문가	13	11	-2
인터넷조사	패널	785	794	+9
	전문가	198	194	-4
대체표본	패널	27	39	+12
	전문가	9	15	+6

마. 사전조사 실시

- 1) 사전조사는 하반기에 일부 수정된 설문지의 통계학적 검증을 위해 실시되었음
 - Cronbach's alpha 계수 값(0~1)을 산출하여 설문지의 통계학적 타당도가 검증되었음
- 2) 조사대상자는 200명이었으며 하반기 조사와 함께 실시되었음
- 3) 조사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되었음

〈표 1-4〉 조사설계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식품패널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11월 28일 ~ 12월 1일
상반기 조사	식품패널	1,170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6월 7일 ~ 6월 17일
	전문가	211명	전수	상동	상동
하반기 조사	식품패널	1,158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11월 28일 ~ 12월 11일
	전문가	205명	전수	상동	상동

바. 상·하반기 조사 실시

- 1) 2015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조사를 실시
- 2) 조사대상은 구축된 1,200명의 식품패널과 220명 전문가가 대상
- 3) 평가도구는 기본조사의 경우에 2013년에 리커트 5단계 척도 (Likert Scale)를 활용하여 개발된 설문내용이 일부 삭제, 추가되었음
 - 변경에 따른 통계학적 신뢰도는 검증되었음
- 4) 부가조사의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를 중복조사하는 것으로 상반기 조사와는 달리 하반기 조사에서 번호체계가 변경되었음
- 5) 조사방법은 맞춤형 조사방법으로 인터넷 조사, 전화 조사 방법이 사용되었음
- 6) 조사는 상반기 경우에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 하반기는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되었고, 조사기간 중 첫날 오전에 전화조사 조사원 교육이 실시되었음

사. 회의 개최

- 1) 상하반기 조사를 위해 연구방향성 결정 및 연구 추진 과정상 Brain Storming을 위한 담당부처, 관련부처, 유관기관, 그리고 연구진 등간 정례적인 정책간담회의가 개최되었음
- 2) 착수보고회, 중간결과 발표회(상반기 조사결과 발표), 최종 평가결과 발표회(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 결과) 등이 개최되었음

2. 분석 방법

가. 통계분석

- 1) 수집된 설문지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AS 9.3 Version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 집계표를 제시되었음
- 2) 조사 문항간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이 실시되었음
- 3) 성, 연령, 지역, 학력별, 직업별, 소득별 등의 독립변수별 전체 식품안전체감도와 세부영역별 안전체감도가 분석되었음

나.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조사의 신뢰성 분석

- 1) Cronbach's alpha 계수 값(0~1)을 산출하여 인식도 조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음.
설문지 구성시 조사항목의 스케일은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기 위해 리커트 5단계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었음
- 2)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음

$$\alpha = \frac{N}{(N-1)} \left(1 - \sum \frac{\sigma_i^2}{\sigma_t^2} \right)$$

N =문항 수, σ_t^2 =총분산 σ_i^2 =각 문항의 분산

- 3) 계수값이 1에 가까울수록 조사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 전체의 신뢰도 및 각 문항별 신뢰도를 산출하여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거, 수정 및 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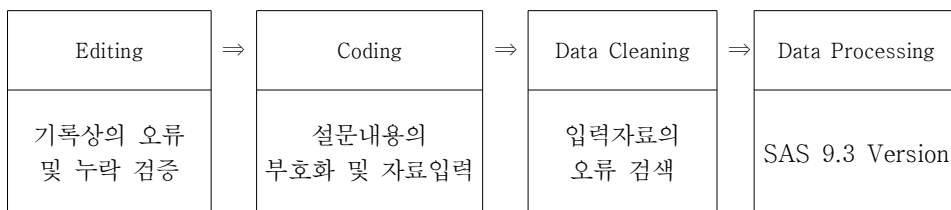
다. 조사결과의 유의성 검증

- 1)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유의성 검증을 통해 통계적 의미를 확인하였음
- 2) 조사내용별 차이 확인 등 조사자료의 변수간 검증은 Chi-square test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변수간, 집단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p-value는 주로 95%내에서 신뢰도가 검증되었음

라. 자료 처리

조사된 자료는 [그림 1-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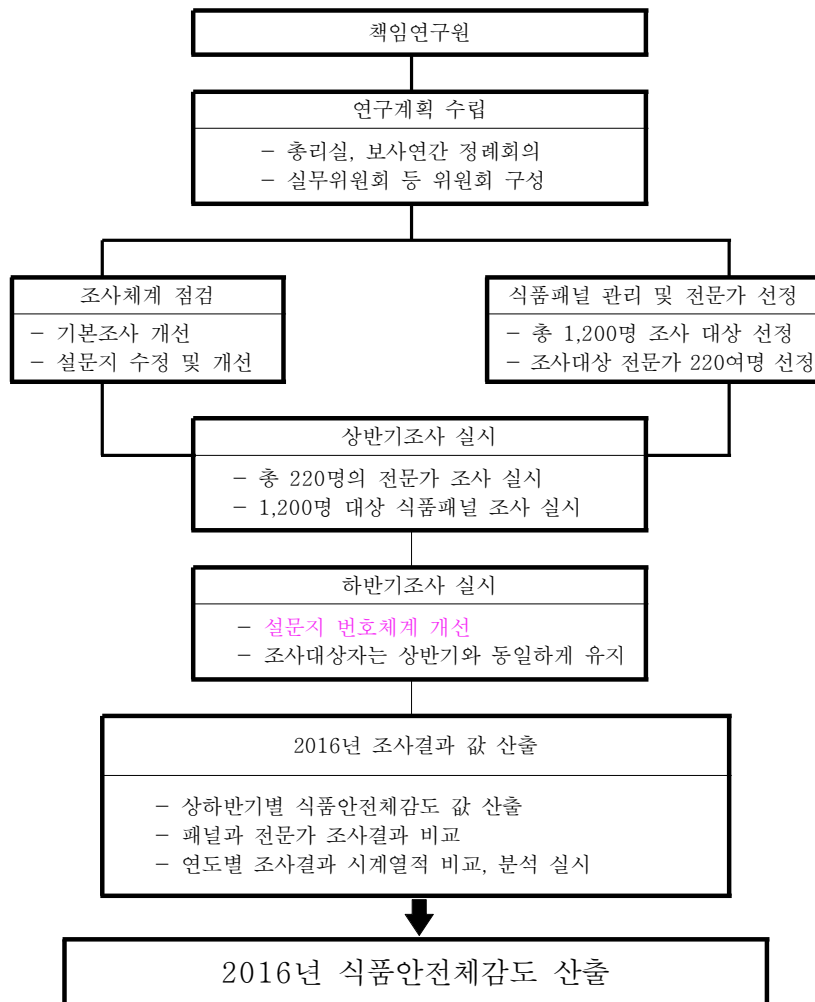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3. 연구추진 체계

이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반기에 일부 기본조사 설문 내용 수정에 의한 상·하반기 조사를 통해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총 7회차의 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제 2 장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및 국내 타부처 인식조사 실시 현황

제1절 총괄 현황

제2절 한국

제3절 미국

제4절 유럽

제5절 일본

제6절 시사점

2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및 < 국내 타부처 인식조사 실시 현황 <

제1절 총괄 현황

<표 2-1>에는 주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표 2-1>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인식조사

국가	조사명	조사목적 및 항목	조사척도						조사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한국	'16,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¹⁾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리 수준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③④⑤	84.6%
미국	'16 Food and Health survey	미국 식품공급의 안전에 대한 신뢰	매우 신뢰	다소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잘 모름		①②	66.0%
일본	'14 식품안전 모니터	여러 위험요인별 불안정도	매우 불안함	어느 정도 불안함	어느 쪽도 아님	별로 불안 하지 않음	전혀 불안 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③④⑤	29.1%
영국	'16 Public attitudes tracker	FSA(영국 식품청)에 대한 신뢰도	매우 신뢰	신뢰	어느 쪽도 아님	불신	매우 불신		①②	66.0%
독일	'16 BfR Consumer Monitor	독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안전	안전함	불안 보다는 안전함	안전 보다는 불안함	불안함			①②	73.0%

주: 해당년의 체감도는 하반기 결과를 활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6.

<표 2-1>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의

개요가 제시되어있다.

정리된 내용을 보면 각 국별로 질문의 내용과 조사척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가별 간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조사척도는 리커르트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잘 모르겠음’이 추가된 6단계 척도의 형태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영국의 경우 중간단계의 척도인 ‘보통’ 또는 ‘어느 쪽도 아님’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선택항목을 포함한 형태로 구성되어 독일과 함께 사실상 4단계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과 주요기관에서는 국민의 식품관련 위험 인식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일본과 영국의 경우 그 역사가 10년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의 주도로 Food and Health survey라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29분 가량이 소요되는 인터넷 방식의 조사이다. 18세부터 80세까지의 미국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일도 독일연방위해평가원에서 2014년부터 소비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보호 및 식품 안전에 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산출 및 활용하는 방법도 조금씩은 다른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식품 안전체감도는 보통 척도 이상의 응답척도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 독일은 매우신뢰(안전), 신뢰(안전)의 2단계 응답만을 합산하여 신뢰도를 산출하고 있어 신뢰도 산출에 우리나라보다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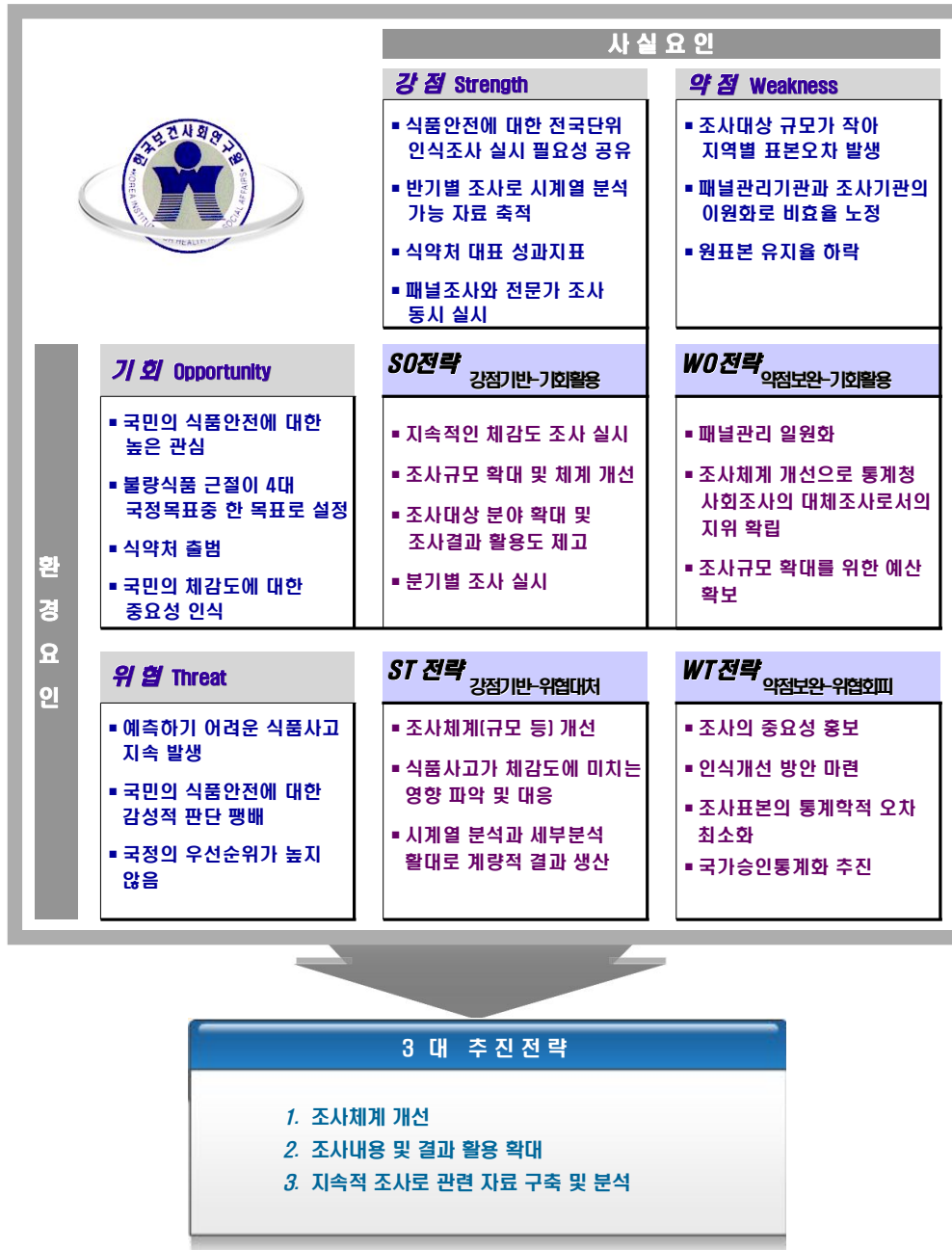
제2절 한국

외국의 인식조사와는 달리 우리나라 정부부처들은 대국민 인식조사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특정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국민보다 높은 장점과 그로인한 신뢰성 있는 개선점 도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식조사를 검토하기에 앞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SWOT분석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SWOT 분석

SWOT분석은 내·외부 환경에 대해 분석하여 각 요인을 근거로하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SWOT은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¹⁾.

- 강점(Strengths)은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내부적인 속성
- 약점(Weaknesses)은 목적 달성에 해가 되는 내부적인 속성
- 기회(Opportunities)는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외부적 조건
- 위협(Threats)는 목적 달성에 해가 되는 외부적 조건

SWOT분석에 의한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조직이 지니고 있는 내부적인 자원 및 능력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외부적 환경을 파악한 위협과 기회를 바탕으로 강점과 기회의 조화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²⁾³⁾

- SO전략: 강점을 이용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 WO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 ST전략: 강점을 이용하여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 WT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SWOT분석 결과를 근거로 식품안전체감도의 향후 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1) Hay, G. J., & Castilla, G.(2006, July). Object-based image analysis: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SWOT). *In Proc. 1st Int. Conf. OBIA*, pp. 4-5.
 2) 고현우(2009). SWOT/AHP 분석을 이용한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전략.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32(2), pp. 104-111.
 3) 한장협, 윤상현, 김채복(2014). SWOT/AHP 분석을 이용한 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전략 연구: 대구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7(3), pp. 465-483.

가. 강점(Strength)

이 정부 출범 후 국무조정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패널조사 형태로 시행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2013년 하반기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2015년 부터는 전문가 조사가 추가되어 패널과 전문가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의 강점도 갖고 있다.

나. 약점(Weakness)

조사대상 규모가 패널 1,000명으로 국한돼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회차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원표본 유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요인이 한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패널관리와 조사추진이 두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어 국회 등에서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또 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위협(Threat)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식품사고가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에 일시적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과 여전히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이 과학적 근거보다 각자의 경험 등에 의존한 감성적 판단에 치중되고 있는 것도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라. 기회(Opportunity)

식품안전체감도의 기회요인으로는 국민이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국정추진 과정에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중요성이 최고 의사결정권층에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정부에서 불량식품 근절이 4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설치하는 등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강화된 것도 기회요인이라 하겠다.

2. 전략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환경을 SWOT 분석법으로 각각의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S, W, O, T의 각 요인들을 근거로한 대응전략이 수립되었다.

가. SO 전략

SO 전략은 강점을 기반으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식약처와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회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강점이 있으므로 조사결과의 활용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표 성과지표로서 명실상부하게 활용되기 위해 조사규모 확대 및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나. WO 전략

WO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국민의 높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사결과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조사규모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패널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조사표본에 대한 통계학적 오차도 최소화하여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위 확립을 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ST 전략

ST 전략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위협요인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우선 현 조사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사 규모 및 조사 분야 확대, 조사결과의 활용 확대 등 조사 체계 및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식품사고가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 WT 전략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최대한 회피하는 전략이다. **조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인식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사표본의 통계학적 오차의 최소화 및 국가승인통계화를 추진하는 것도 함께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부 -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⁴⁾⁵⁾

가. 조사 개요

환경부는 환경부 자체조사로 일반국민과 환경분야의 전문가(관련분야 전공 교수, 연구단체 근무자, 시민단체 근무자 등)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조사의 개요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환경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 요인 도출이 조사의 목적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2-2>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개요(2014년 기준)

구분	일반국민(전국)	전문가
조사대상	-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 특·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환경 관련분야 전공교수 및 연구단체 종사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방법	- 개별방문조사	- Fax 및 e-mail 조사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 별 비례할당 추출	- 전문가 인력풀을 이용한 체계적 표본추출
유효표본	- 300명	- 122명
수행기간	2014년 10월 27일 ~ 12월 5일	
조사기관	(주)윌드리서치	

자료: 환경부, 2014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4. 12.

4) 환경부, 2014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4. 12.

5) 2016년 조사는 보고서 작성 시점에 진행중이며, 2015년 조사도 진행되었으나 외부에 공개된 최신 조사 보고서가 2014년 보고서로 이를 기준으로 작성함.

일반국민의 경우 정책 인지 여부에 따른 만족도의 편차 확인을 위해 인지자와 비인지자를 구분하여 인지자의 만족도 점수를 전체 결과에 반영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분야에 따라 A, B, C 그룹으로 분류하고 해당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에만 참여토록 하고 있다.

나. 조사 항목

이 조사의 조사항목은 환경부의 실·국의 각각의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에 따라 선정되었다.

<표 2-3>에는 2014년에 조사된 환경부 8개 실·국의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분류된 전문가 그룹이 제시되었다. 기후대기정책관과 국제협력관은 같은 전략목표하에 있으나 각각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있었고,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도 하나의 전략목표를 갖고 있으나 정책과제는 따로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 그룹은 해당되는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만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2-3>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평가대상 전략목표 및 정책

실·국	전략목표 - 과제명(안)	정책과제	전략목표	전문가 그룹
환경정책관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한다.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 구현	전략목표 I	A
환경보건정책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전략목표 II	A
자연보전국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 조성	전략목표 III	C
기후대기정책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향상 시킨다.	대기오염 건강피해 사전 예방, 기후변화 적응역량 향상	전략목표 IV	B
국제협력관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적립		B
물환경정책국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지고 미래 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지고 미래세대로 향유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	전략목표 V	C
상하수도정책관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C
자원순환국	자원·에너지의 순환이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한다.	자원·에너지의 순환이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 사회 실현	전략목표 VI	B

자료: 환경부, 2014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4. 12. 자료 재구성

6개의 전략목표 및 8개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표 2-4>의 평가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인지도의 경우 일반국민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주성, 적정성, 대응성, 효과성, 체감만족도 항목의 경우 최종적으로 정책만족도 산출시 활용되었다. 8개의 정책과제 외에도 향후 정책 관련 제안사항 등도 조사에 포함되었다.

<표 2-4>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내용	비고
인지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일반국민만 조사
민주성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협조 노력 정도	정책만족도 산출시 활용
적정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비계량적 정책성고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환경정책 개선방안	환경부 추진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우선 추진정책	추진 중인 정책의 우선순위 평가	
신규 추진정책	환경부의 신규 추진 정책에 대한 제안사항	
정책개선 제안사항	정책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자료: 환경부, 2014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4. 12. 자료 재구성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행된 설문은 <표 2-5>와 같다.

1번부터 8번까지 문항은 각 8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과제별 주요 내용과 민주성, 적정성, 대응성, 효과성과 관련된 정책 설명문이 [그림 2-2]와 같이 제시되어 평가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는 일반국민을 기준으로 인지여부를 파악한 후 인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민주성, 적정성, 대응성, 효과성 및 체감만족도에 대해 0~10점 척도로 만족도를 선택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제별 조사 후에는 분야별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를 조사하는 문항과 이후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2] 정책설명문 예시

정책과제1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 구현
■ 주요 내용 ○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와 통합 허가제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전 분야에 녹색제품 보급을 촉진하여 소비·생산의 선순환체계 구축 ○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 보전에 필요한 국민의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민주성(정책고객 의견수렴, 정보공개 등 정책소통 노력 정도) ○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환경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한 환경정책 논의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정부 신뢰도 및 소통기능 강화 ○ 환경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해 권역별(수도권, 부산권, 영남권,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 개발과 기업과의 소통 증진 및 통합 허가제도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논의·소통하여 개선방향을 설정('13.4월~, 267회 총 9천여 명) ■ 적정성(정책내용의 구체성, 목표의 적극성 정도) ○ 수출형 강소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장려, 사업 수주기회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 통합허가제 도입으로 현행 일회성 적발위주의 지도단속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기적인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으로 전환 ■ 대응성(환경변화 극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정도) ○ 통합허가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산업계, 학계, NGOs 등과 협의체를 구성·논의(7회)하여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종 합의하여 다시 입법예고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해외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효과성(정책성과 달성 정도) ○ 통합 허가제도 도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수한 환경관리 기법 적용을 유도하여 환경기술 혁신과 환경시장 활성화, 환경산업 수출에 기여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기대효과 : 연 3,300억원의 GDP 창출, 5년간 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 환경산업 육성기반 구축, 해외시장 수주확대로 해외 환경사업 수주 발굴액 11조원 달성 ○ 녹색제품 보급 확대로 녹색제품 구매 2조 431 억원 달성, 친환경소비·생산 정책 추진으로 1,956개 업체에서 환경표지 제품을 생산, 인증제품은 12,332개 (기분)제품으로 확대	

다. 점수 산출방식

이 조사의 최종적인 산출값은 ‘환경정책 만족도’로 조사된 정책별 모든 항목을 종합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값에 가중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환경정책 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종합만족도’와 ‘항목만족도’ 산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종합만족도는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항목만족도는 네가지 항목인 ‘민주성’, ‘적정성’, ‘대응성’, ‘효과성’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각각의 항목은 정책별 세부설문문항 1~4번을 바탕으로 조사하며 체감만족도는 세부설문문항 5번의 응답을 활용한다.

만족도 산출을 위해 항목별 중요도가 산정되는데 평가항목 만족도와 체감만족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가 산정된다. 종합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한 중요도도 일반국민의 경우 각 50%, 전문가의 경우 항목만족도 70%, 체감만족도 30%의 비율로 적용됐다. <표 2-6>에 2014년 조사에 활용된 중요도가 제시되었다.

<표 2-6> 항목별 중요도(2014년 기준)

구분	항목 만족도					체감 만족도	합계
	합계	민주성	적정성	대응성	효과성		
일반국민	100.0%	25.1%	21.9%	26.2%	26.8%	50.0%	100.0%
전문가	100.0%	23.2%	25.4%	25.5%	25.9%	70.0%	100.0%

자료: 환경부, 2014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4. 12.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종합만족도가 산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70%, 전문가 30%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최종적인 정책만족도를 산출한다. 산출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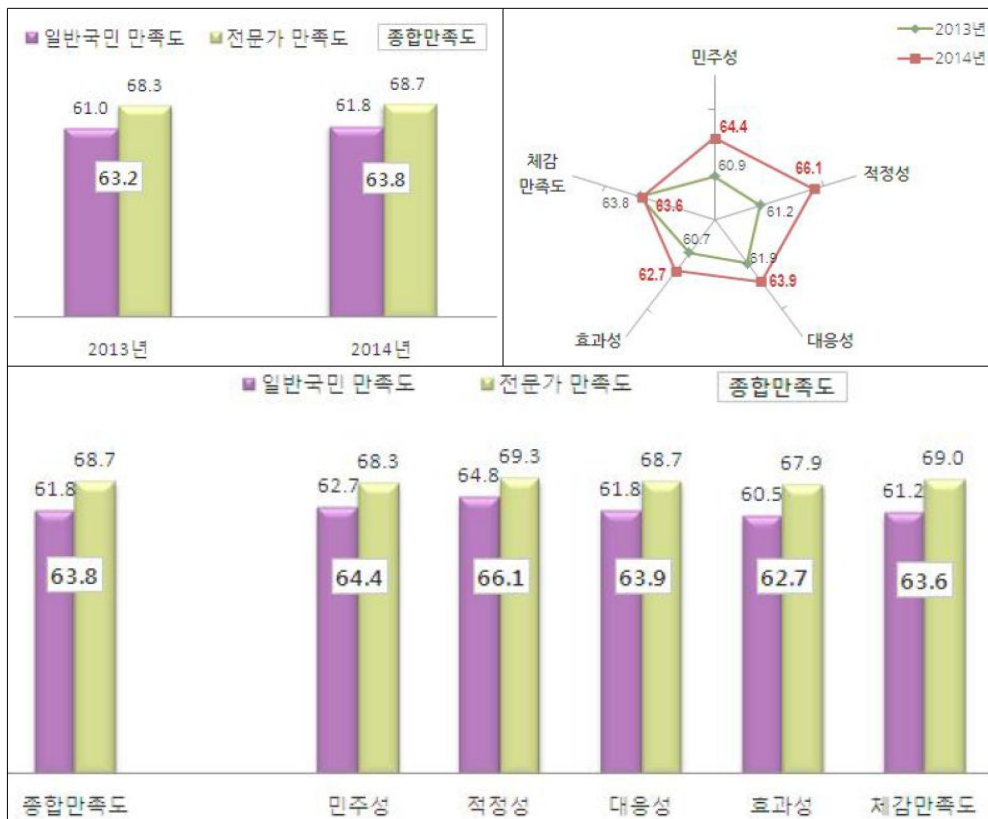
- 일반국민 항목만족도 = (민주성*0.251)+(적정성*0.219)+(대응성*0.262)+(효과성*0.268)
- 일반국민 종합만족도 = (항목만족도*0.5) + (체감만족도*0.5)
- 전문가 항목만족도 = (민주성*0.232)+(적정성*0.254)+(대응성*0.255)+(효과성*0.259)
- 전문가 종합만족도 = (항목만족도*0.7) + (체감만족도*0.3)
- 환경정책 만족도 = (일반국민 종합만족도*0.7) + (전문가 종합만족도*0.3)

라. 조사 결과

1) 환경정책 만족도

2014년 환경정책 만족도는 63.8점으로 나타나 2013년 63.2점에 비해 0.6% 포인트 상승하였다. 일반국민의 만족도는 61.8%, 전문가의 만족도는 68.7%로 전문가의 만족도가 6.9% 포인트 더 높았다. 항목별로는 체감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2013년 보다 소폭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전문가의 항목별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2-3]에 2014년 환경정책 만족도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림 2-3] 2014년 환경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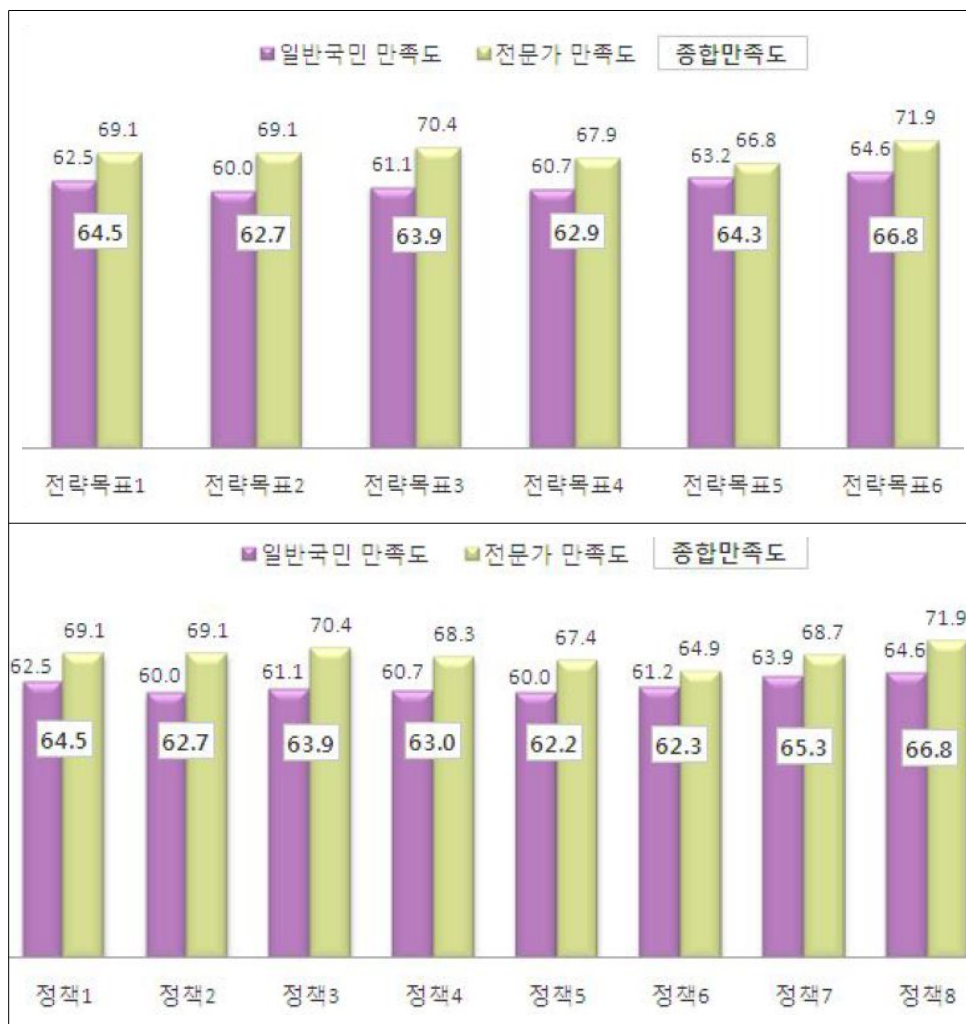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2014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4. 12.

2) 전략목표(실·국별) 및 정책별 만족도

[그림 2-4]에는 전략목표별 만족도와 정책별 만족도가 제시되었다. 전략목표 및 정책 내용은 <표 2-3>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정책 4와 5로 나뉘는 전략목표 4와 정책 6과 7로 나뉘는 전략목표 5를 제외한 나머지 전략목표와 정책의 만족도는 동일하다. 전략목표별로는 전략목표 6이자 정책 8인 자원순환국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그림 2-4] 2014년 환경정책 만족도 조사 전략목표 및 정책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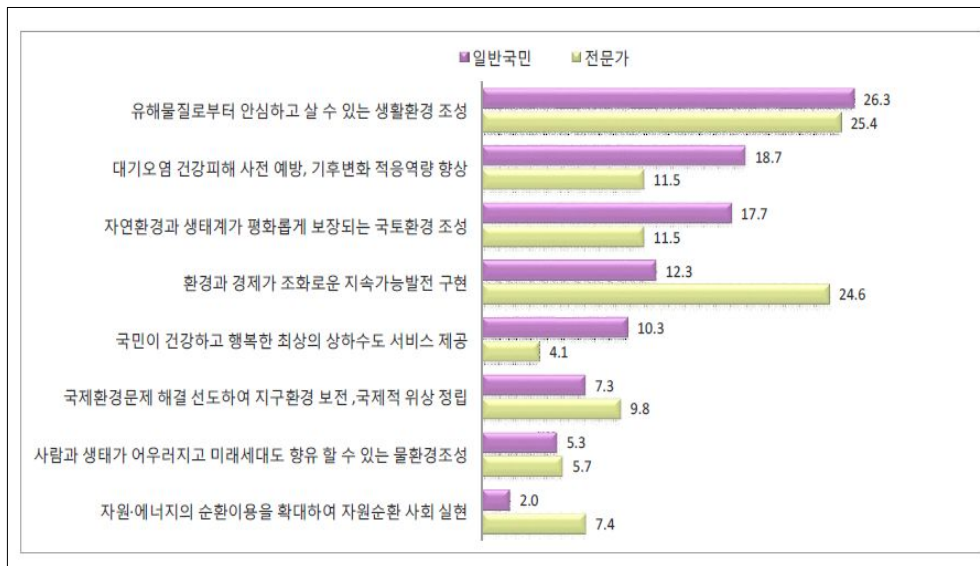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2014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4. 12.

3) 우선순위 비교 평가

환경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2-5]와 같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전략목표 2점 정책과제 2였던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후 타 정책에 대해서는 두 대상간의 일부 차이가 있어 전문가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 구현’을 다음으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일반국민의 경우 네 번째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이 유해물질 안심관련 정책 이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대기오염 예방,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 조성 순이었다.

[그림 2-5] 2014년 환경정책 우선순위 비교 평가



자료: 환경부, 2014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4. 12.

마. 시사점

환경부 조사에서 얻어지는 시사점으로는 정책에 대한 종합만족도 산출시에 일반국민과 전문가 조사결과를 일정 비율로 구분하여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서도 활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3. 기상청 -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⁶⁾⁷⁾

가. 조사 개요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기상청은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기상청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동시에 기상청의 날씨정보를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날씨경영인증 기업(기관)의 기상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도 진행되었다. 단,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경우 상·하반기로 2회 조사를 하였으나 날씨경영인증기업의 경우 하반기에 1회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일반국민 대상 좌담회 및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정성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으나 일반국민과 전문가 대상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표 2-7>에 조사의 개요가 제시되었다.

<표 2-7>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개요(2015년 기준)

구분	일반국민(전국)	전문가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기상관련 전문가(학계, 산업계 등), 유관기관 관계자
조사방법	- RDD 전화면접조사(CATI)	- 전화면접조사 및 이메일 조사 병행
표본추출	- 지역별 균등할당 후 지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층화비례추출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5년 기준)	-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조사 리스트를 활용하여 계통추출 실시
유효표본	- 상·하반기 각 1,500명 (총 3,000명)	- 상·하반기 각 400명 (총 800명)
수행기간	- 상반기: 2015년 6월 13일 ~ 6월 16일 - 하반기: 2015년 10월 16일 ~ 10월 19일	- 상반기: 2015년 6월 16일 ~ 6월 19일 - 하반기: 2015년 10월 19일 ~ 10월 30일
조사기관	(주)리서치랩	

자료: 기상청,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6) 기상청,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7) 2015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지난 조사와 비교한 2015년 조사의 특징으로는 표본 산출 방식 변경이었다. 기존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시 지역별 표본수가 최소 기준(30명)에 부족하여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고려하게 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지역별 균등할당과 비례할당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여 <표 2-8>과 같이 표본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최소 표본수를 확보하고, 사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 2-8〉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표본 산출

조사 표본수	지역별 표본 배분			인구분포를 반영한 보정치
	균등 할당_①	지역별 비례 할당_②	실제 조사 인원(①+②)	
전체	480	1,020	1,500	1,500
서울	30	207	237	304
부산	30	72	102	106
대구	30	49	79	72
이천	30	58	88	85
광주	30	29	59	43
대전	30	29	59	43
울산	30	23	53	34
경기도	30	241	271	354
강원도	30	31	61	46
충청북도	30	32	62	47
충청남도	30	44	74	64
전라북도	30	36	66	53
전라남도	30	38	68	56
경상북도	30	54	84	80
경상남도	30	65	95	95
제주	30	12	42	18

주: 지역별 할당 및 사후 가중치는 상·하반기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함.

자료: 기상청,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나.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은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크게 ‘기상서비스 만족도’와 ‘기상서비스 이용행태’로 구분되며 전문가의 경우 ‘기상정책 제언’이 추가고 조사되고 있다. 만족도 등의 문항은 7점 척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매우 부정부터 매우 긍정까지 문항에 따라 적용되었다.

<표 2-9>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항목(2015년 기준)

구분	내용	비고
기상서비스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기상서비스 유용도 - 기상서비스 신뢰도 - 기상서비스 만족도	
	○ 요소 만족도 - 단기예보 정확도 - 중기예보 정확도 - 기상특보 신속성 - 기상특보 정확성 - 기상정보 습득 용이성	
	○ 체감 정확도 - 기상예보 정확도 기대 수준 - 기상예보 체감 정확도	신설
	○ 사회적 만족도 - 기상정보가 국민안전에 도움주는 정도 - 기상정보가 사회/경제에 도움주는 정도	
기상서비스 이용행태	○ 기상서비스 이용 목적	
	○ 기상서비스 이용 빈도	
	○ 기상서비스 이용 매체 및 매체 빈도 순위	중복응답
	○ 비울 확률에 따른 대비 정도	신설
	○ 야외활동 계획 시 기상예보 확인 시기	신설
전문가 기상정책 제언	○ 기상예보 외 역점 추진 정책 영역	전문가만 해당
	○ 지상 이외에 우선 강화되어야 할 관측분야	
	○ 기상청의 발전을 위한 개선점 및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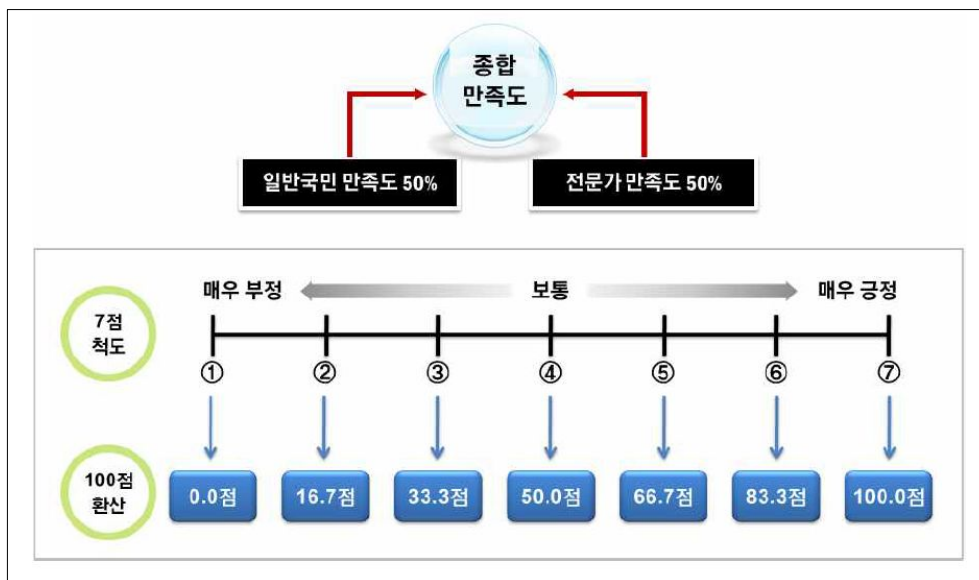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다. 점수 산출방식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본 조사는 두 대상의 조사 결과를 50%대 50%, 즉 1:1로 평균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하고 있다. 기상서비스 만족도 문항 외에 유용도, 신뢰도 등의 문항에도 동일한 비율로 결과를 산출한다.

7점 척도의 경우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그림 2-6]과 같이 활용하여 만족도를 산출한다.

[그림 2-6]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산출 방식



자료: 기상청,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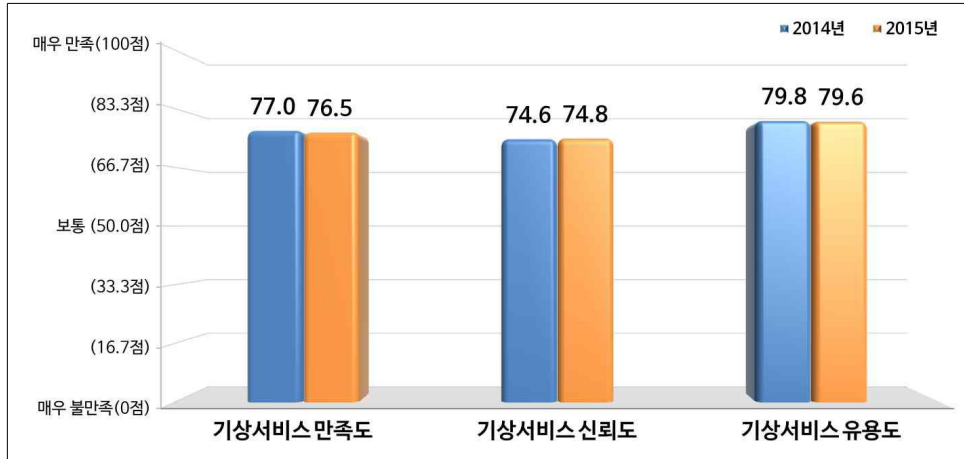
라. 조사 결과

1) 기상서비스 3대 지표 연도별 추이

[그림 2-7]에는 기상서비스 만족도, 기상서비스 신뢰도, 기상서비스 유용도에 대한 2015년 결과가 제시되었다. 본 조사의 대표적인 결과 값인 기상서비스 만족도는 2015년 76.5점으로 2014년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0.5점 하락하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3개 지표 중에는 기상서비스 유용도가 7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 기상서비스 3대 지표 연도별 추이



자료: 기상청,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가 <표 2-10>에 제시되었다. 전문가는 일반국민에 비해 모든 지표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 전문가 조사가 병행되는 타 조사들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10> 기상서비스 3대 지표 결과

지표	대상	2014 종합	2015 종합
기상서비스 만족도	종합	77.0	76.5
	일반국민	71.1	71.5
	전문가	82.9	81.5
기상서비스 신뢰도	종합	74.6	74.8
	일반국민	70.6	70.6
	전문가	78.7	79.0
기상서비스 유용도	종합	79.8	79.6
	일반국민	72.6	72.9
	전문가	87.1	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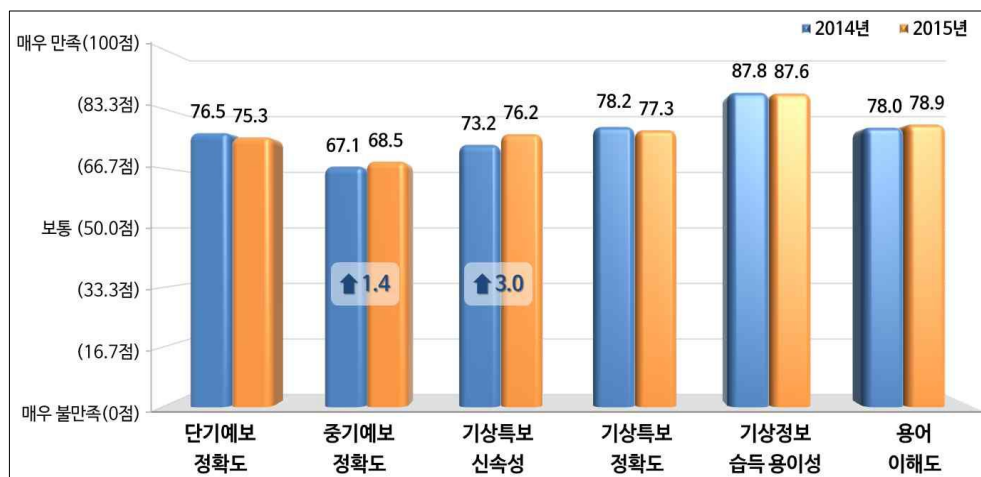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재구성.

2) 기상서비스 요소만족도

[그림 2-8]에는 기상서비스 요소만족도 결과가 제시되었다.

‘기상정보 습득 용이성’이 8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기예보 정확도’가 68.5점으로 가장 낮았다.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기상특보 신속성’이 3.0점, ‘중기예보 정확도’가 1.4점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그림 2-8] 기상서비스 3대 지표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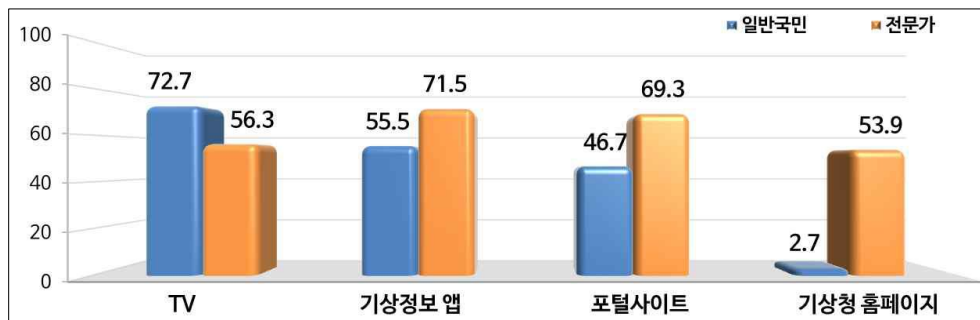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3) 기상서비스 이용매체

기상서비스를 위해 이용한 매체를 조사한 결과가 [그림 2-9]에 제시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 72.7%가 TV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이용빈도를 보였고 기상정보 앱, 포털사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기상정보 앱을 통해 기상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털사이트, TV 순으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차이가 있었다. 특히 기상서비스 앱을 선택한 비율은 2014년 64.4%에서 2015년 71.5%로 7.5% 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2-9] 기상서비스 이용매체



자료: 기상청,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 12.

마. 시사점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각 지역별 표본 수를 지역비례할당법에 의거하여 최소 조사대상인 30명을 넘기도록 증가시켰는데 이는 현재 지역별 표본수가 적어 4개 권역별로 분석하고 있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대상 패널 수 증가의 시급성이 되고 있다.

4.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⁸⁾

가. 조사 개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2015년에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위원회의 주요활동,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정책현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대국민 여론 수렴, 홍보 및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본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도출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조사는 <표 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8)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최종보고서, 2015. 7.

일반국민의 경우 최종 응답이 1,000명이었고, 전화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000명에 대한 표본추출시 성·연령·지역별 사후 가중을 통해 통계적 보정을 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최종 응답 500명으로 온라인 이메일 조사와 대인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전문가 이메일 리스트를 이용하여 전수 표집을 실시하였고 대면조사의 경우 편의적 표집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을 확보하였다.

〈표 2-11〉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개요

구분	일반국민	전문가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남녀	-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자치 전문가
조사방법	- 전화면접(CATI) - 유선(80%)·무선(20%)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 웹 설문 링크를 이용한 온라인 이메일 조사 및 대인 면접 조사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추출	- 전문가 이메일 리스트를 이용한 전수 표집 및 편의적 표집
유효표본	- 총 1,000명	- 총 500명 (이메일 조사 396명, 대면 조사 104명)
수행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3일	- 2015년 6월 2일 ~ 6월 23일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최종보고서, 2015. 7.

나. 조사 항목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의 조사내용 및 항목은 <표 2-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지방자치 변화 체감도’, ‘주요 쟁점 과제에 대한 의견’,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대별되어 조사대상에 따라 전문가는 모든 항목에 대해 조사하나 일반국민은 체감도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체감도의 경우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5단계로 응답을 하였으며 그 외의 항목의 경우 질문의 성격에 따라 해당되는 응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쟁점 과제에 대한 의견은 크게 ‘지방행정’, ‘지방재정’,

‘주민참여’, ‘자치경찰’, ‘교육자치’ 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국민은 간소화된 3개 문항에 대해서만 조사가 수행됐다.

〈표 2-12〉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조사항목

구분	내용	일반국민	전문가	비고
지방자치 변화 체감도	○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변화	○	○	
	○ 주민참여 기회 확대	○	○	
	○ 자치단체장 평가	○	○	
	○ 지방의회 의원 평가	○	○	
	○ 지역발전 기여도	○	○	
주요 쟁점 과제에 대한 의견	○ 자치구의회 개편 방식	○	○	지방행정
	○ 기관구성 변화 필요성		○	
	○ 지방자치단체 재정 인식		○	지방재정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필요 요소		○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유지 여부	○	○	주민참여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 이유		○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 유지 이유		○	
	○ 주민자치회 제도 확대 도입 필요성		○	
	○ 주민자치회 확대 도입 방식		○	
	○ 자치경찰제도 확대 필요성		○	자치경찰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방안		○	교육자치
	○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성	○	○	
	○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안		○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		○	
	○ 지방자치 강화 여부	○	○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최종보고서, 2015. 7. 재구성.

일반국민과 전문가에 모두 해당되는 문항 중 ‘자치구의회 개편 방식’의 경우 일반국민은 ‘도 단위 시·군과 다르게, 특별 광역시 내의 자치단체인 구를 개편하여 구의회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5단계(매우 공감 - 공감 -

보통-공감 안함-매우 공감 안함)로 응답을 하나 전문가는 ‘도 단위의 시·군과 다르게,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특별 광역시의 현행 자치구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구청장 직선 + 의회 미구성(자치구 폐지)’, ‘시장이 구청장 임명 + 의회 미구성(자치구 폐지)’, ‘현행 유지(자치구 존속)’으로 응답하여 동일하게 조사되는 내용이더라도 일부 차이가 있었다.

다. 점수 산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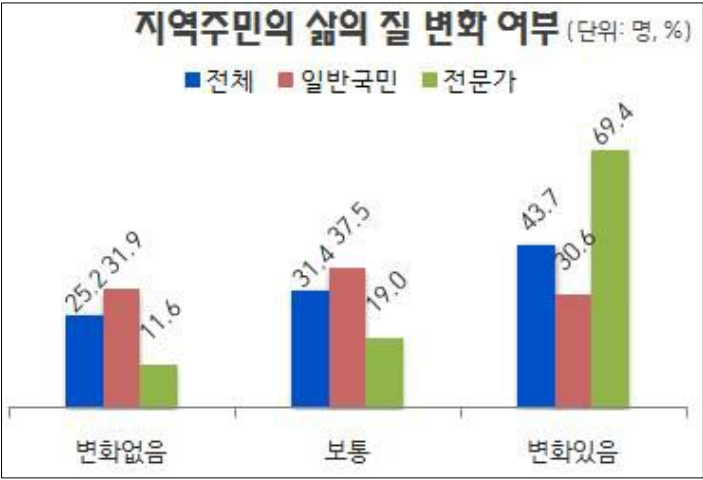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국민의 조사 결과를 2장,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3장에 제시한 후 4장,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인과·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두 조사대상의 문항별 비교 분석을 위해 전체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전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록으로 수록된 통계표를 바탕으로 추측한 결과 비교 가능한 문항의 경우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응답인원을 합산하여 1,500명 기준의 응답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로 산출된 값은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조사대상별 조사결과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조사 결과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변화

지방자치로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변화 여부가[그림 2-10]에 제시되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하여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30.6%, 전문가 69.4%로 나타나 일반국민의 2배 이상 비율의 전문가가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관련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일반국민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0]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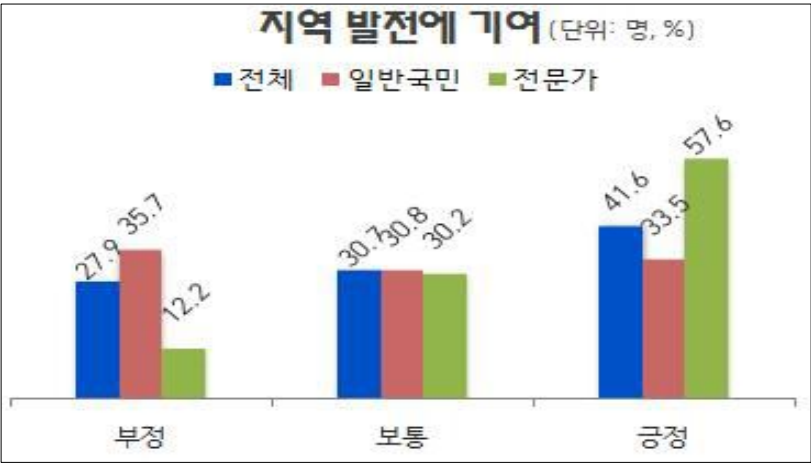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최종보고서, 2015. 7.

2) 지역 발전 기여도

[그림 2-11]에는 지방자치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2-11] 지역발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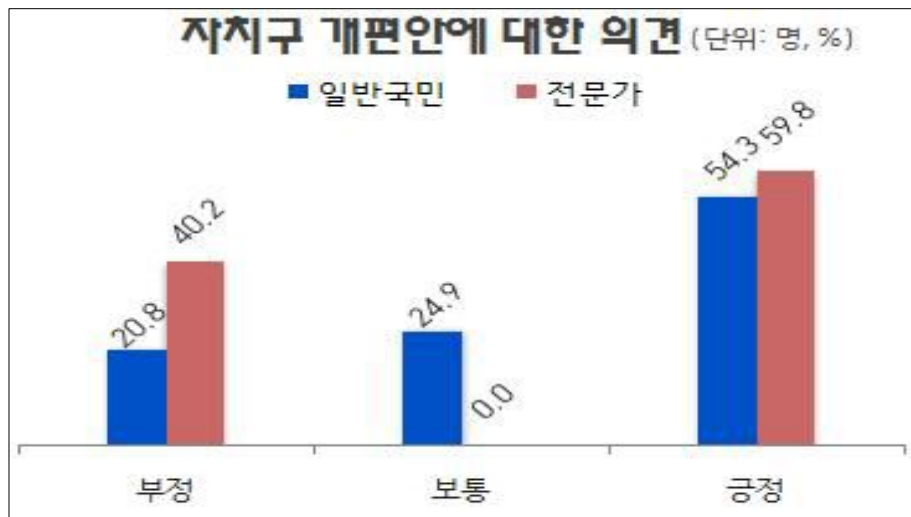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최종보고서, 2015. 7.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하여 지방 발전 기여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과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비교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비율이 33.5%였으나 보통이 30.8%, 부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비율도 35.7%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7.6%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지방 자치가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국민이 지방자치로 인한 지역 발전 기여도를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자치구의회 개편 방식

자치구 개편안에 대한 의견의 경우 일반국민과 전문가 대상의 조사 내용 및 문항에 일부 차이가 있어 전체로 값이 합산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자치구 개편에 대한 응답을 부정 및 긍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가 [그림 2-12]에 제시되었다.

[그림 2-12] 지역발전 기여도



주: 일반국민의 경우 '도 단위 시·군과 다르게, 특별 광역시 내의 자치단체인 구를 개편하여 구의회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단계(매우 공감 - 공감 - 보통 - 공감 안함 - 매우 공감 안함)로 응답하였고, 전문가의 경우 '도 단위의 시·군과 다르게,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특별 광역시의 현행 자치구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구청장 직선 + 의회 미구성(자치구 폐지)', '시장이 구청장 임명 + 의회 미구성(자치구 폐지)', '현행 유지(자치구 존속)'으로 응답함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최종보고서, 2015. 7.

일반국민의 경우 자치구 개편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 즉 긍정적인 비율이 54.3%였으며 전문가의 경우 59.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마. 시사점

이 조사의 경우 조사설계와 조사결과 산출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어 시사점 도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었다. 타 조사와는 달리 전문가가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전체 만족도 보다는 분야별 조사결과와 활용도가 높았다. 또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조사결과를 무리하게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결과를 따로 제시하고 있었다.

제3절 미국⁹⁾

1. Food & Health Survey: Consumer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Nutrition & Health

가. 조사 개요

Food & Health Survey: Consumer Attitudes toward Food, Nutrition & Health는 미국의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IFIC Foundation)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조사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식품과 건강과 관련된 신념과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이다.

2016년 조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반영하여 “Food Decision 2016: The Impact of a Growing National Food Dialogue”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내 식품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9) IFIC, 2016 Food and Health Survey: “Food Decision 2016: The Impact of a Growing National Food Dialogue”
<http://www.foodinsight.org/2016-food-and-health-survey-food-decision-2016-impact-growing-national-food-dialogue>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2006년 이후 11회차 조사였으며, 건강과 식이, 식품 성분, 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및 식품안전 등과 관련하여 미국인들의 신념과 행동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6년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2015년 인구 조사에 기초하여 연령, 교육수준, 인종, 성별,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된 18세에서 80세까지 미국 성인이며, ResearchNow의 소비자 패널을 활용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29분이었다.

<표 2-13>에 Food & Health Survey의 조사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표 2-13> 미국 Food & Health Survey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식품과 건강과 관련한 미국 소비자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시작년도	2006년
주기	1년 1회
주관기관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
조사방식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ResearchNow의 소비자 패널을 활용한 미국 성인(18~80세)
표본수	1,003명(2016년 기준) 매해 약 1,000명

나. 조사 항목

2016년 조사는 식품 정보 전반(Food Information Landscape), 건강한 식이 스타일(Healthy Eating Styles), 식이 구성요소(Dietary Components), 식품 성분(Food Ingredient), 식품 안전(Food Safe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식품 생산(Food Production)에 대해 진행되었다.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소득 등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입해 두기도 하였다. 외부에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식품 안전 관련 조사 문항은 <표 2-14>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4〉 미국 Food & Health Survey 조사 중 식품안전 관련 문항

구분	질문내용
Q1	전반적으로,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매우 신뢰함 - 어느정도 신뢰함 - 별로 신뢰하지 않음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잘 모르겠음
Q2	오늘날 가장 중요한 식품안전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1부터 3까지 순위매김) - 박테리아에 의한 식품매개 질병(예: E.coli,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 식품내 화학물질(예: 비소, 수은, BPA) - 살충제/잔류 농약 - 발암물질 - 식품 첨가물 및 성분(예: 카페인, MSG, 풍미, 색, 보존 등) - 생명공학/GMO - 동물 항생제 - 식품내 알레르기 항원(예: 견과류/각과류, 콩, 밀가루, 갑각류, 우유, 계란 등) - 기타
Q3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식품내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하여 듣고 읽어본 내용의 영향으로 식습관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Q4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식품내 화학물질, 발암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고르시오) - 건강관련 웹사이트 - 뉴스 채널 및 웹사이트 - 정부 기관 자료 및 웹사이트 - 가족 및 친구 - 자연 치료 관련 웹사이트 - 개인 건강 관리 전문가 - 식품 생산 및 제조 업체 웹사이트 - 소비자 옹호 그룹 - 비영리 기관 - 블로거 - 기타

구분	질문내용
Q5	각 식품 구매시, 어떤 면이 더 영향을 미쳤습니까? (1) 쌀 - 현미나 라이스 시리얼과 같은 쌀 음식의 건강상 이점 - 쌀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낮은 수준의 비소에 대한 잠재적 위험 - 두가지 모두 고려하지 않음 (2) 해산물 - 통조림 참치와 같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건강상 이점 - 해산물의 수은 오염 가능성 - 두가지 모두 고려하지 않음 (3) 방부제 - 방부제로 인한 긴 유통기한의 건강상 이점 - 식품내 방부제에 의한 잠재적 건강 위험 - 두가지 모두 고려하지 않음 (4) 붉은 고기 - 붉은 고기의 건강상 이점 - 붉은 고기 섭취가 암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 - 두가지 모두 고려하지 않음
Q6	살모넬라균이 식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Q6-1	(Q6에서 '네'를 선택한 경우) 살모넬라 박테리아를 가진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한에서 선택하십시오.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고르시오) - 살모넬라 박테리아가 함유된 식품은 안전히 먹을 수가 없음 - 조리해서/익혀서 먹음 - 씻어서 먹음 - 얼려서 먹음 - 식초나 레몬즙을 첨가함 - 잘 모르겠음
Q7	다음 식품들이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살모넬라 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매우 높음~매우 낮음 5단계) (1) 생닭 (2) 날달걀 (3) 생돼지고기 (4) 생소고기 (5) 익히지 않은/날것의 제품

구분	질문내용
Q8	식품을 조리, 준비 및 소비할 때, 어떤 행동을 주기적으로 취합니까?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고르시오) -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음 - 도마를 비누와 물 또는 표백제로 세척함 - 필요한 온도로 요리함 (예: 가금류의 경우 165°F) - 서빙 후 2시간 내에 남은 음식을 저장함 - 날 육류, 가금류 및 생선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과 구분함 - 각 재료에 따라 깨끗하게 세척된 도마를 사용함 (예: 날 육류, 가금류 이외의 날것의 제품 등) - 냉장고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식품을 해동함 - 육류 및 가금류를 요리할 때 알맞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식품 온도계를 사용함 - 해당 사항 없음
Q9	다음 중, 어떤 경우에 식품 온도계를 더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 무료로 식품 온도계가 주어졌을 때 - 요리책이나 웹사이트의 레시피에 조리시 온도를 명시했을 때 - 식품 온도계를 쉽게 찾아 구매할 수 있을 때 - 친구가 사용하며 추천했을 때 - 좋아하는 요리방송이나 셰프가 식품 온도계를 이용할 때
Q10	E. coli 0157이 식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Q10-1	(Q10-1에서 ‘네’를 선택한 경우) E. coli 0157 박테리아를 가진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한에서 선택하십시오.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고르시오) - E. coli 0157 박테리아가 함유된 식품은 안전히 먹을 수가 없음 - 조리해서/익혀서 먹음 - 씻어서 먹음 - 얼려서 먹음 - 식초나 레몬즙을 첨가함 - 잘 모르겠음

자료: IFIC, 2016 Food and Health Survey: “Food Decision 2016: The Impact of a Growing National Food Dialogue”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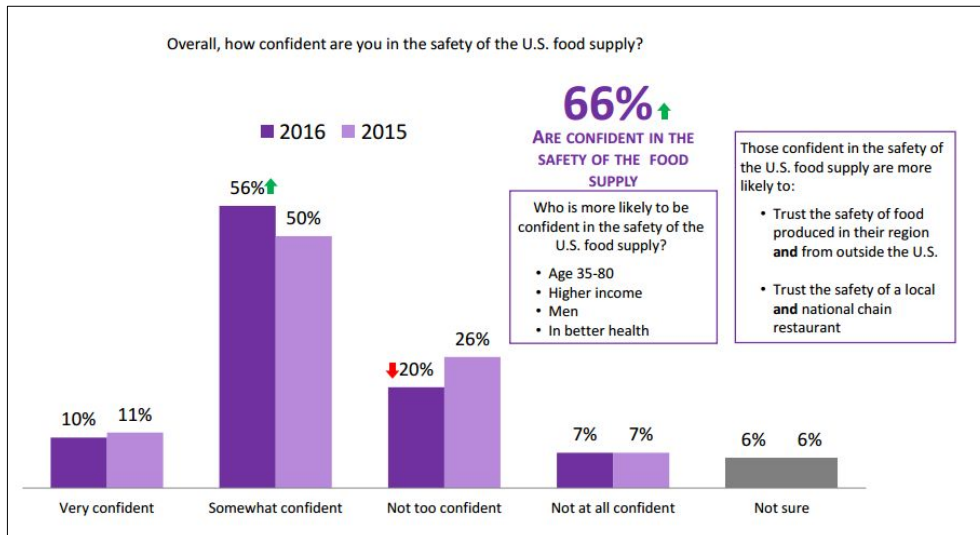
다. 2016년 조사 결과

1)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한 신뢰도

2016년 실시된 Food and Health Survey 중 식품 안전 분야의 결과로 [그림 2-13]에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한 신뢰도 결과가 나타나 있다.

5가지 응답 항목 중 ‘매우 신뢰함’과 ‘어느정도 신뢰함’을 응답한 경우 신뢰도가 있다고 보아 2016년의 경우 총 66%의 응답자가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해 신뢰하다고 하였다. ‘어느정도 신뢰함’을 선택한 응답비율이 2015년보다 6% 포인트 상승하였고,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음’이 6% 포인트 하락하였다. 신뢰도가 높은 집단으로는 35세 이상의 고소득의 건강상태가 좋은 남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3]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한 신뢰도



주: 1) 2016년 조사대상자 1,003명, 2015년 1,007명

2) 화살표 표시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냄

자료: IFIC, 2016 Food and Health Survey: “Food Decision 2016: The Impact of a Growing National Food Dialogue”

2)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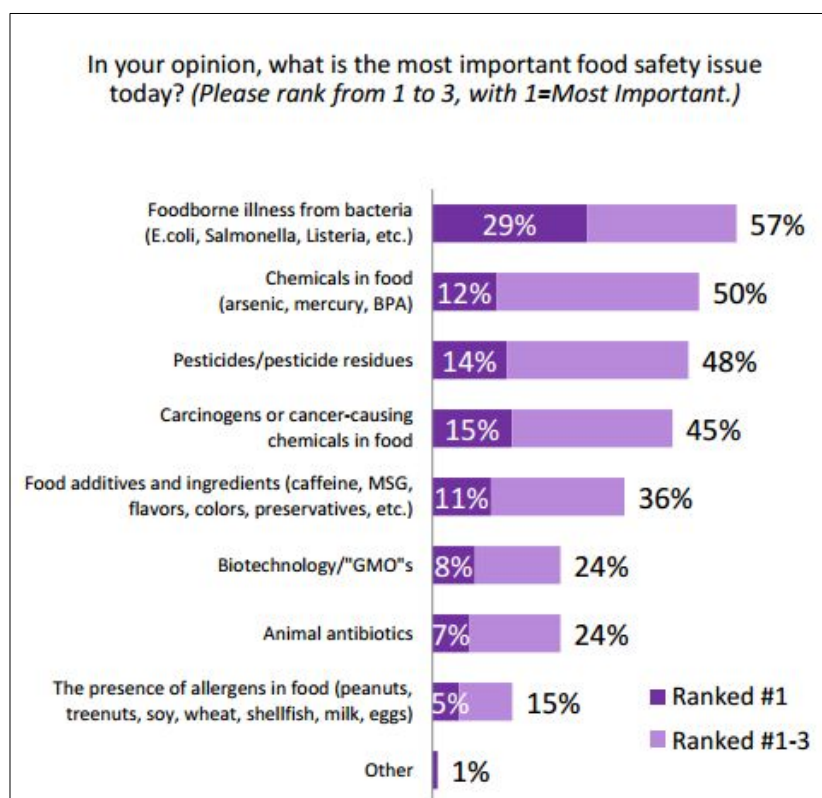
[그림 2-14]에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본인과 가족의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순서대로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조사를 하였다.

‘박테리아에 의한 식품매개 질병’을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로 1~3위 안에 뽑은 비율이 57%였으며 1순위로 생각하는 비율도 29%로 가장 높았다. ‘식품내

‘화학물질’과 ‘살충제/잔류 농약’을 우선순위로 뽑은 비율도 각 50%, 48%였으나 1순위로 뽑은 비율은 각 12%, 14%로 ‘박테리아에 의한 식품매개 질병’에 비해 낮았다.

2015년 조사와의 차이로는 기존 조사에서는 보기문항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었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전체 문항 중 3개까지 중복 선택 후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다. 2015년 결과에서는 ‘식품내 화학물질’이 36%, ‘박테리아에 의한 식품매개 질병’이 34%로 조사되었다. 2016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두 문항 모두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나 순위면에서 ‘식품내 화학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2-14]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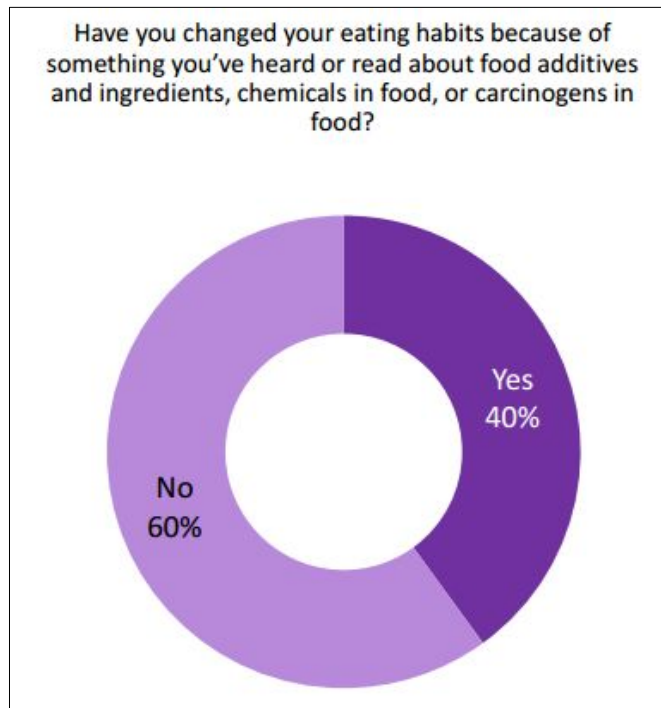


주: 1) 2016년 조사대상자 1,003명

자료: IFIC, 2016 Food and Health Survey: "Food Decision 2016: The Impact of a Growing National Food Dialogue"

식품 첨가물/성분을 비롯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던 항목 중 상위에 자리잡은 식품내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듣거나 읽는 등 접해본 경험으로 인해 식습관을 바꾼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0%로 나타났다.

[그림 2-15] 식품내 첨가물 등과 관련된 경험으로 인해 식습관 변경 여부



주: 1)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식품내 화학물질, 발암물질을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로 선택한 응답자 386명
 자료: IFIC, 2016 Food and Health Survey: "Food Decision 2016: The Impact of a Growing National Food Dia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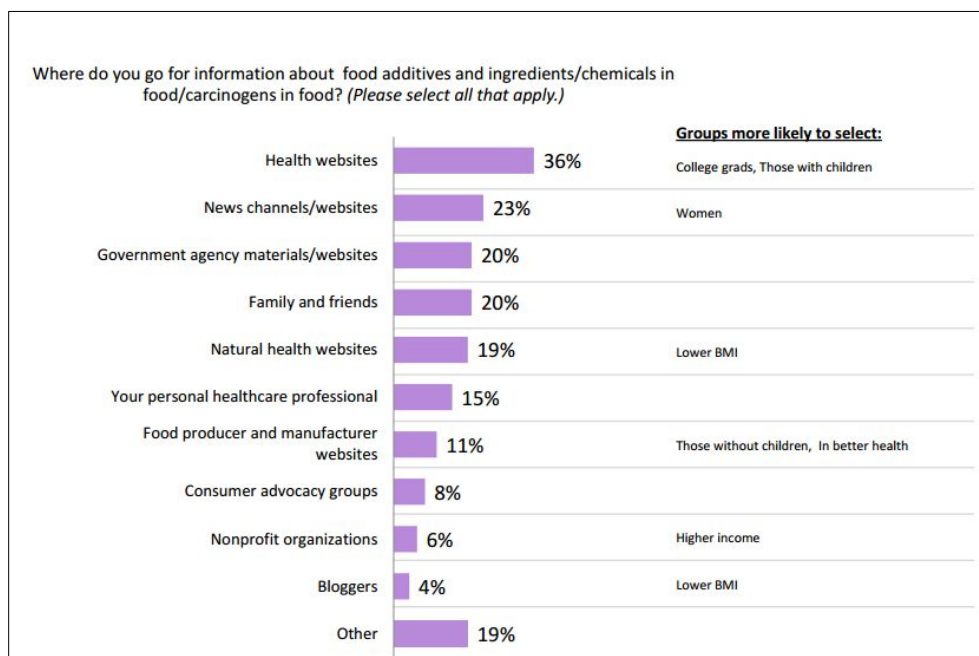
3) 정보를 얻는 경로

[그림 2-16]에 미국인들이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식품내 화학물질,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건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뉴스 채널 및 웹사이트’ 23%, ‘정부 기관 자료 및 웹사이트’와 ‘가족 및 친구’ 각 20% 순으로 높았다. 항목별로 응답이 높은 집단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 웹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이가 있는 집단이었다. ‘뉴스 채널 및

웹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은 여성이었다. 이 외에 BMI가 낮은 집단은 '자연 치료 관련 웹사이트'나 '블로거'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고 소득이 높은 집단은 '비영리 기관'으로 부터의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16] 정보를 얻는 경로



주: 1)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식품내 화학물질, 발암물질을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로 선택한 응답자 386명
 자료: IFIC, 2016 Food and Health Survey: "Food Decision 2016: The Impact of a Growing National Food Dialogue"

제4절 유럽

1. 영국 FSA -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¹⁰⁾

가. 조사 개요

10) Food Standard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 Tracker Survey.
<http://www.food.gov.uk/science/research/ssres/publictrackingsurvey>.

영국 식품안전국(FSA: Food Standards Agency)에 의해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영국 소비자 대상 인식조사로 2016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12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단순 무작위 지역 표본에서 선정된 영국 성인 2,044명이 조사 대상이었고,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의 경우 스코틀랜드에서도 현장조사가 있었으나 조사 인원이 스코틀랜드를 대표하기엔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12차 조사의 경우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소비자의 식품 관련 인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개요는 <표 2-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5> 영국 Tracker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FSA의 식품이슈 모니터
시작년도	2001
현재	2016 wave 12
주기	1년 2회(biannual)
주관기관	Food Standards Agency
조사방식	면접조사
조사대상	영국 성인 (TNS 소비자)
표본수	2,044명(2016년 기준) 매해 약 2000명
표본추출	단순무작위-지역표본 (random-location sampling)
질문수	6개(12개)

나. 조사 내용

12차 조사의 조사 내용은 <표 2-16>에 제시되어 있다.

Tracker 조사는 처음에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6회차 조사부터 식품 위생 등급 제도(FHRS: Food Hygiene Rating Scheme) 및 식품 위생 정보 제도(FHIS: Food Hygiene Information Scheme)를 포함한 식품 구매 장소/외식 장소의 위생 기준에 대한 계획(initiatives)과 제도(schemes)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어 10개로

늘어났었다. 이후 9회차 조사에서 추가된 4개 문항이 FHRS Tracker 조사로 분리되어 현재는 6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 2-16〉 영국 Tracker 조사 내용

구분	질문내용
Q1	A: 식품 현안 중 귀하가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주관식) B: 다음 식품 현안 중 걱정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 - 살모넬라, 대장균 같은 식중독 - GM 식품 - 광우병(BSE) - 가축 사료 - 농약 사용 - 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제 사용 - 식품의 호르몬,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 유통기한 표시 - 외식의 식품 위생 - 가정에서의 식품 위생 - 납과 같은 식품내 자연으로 부터의 화학물질 - 표기가 없는 식품 - 해당사항 없음 C: 다음 식품 현안 중 걱정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 - 식품내 소금 함량 - 식품내 설탕 함량 - 식품내 지방 함량 - 식품내 포화지방 함량 - 학교급식을 포함한 어린이 관련 식품들 - 해당사항 없음 D: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다음 식품 현안 중 걱정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 - 동물보호 - 식품가격 - 음식물쓰레기 - 푸드 마일 (식품의 이동거리) - 해당사항 없음

Q2	A: 귀하는 영국의 식당, 선술집(pubs), 카페 및 포장전문점(takeaways) 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걱정 또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매우 걱정한다 - 어느 정도 걱정한다 - 걱정하지 않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아니다 - 어느 정도 걱정하지 않는다 - 매우 걱정하지 않는다 B: 귀하는 영국의 상점과 슈퍼마켓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걱정 또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매우 걱정한다 - 어느 정도 걱정한다 - 걱정하지 않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아니다 - 어느 정도 걱정하지 않는다 - 매우 걱정하지 않는다
Q3	A: 귀하가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레스토랑, 카페, 선술집, 포장전문점 등에서 식사를 할 때, 이러한 장소의 위생기준에 대해 고려합니까? - 그렇다 : 항상 - 그렇다 : 간헐적으로 - 그렇지 않다 B: 귀하는 식품을 구매업체나 외식 장소의 위생기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 (영국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위생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만 응답) - 입소문 - 평판 - 종업원의 외모 - 상점들의 일반적인 외관 - 위생표시 간판 (Hygiene sticker) - 위생 증명서 (Hygiene certificate) - 홈페이지 - 다른 방법 (자세히 작성)
Q4	다음 중 들어본 적이 있는 기관은 모두 고르세요. - Department of Health (잉글랜드 한정) - Department for Health, Social Services and Public Safety (DHSSPS) (북아일랜드 한정) - Public Health Agency (PHA) (북아일랜드 한정) - Scottish Government Health Improvement Directorate (스코틀랜드 한정) - Department for Public Health and Health Professions (웨일즈 한정)

	- Food Standards Agency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한정) - Food Standards Scotland (스코틀랜드 한정) - Safefood (북아일랜드 한정)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잉글랜드 한정) - Department for Rural Affairs (웨일즈 한정)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ARD) (북아일랜드 한정) - The Environment Agency (잉글랜드, 웨일즈 한정) -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SEPA) (스코틀랜드 한정) - Scottish Government Rural Directorate (스코틀랜드 한정) -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 Audit Scotland (스코틀랜드 한정) - Health & Safety Executive - Office of Fair Trading -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 British Dietetic Association (BDA)
Q5	A: FSA가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문제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FSA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응답) B: FSA/FSS(Scotland)가 다음 문제 중 어떠한 식품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FSA나 FSS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응답) - 구매하는 식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한지 보장 - 가정내에서의 식품안전 증진 -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식품의 지속성 보장(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음식물 쓰레기 감소 등) - 영양정보표시(신호등 표시제 등) - 유통기한 표시 - 원산지 표시제 - 기타(자세히 작성)
Q6	A: 귀하는 FSA/FSS가 수행하는 업무를 얼마나 신뢰 또는 불신하십니까? 상점이나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가정 내에서의 식품 안전에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 매우 신뢰한다 - 신뢰한다 - 신뢰하는 것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 불신한다 - 매우 불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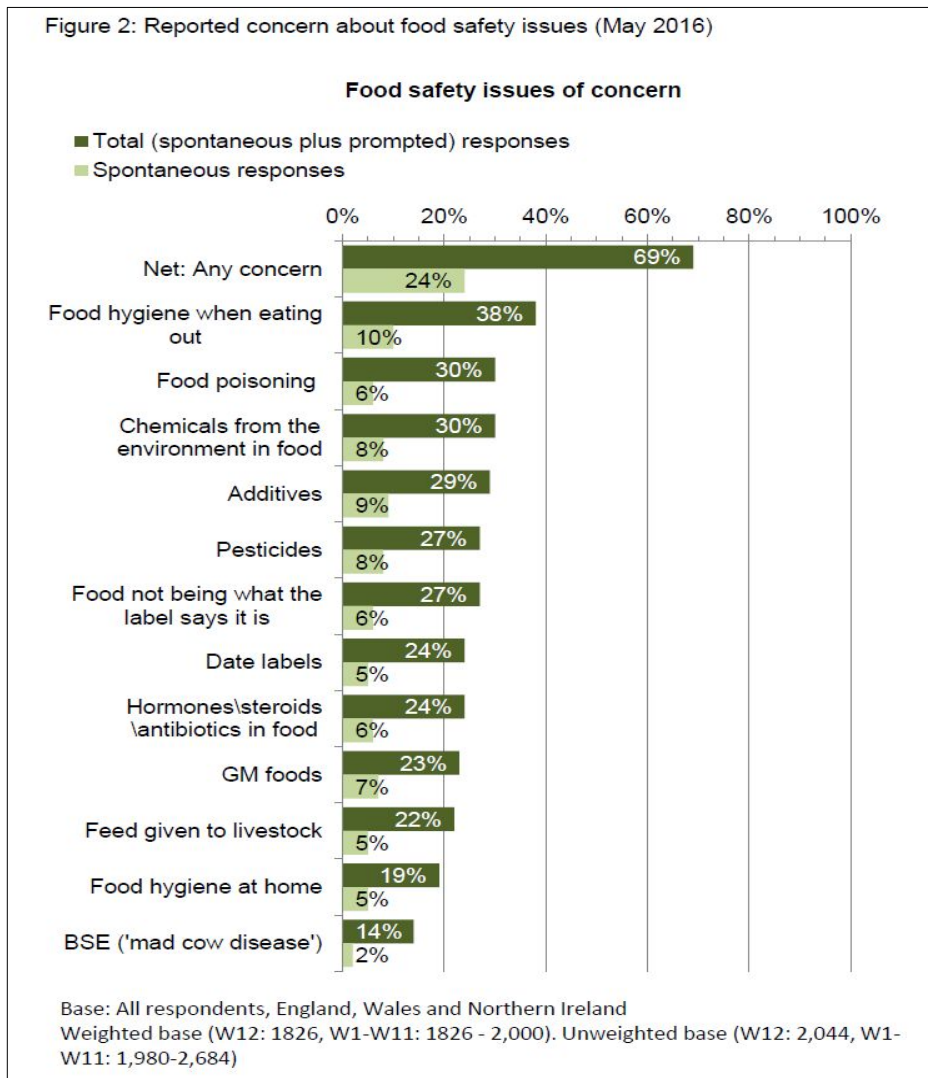
자료: Food Standards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 Wave 12, May 2016.

다. 2016년 조사 결과

1) 식품 안전 현안에 대한 우려

[그림 2-17]에는 식품 안전 현안에 대한 우려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타나있다.

[그림 2-17]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자료: Food Standards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 Wave 12, May 2016.

식품 현안에 대한 관심 및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자발적으로 생각나는 현안을 응답하게 한 후 다음 질문에서 여러 보기를 주고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도록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자발적인 응답과 보기 선택 응답을 포함하여 우려하는 식품 현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였다.

현안별로는 가장 관심 있고 우려하는 현안은 ‘외식시의 식품 위생(38%)’으로 10차, 11차 조사와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식품 첨가물 사용(30%)’, ‘식중독(30%)’에 대해 가장 관심 있고 우려한다고 응답하여 10차, 11차 조사와 유사하였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조사에서 16~20% 정도의 응답률을 보여온 ‘가축사료’가 12차 조사에서 22%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12번의 조사에서 크게 변동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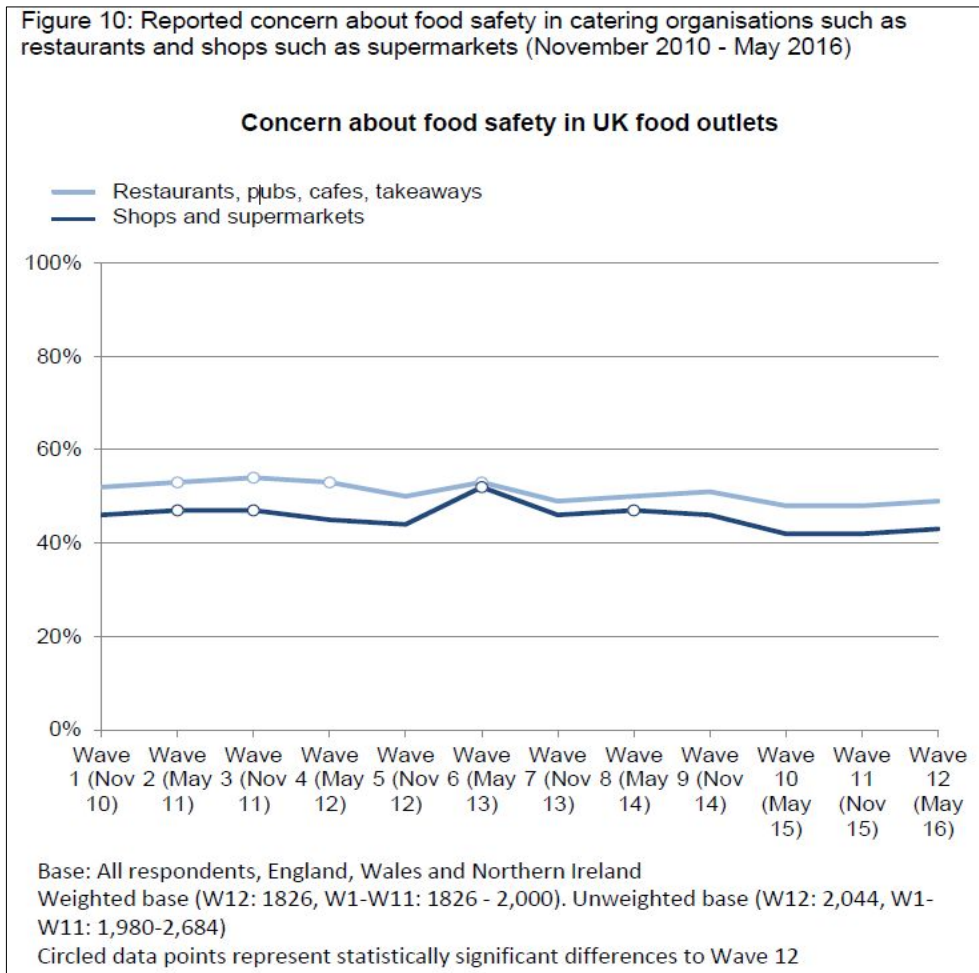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여성의 74%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64%의 응답비율을 보인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식품 위생’과 관련된 문항을 선택한 비율이 여성은 42%, 남성은 34%였으며, ‘표기가 없는 식품’ 문항을 선택한 비율도 여성은 30%였으나 남성은 23%라 차이를 보였다.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꾸준히 식품 안전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6~25세 및 65세 이상의 연령 집단은 꾸준히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정도

[그림 2-18]에는 영국내 식당, 선술집(pubs), 카페, 및 포장전문점을 포함한 외식과 상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포함하여 전체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정도에 대한 회차별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2차 조사에서 외식과 관련된 식품 판매점에서의 안전의 경우 49%의 응답자가 ‘매우 걱정한다’와 ‘어느 정도 걱정한다’에 응답하여 기존의 조사와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43%가 우려를 보여 기존 2, 3회(47%) 및 6회(52%), 8회차(47%) 결과보다는 낮았으나 타 회차와 유사하였다.

[그림 2-18] 판매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의 시계열적 변화



자료: Food Standards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 Wave 12, May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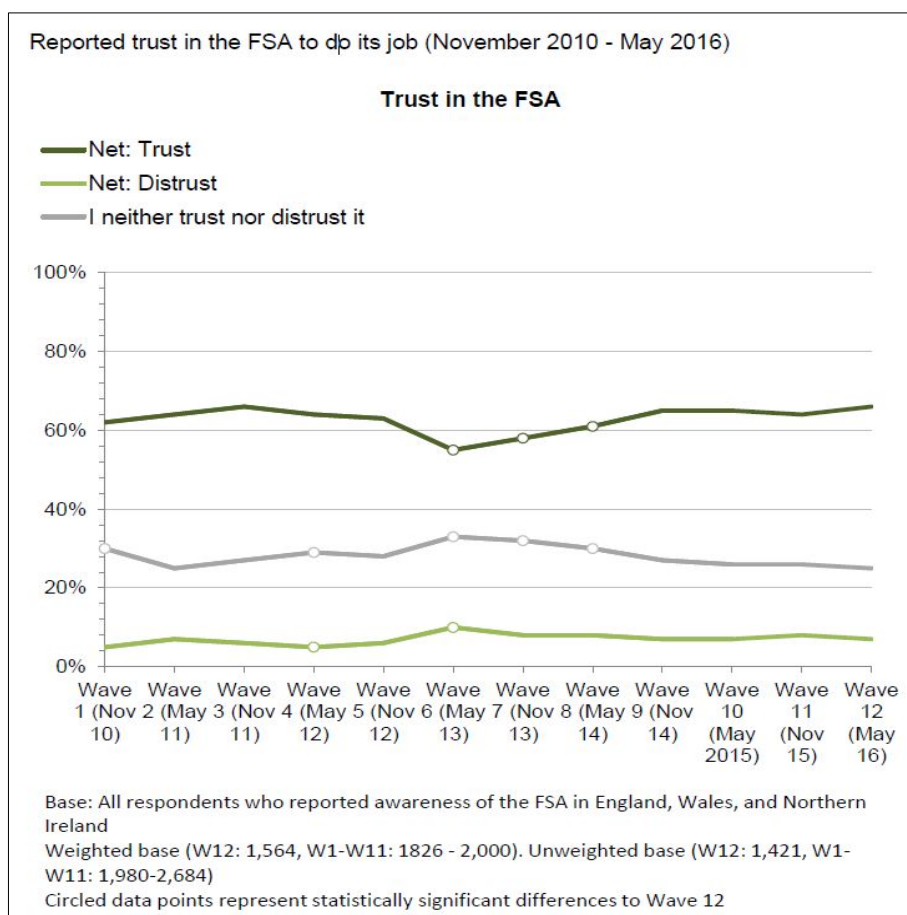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가정내에서 식품 구매에 있어 주 구매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 구성원에 비해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등의 외식 등의 판매점에 대해서는 50%가 우려하였고, 슈퍼마켓 등의 식품 판매점에 대해서는 45%가 우려한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각 42%, 38% 응답한 것보다 높았다.

3) FSA에 대한 신뢰도

식품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Food Standards Agency(FSA)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가 [그림 2-19]에 제시되어 있다.

FSA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6차 조사 때 최하점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편이었으며, 11차 조사 때 약간 하락하였으나 12차 조사에서 다시 상승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6%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9] FSA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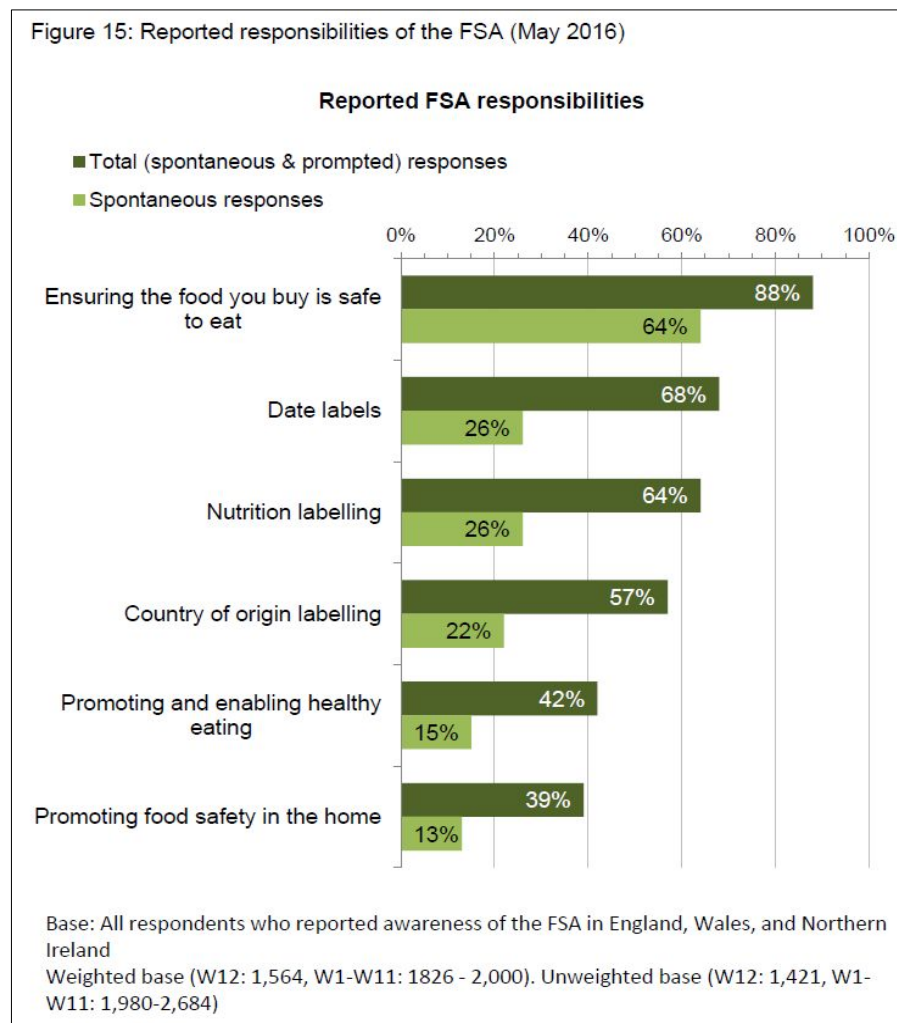


자료: Food Standards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 Wave 12, May 2016.

4) FSA의 책임에 대한 인지도

FSA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식품 안전 및 식품 위생 정책(안전 및 알레르기 표기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FSA의 책임 또는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그림 2-20]에 제시되었다.

[그림 2-20] FSA의 책임에 대한 인지도



자료: Food Standards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 Wave 12, May 2016.

식품 현안에 대한 관심 및 우려에 대해 조사한 방식과 유사하게 우선 자발적으로 생각나는 FSA의 책임을 응답하게 한 후 다음 질문에서 여러 보기를 주고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하도록 조사하였다. 단, 앞의 문항에서 FSA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매하는 식품이 섭취하기 안전한지 보장’을 FSA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유통기한 표시’가 68%, ‘영양정보표시’가 64%로 나타났다. ‘구매하는 식품이 섭취하기 안전한지 보장’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64%가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독일 BfR - BfR Consumer Monitor¹¹⁾

가. 조사 개요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은 독일연방농식품부(BMEL: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산하의 과학 기관으로 식품, 화학 및 관련 제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독일 연방 및 주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BfR Consumer Monitor’라는 이름으로 독일 내 14세 이상 인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보호 및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fR에 따르면 반년 단위로 조사가 수행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2014년 10월경, 2015년 6월, 2016년 2월(조사는 1월에 실시)에 결과가 발표되어 정확하게 반년 단위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다.

독일의 공공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대응하여 BfR이 위해 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 관련 활동을 이끌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BfR Consumer Monitor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6년 2월 조사는 전체에서 3회차 조사이며,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무작위로 선정된 번호로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식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11) BfR, BfR Consumer Monitor, 2016. 02.

조사 개요는 <표 2-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7> 독일 BfR Consumer Monitor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독일 소비자의 건강 보호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시작년도	2014
주기	6개월 간격
현재	2016년 기준 3회차
주관기관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조사방식	전화조사
조사대상	독일 연방 14세 이상 인구
표본수	1,010명(2016년 기준) 매해 약 1,000명
표본추출	유선전화/휴대폰 번호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
질문수	7개

나. 조사 내용

2016년 3회차 조사의 조사 내용은 <표 2-18>에 제시되어 있다. 총 7개 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표 2-18> 독일 BfR Consumer Monitor 조사 내용

구분	질문내용
Q1	소비자에게 가장 큰 건강상 위험이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최대 3개까지 서술할 수 있음) - 기후, 환경 오염 - 흡연 - 건강에 해롭고 잘못된 다이어트 - 음주

	- 건강에 해롭고 오염된 식품 - 암 - 의료 체계의 잘못 - 유전공학, GMO - 불충분한 표기 및 식품 단속 - 오염물질, 첨가물 - 잘 모름, 무응답
Q2	다음 건강과 소비자 관련 주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각 보기에 대해 '① 들어본 경험이 있음, ② 들어본 경험이 없음, ③ 잘 모름, 무응답' 으로 응답함) - 과일과 채소의 잔류농약 - 길항미생물저항성 - 바다제품의 미네랄 오일 성분 - 바다제품의 호르몬 같은 물질 - 식품내 미세플라스틱 - 수렵육(사냥으로 잡은 고기)의 납 - 허브차 등 차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 글리포세이트
Q3	다음 식품 안전 주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얼마나 우려합니까? (각 보기에 대해 1-우려하지 않음-부터 5-우려함-까지 척도를 활용함) - 길항미생물저항성 - 유전자변형식품 - 과일과 채소의 잔류농약 - 식품내 미세플라스틱 - 식중독, 전염 - 미식/외식의 식품 위생 - 바다제품의 호르몬 같은 물질 - 불균형한 다이어트 - 차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 먹이사슬내 글리포세이트 - 가정의 식품 위생
Q4	다음 소비자 건강보호와 관련된 세 문장 중 가장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나는 내가 건강상의 위험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으며, 어떠한 국가 기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국가는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국가는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로서의 나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제한과 같이 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잘 모름, 무응답
Q5	독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일반적인 안전에 대해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 안전함 - 불안 보다는 안전함 - 안전 보다는 불안함 - 불안함

Q6	그리고, 독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음 제품들의 일반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1) 섬유 - 불안함 - 안전 보다는 불안함 - 불안 보다는 안전함 - 안전함 - 잘 모름, 무응답 (2) 장난감 - 불안함 - 안전 보다는 불안함 - 불안 보다는 안전함 - 안전함 - 잘 모름, 무응답 (3) 화장품 - 불안함 - 안전 보다는 불안함 - 불안 보다는 안전함 - 안전함 - 잘 모름, 무응답
Q7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독일의 국가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신뢰함 - 신뢰하는 편임 - 신뢰하지 않는 편임 - 신뢰하지 않음 - 잘 모름,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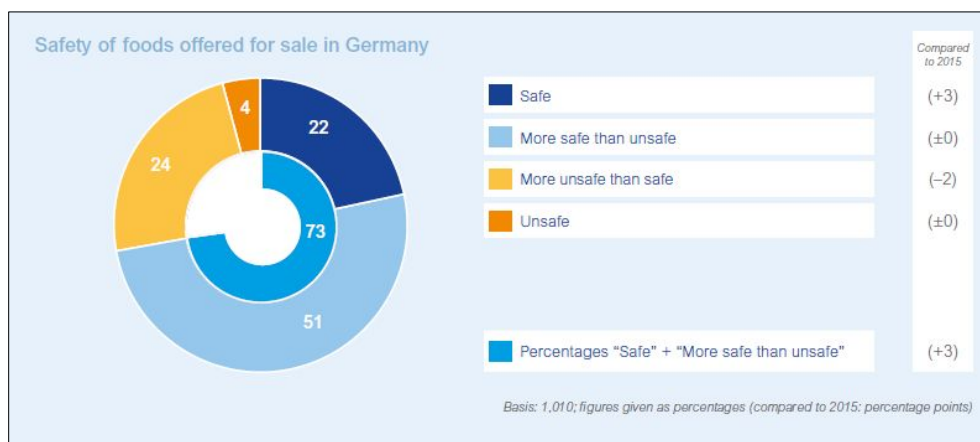
자료: BfR, BfR Consumer Monitor, 2016. 02.

다. 2016년 조사 결과

1) 식품 안전에 대한 추정

[그림 2-21]에는 독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추정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타나있다.

[그림 2-21] 식품안전에 대한 추정 정도



자료: BfR, BfR Consumer Monitor, 2016. 02.

독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을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였고 불안 보다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였다. 이는 2015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불안 보다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동일하였으나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 포인트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3% 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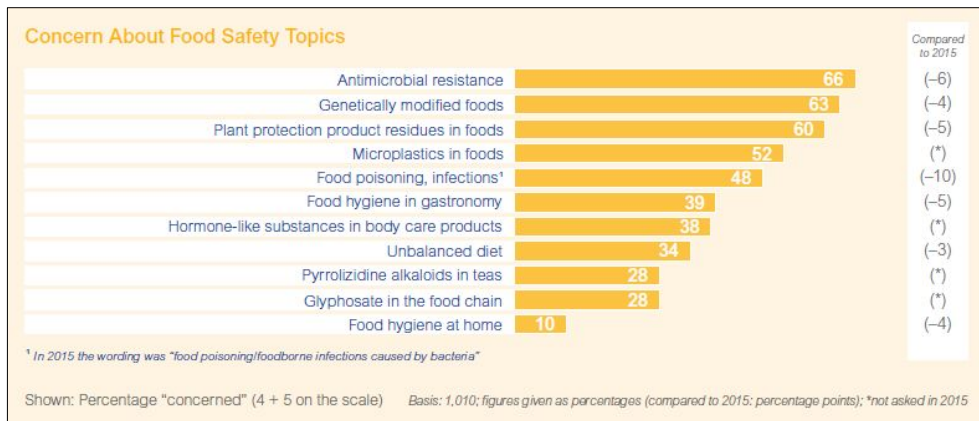
식품과 관련된 안전 외에도 독일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섬유, 장난감, 화장품에 대한 안전 정도도 조사하여 식품 외의 소비재와 비교를 할 수 있다.

2) 식품 안전 주제와 관련된 우려 정도

BfR Consumer Monitor에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우려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각 주제별로 응답시 우려하지 않을 경우 1점, 우려할 경우 5점을 기준으로 5단계 척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22]에는 각 주제별 5단계 중 우려 정도를 4점 이상으로 선택한 응답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66%로 식품 안전과 관련되어 독일 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주제는 ‘길항미생물저항성’이었으며 이어서 ‘유전자변형식품’이 63%, ‘과일과 채소의 잔류농약’이 60%로 우려 정도가 높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정의 식품 위생’에 대한 우려 정도는 10%로 가장 낮았다.

2015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식품내 미세플라스틱’과 ‘바디제품의 호르몬 같은 물질’, ‘차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먹이사슬내 글리포세이트’는 새롭게 제시된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주제들은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정도가 하락하였다. ‘식중독, 전염’의 경우 10% 포인트 하락하여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그림 2-22] 식품안전에 대한 추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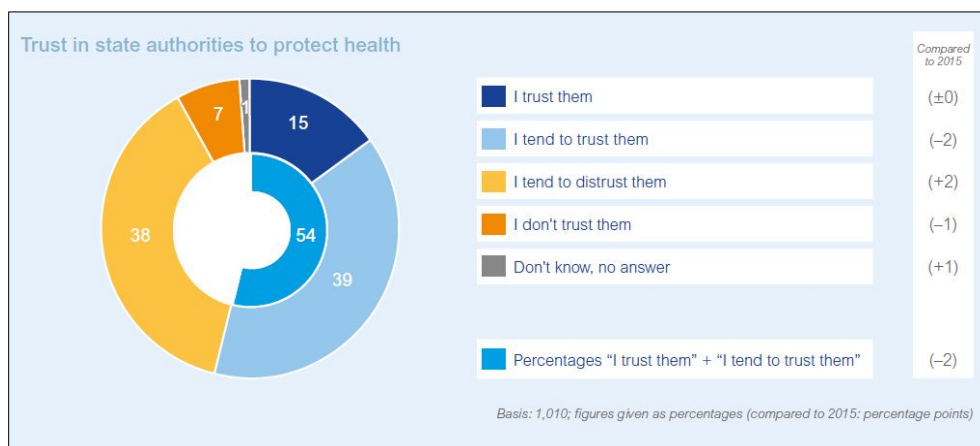
자료: BfR, BfR Consumer Monitor, 2016. 02.

3) 건강 보호 관련 독일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그림 2-23]에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독일의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의 15%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39%가 신뢰하는 편으로 응답하여 총 54%가 전반적으로 신뢰한다고 응답하여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도 38%로 나타났다.

2015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신뢰한다는 응답은 동일하였으나 신뢰하는 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2% 포인트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 2-23] 독일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자료: BfR, BfR Consumer Monitor, 2016. 02.

제5절 일본¹²⁾¹³⁾

1. 조사 개요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위해소통 (Risk communication)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매년 식품안전모니터를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 및 식품안전위원회로부터 정보발신 등에 대해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대학 등에서 식품과 관련한 학문을 이수한 사람, 식품과 관련이 깊은 자격(영양사 등)이 있는 사람, 또는 식품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 470명을 식품안전모니터로 선정하고 있다.

<표 2-19>에 식품안전모니터 조사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12) 食品安全委員会, 食品安全モニターからの報告.

https://www.fsc.go.jp/monitor/monitor_report.html

13) 보고서 작성시점까지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최신 자료가 2014년 자료임

〈표 2-19〉 일본 식품안전모니터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리스크 관리 조치의 모니터링
시작년도	헤이세이 15년 (1997년)
주기	1년 2회 1회차(하반기):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 등 조사 2회차(상반기): 매년 식품안전 정보 등과 관련한 내용 조사 - 최근 5년간 2회차 조사의 주제 · 2010년 2회차: 식품안전위원회에서의 정보 발신에 대해 · 2011년 2회차: 식품안전에 관한 의식 및 식품안전위원회에서의 정보 발신 등에 대해 · 2012년 2회차: 식품안전 정보에 대해 · 2013년 2회차: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입수한 정보의 이용 등에 대해서 · 2014년 2회차: 식품에 관한 위해 인식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보원에 대해서
주관기관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조사방식	설문조사
조사대상	식품안전모니터(일본 성인남녀)
표본수	470명
조사내용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 및 식품안전위원회로부터의 정보 발신 등에 대해서

2. 조사 대상

일본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470명의 식품안전모니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있다. 식품안전모니터의 직업그룹은 총 7개로 구분하였다.

〈표 2-20〉 식품안전모니터 구분(14년 1회차 기준)

직업그룹	설명	응답자 인원 (비율)
제품 생산·가공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식품 생산, 가공에 관한 직업(조리 종사자 포함)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134명 (30.7%)
식품 유통·판매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식품 유통, 판매 등(회사, 단체의 임원 포함)과 관련된 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70명 (16.0%)

직업그룹	설명	응답자 인원 (비율)
식품관련 연구직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연구기관(민간의 연구기관 포함), 대학 등 식품과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 경험이 5년 이상인 경우	40명 (9.2%)
의료직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의료 등에 관련된 직업(의사, 수의사, 약사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41명 (9.4%)
교육직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교육에 관한 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35명 (8.0%)
식품 관련 행정직 경험자	- 과거 식품 안전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17명 (3.9%)
그 외 일반소비자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직장인, 주부, 자영업 등)	100명 (22.9%)

3. 조사 기간

가장 최근 발표된 조사의 경우 2014년의 2회차 조사이며 조사는 2015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식품안전모니터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4. 세부조사항목

연 2회 진행되는 식품안전모니터 조사는 1회차가 당해 여름, 2회차가 다음해 초에 실시된다. 1회차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회차의 경우 매년 식품안전 정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¹⁴⁾.

<표 2-21>에는 일본 식품안전위원회가 시계열 분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1회차 조사 내용이 제시되었다.

14) 최근 5년간 2회차 조사의 주제

- 2010년 2회차: 식품안전위원회에서의 정보 발신에 대해
- 2011년 2회차: 식품안전에 관한 의식 및 식품안전위원회에서의 정보 발신 등에 대해
- 2012년 2회차: 식품안전 정보에 대해
- 2013년 2회차: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입수한 정보의 이용 등에 대해서

〈표 2-21〉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조사의 세부내용

조사분야	질문내용				
식품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등에 대해	질문1: A~G에 기재된 사항의 위해측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선택지 1~6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주시시오.				
	<table><tr><th>내용</th><th>선택항목</th></tr><tr><td>A. 환경문제 B. 자연재해 C. 식품안전 D. 중증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 E. 범죄 F. 전쟁·테러 G. 교통사고</td><td>1. 매우 불안을 느낀다 2. 어느 정도 불안을 느낀다 3. 어느 쪽도 아니다 4.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6. 잘 모르겠다</td></tr></table>	내용	선택항목	A. 환경문제 B. 자연재해 C. 식품안전 D. 중증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 E. 범죄 F. 전쟁·테러 G. 교통사고	1. 매우 불안을 느낀다 2. 어느 정도 불안을 느낀다 3. 어느 쪽도 아니다 4.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6. 잘 모르겠다
	내용	선택항목			
	A. 환경문제 B. 자연재해 C. 식품안전 D. 중증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 E. 범죄 F. 전쟁·테러 G. 교통사고	1. 매우 불안을 느낀다 2. 어느 정도 불안을 느낀다 3. 어느 쪽도 아니다 4.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6. 잘 모르겠다			
질문 2: A~M에 기재된 사항의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해요소에 대해 선택지 1~5 중 하나씩 선택해주시시오. 또는 A~M의 위해요소 이외의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신경 쓰이는 것이 있으면 「N 기타」에 구체적인 예를 기입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선택지 1~5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시시오.					
<table><tr><th>내용</th><th>선택항목</th></tr><tr><td>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td>1. 매우 불안하다 2. 어느 정도 불안하다 3.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td></tr></table>	내용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1. 매우 불안하다 2. 어느 정도 불안하다 3.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내용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1. 매우 불안하다 2. 어느 정도 불안하다 3.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질문3: 질문2의 A~M 및 N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다” 또는 “어느 정도 불안하다”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각의 위해요소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선택지 1~8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주시시오.				

조사분야	질문내용
	선택항목 1.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문 2. 행정에 따른 규제가 불충분 3. 사업자의 법령준수나 위생관리가 불충분 4. 행정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미흡 5. 사업자로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미흡 6.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안 7. 막연한 불안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질문4: 질문2의 A~M 및 N에 대해서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또는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각의 위해요소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선택지 1~8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주시요. 선택항목 1.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납득 2. 행정에 따른 규제가 충분 3. 사업자의 법령준수나 위생관리가 충분 4. 행정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충분 5. 사업자로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충분 6.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심 7. 막연한 안심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질문5: 질문 2의 “L.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 또는 “어느 정도 불안하다”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 묻겠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선택지 1~9 중에서 제일 강하게 맞는 순 3개를 선택해주시요. 선택항목 1.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2.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해 과학자의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3. 피폭량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4.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5. 새로운 규제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6. 식품의 검사규제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7. 정부의 정보공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8. 주위에서 걱정하기 때문에 9.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조사분야	질문내용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6: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의 제공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택지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순으로 5개 선택해주시시오.																				
	<table><tr><th colspan="2">선택항목</th></tr><tr><td>1. TV</td><td>10.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td></tr><tr><td>2.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td><td>11. 식품생산자</td></tr><tr><td>3. 일반 잡지·서적</td><td>12.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td></tr><tr><td>4. 전문서·학술서 등</td><td>13. 대학·연구기관·연구소</td></tr><tr><td>5.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td><td>14. 의료기관</td></tr><tr><td>6. 식품안전위원회</td><td>15. NPO·소비자단체</td></tr><tr><td>7. 소비자청</td><td>16. 가족·지인</td></tr><tr><td>8. 후생노동성</td><td>17. 지역·학교</td></tr><tr><td>9. 농림수산성</td><td>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tr></table>	선택항목		1. TV	10.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	2.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11. 식품생산자	3. 일반 잡지·서적	12.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	4. 전문서·학술서 등	13. 대학·연구기관·연구소	5.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14. 의료기관	6. 식품안전위원회	15. NPO·소비자단체	7. 소비자청	16. 가족·지인	8. 후생노동성	17. 지역·학교	9. 농림수산성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TV	10.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																			
	2.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11. 식품생산자																			
3. 일반 잡지·서적	12.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																				
4. 전문서·학술서 등	13. 대학·연구기관·연구소																				
5.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14. 의료기관																				
6. 식품안전위원회	15. NPO·소비자단체																				
7. 소비자청	16. 가족·지인																				
8. 후생노동성	17. 지역·학교																				
9. 농림수산성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질문7: 일본대지진에 따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후 식품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선택지 1~5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시시오.																					
<table><tr><th colspan="2">선택항목</th></tr><tr><td>1. 사고직후에도 현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td><td></td></tr><tr><td>2.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했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td><td></td></tr><tr><td>3.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td><td></td></tr><tr><td>4. 사고직후에도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다.</td><td></td></tr><tr><td>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td></td></tr></table>	선택항목		1. 사고직후에도 현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했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3.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4. 사고직후에도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다.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사고직후에도 현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했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3.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4. 사고직후에도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다.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질문8: 일본대지진 전후에 식음료품의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선택지 1~4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시시오.																					
<table><tr><th colspan="2">선택항목</th></tr><tr><td>1. 일본대지진 전후에 변화가 없다.</td><td></td></tr><tr><td>2. 일본대지진 직후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전과 같아졌다.</td><td></td></tr><tr><td>3. 일본대지진 이후에 변화하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td><td></td></tr><tr><td>4.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td></td></tr></table>	선택항목		1. 일본대지진 전후에 변화가 없다.		2. 일본대지진 직후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전과 같아졌다.		3. 일본대지진 이후에 변화하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4.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일본대지진 전후에 변화가 없다.																					
2. 일본대지진 직후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전과 같아졌다.																					
3. 일본대지진 이후에 변화하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4.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질문9: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밀도는 식품에 대한 사고방식은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해당 사항을 1~5 중에 하나 선택해주시시오.																					

조사분야	질문내용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안전모니터의 의식·행동에 대해	<table><tr><th colspan="2">선택항목</th></tr><tr><td colspan="2">1. 기준치를 밑돌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건강을 위해 먹거나 구매하지 않는다.</td></tr><tr><td colspan="2">2. 현재 유통되는 것은 검사 결과 건강에 무해하므로 먹거나 구매한다.</td></tr><tr><td colspan="2">3. 방사성 식품에 개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판단할 수 없다.</td></tr><tr><td colspan="2">4. 원래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없다.</td></tr><tr><td colspan="2">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tr></table>	선택항목		1. 기준치를 밑돌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건강을 위해 먹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2. 현재 유통되는 것은 검사 결과 건강에 무해하므로 먹거나 구매한다.		3. 방사성 식품에 개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판단할 수 없다.		4. 원래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없다.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기준치를 밑돌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건강을 위해 먹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2. 현재 유통되는 것은 검사 결과 건강에 무해하므로 먹거나 구매한다.												
3. 방사성 식품에 개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판단할 수 없다.													
4. 원래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없다.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질문10: A~M에 기재된 위해요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해요인에 대해 선택지 1~5 중 하나씩 선택해주시시오. 또한, “N. 기타”의 경우 질문2의 “N. 기타”에 기입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table><tr><th>내용</th><th>선택항목</th></tr><tr><td>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td>1.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다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잘 모르겠다</td></tr></table>	내용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1.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다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잘 모르겠다								
내용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1.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다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잘 모르겠다												
	질문11: 식품에 관한 정보 입수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보기 A~Q의 정보에 대해, 식품안전모니터가 된 이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까? 보기마다 선택지 1~7 중 하나를 선택해주시시오. 또한 A~Q 이외에 횟수가 증가한 정보원의 경우 R에 기재해주시시오.												
	<table><tr><th>정보 입수처</th><th>선택항목</th></tr><tr><td>A. TV B.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C. 일반 잡지·서적 D. 전문서·학술서 등 E.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F. 식품안전위원회 G. 소비자청</td><td>1. 증가했다 2. 증가한 편이다 3. 변화가 없다 4. 감소한 편이다 5. 감소했다 6. 이용한 적이 없다 7. 잘 모르겠다</td></tr></table>	정보 입수처	선택항목	A. TV B.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C. 일반 잡지·서적 D. 전문서·학술서 등 E.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F. 식품안전위원회 G. 소비자청	1. 증가했다 2. 증가한 편이다 3. 변화가 없다 4. 감소한 편이다 5. 감소했다 6. 이용한 적이 없다 7. 잘 모르겠다								
정보 입수처	선택항목												
A. TV B.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C. 일반 잡지·서적 D. 전문서·학술서 등 E.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F. 식품안전위원회 G. 소비자청	1. 증가했다 2. 증가한 편이다 3. 변화가 없다 4. 감소한 편이다 5. 감소했다 6. 이용한 적이 없다 7. 잘 모르겠다												

조사분야	질문내용	
	H. 후생노동성 I. 농림수산성 J.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 K. 식품생산자 L.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 M. 대학·연구기관·연구소 N. 의료기관 O. NPO·소비자단체 P. 가족·지인 Q. 지역·학교 R. 기타 증가한 것(구체적으로 기입)	
	질문12: 고기(장기 포함)를 생으로 먹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습니까? 선택지 1~4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요. 선택항목 1. 중증이 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2. 설사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위험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모르고 있다. 4. 어린이, 고령자에 대해서는 특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질문13: 고기(장기 포함)를 생으로 먹는 것에 대해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1~10에 대해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를 기재해주시요. 선택항목 1. 소의 생고기 2. 소의 생 장기(간 등) 3. 돼지의 생고기 4. 돼지의 생 장기(간 등) 5. 닭의 생고기 6. 닭의 생 장기(간 등) 7. 말의 생고기 8. 말의 생 장기(간 등) 9. 사슴, 멧돼지, 곰의 생고기 10. 사슴, 멧돼지, 곰의 장기	
	질문14: 지난 1년간 본인 및 주변에서 고기의 생식에 대한 상황과 변화 및 의식에 대해 다음 보기 1~13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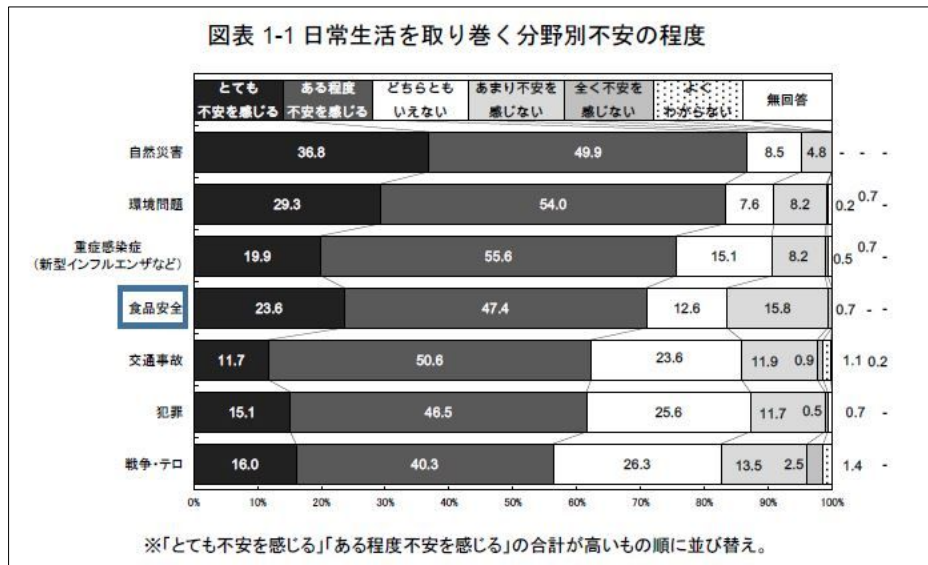
조사분야	질문내용														
	<table><tr><th>선택항목</th></tr><tr><td>1. 먹는 것을 삼가고 있거나 관두었다</td></tr><tr><td>2. 먹는 것을 삼갔지만, 현재는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td></tr><tr><td>3. 먹는 것을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td></tr><tr><td>4. 원래 고기 생식을 하지 않는다</td></tr><tr><td>5. 그 지역의 특산품이면 먹을 수 있다</td></tr><tr><td>6. 가게의 추천이면 먹을 수 있다</td></tr><tr><td>7. 음식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td></tr><tr><td>8. 음식점에서 잠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재개되었다</td></tr><tr><td>9.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수준은 변화가 없다</td></tr><tr><td>10.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td></tr><tr><td>11. 표면이 가열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td></tr><tr><td>12. 체력, 컨디션으로 판단하여 먹으면 좋다고 생각한다</td></tr><tr><td>13.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td></tr></table>	선택항목	1. 먹는 것을 삼가고 있거나 관두었다	2. 먹는 것을 삼갔지만, 현재는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	3. 먹는 것을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	4. 원래 고기 생식을 하지 않는다	5. 그 지역의 특산품이면 먹을 수 있다	6. 가게의 추천이면 먹을 수 있다	7. 음식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8. 음식점에서 잠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재개되었다	9.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수준은 변화가 없다	10.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1. 표면이 가열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2. 체력, 컨디션으로 판단하여 먹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13.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먹는 것을 삼가고 있거나 관두었다															
2. 먹는 것을 삼갔지만, 현재는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															
3. 먹는 것을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															
4. 원래 고기 생식을 하지 않는다															
5. 그 지역의 특산품이면 먹을 수 있다															
6. 가게의 추천이면 먹을 수 있다															
7. 음식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8. 음식점에서 잠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재개되었다															
9.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수준은 변화가 없다															
10.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1. 표면이 가열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2. 체력, 컨디션으로 판단하여 먹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13.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5. 조사 결과

가. 여러 위험요소별 상대적인 불안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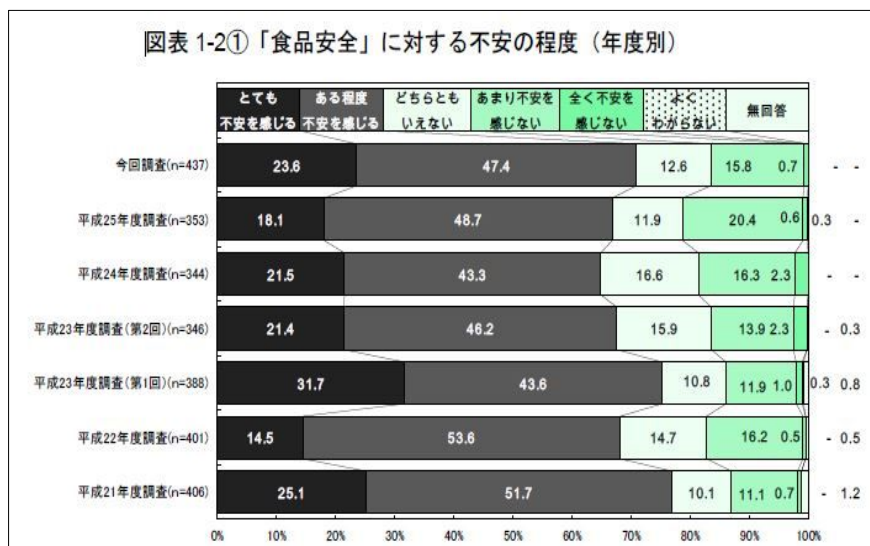
[그림 2-24]에는 일상생활을 둘러싼 여러 위험요소별 상대적인 불안정도가 나타나 있다. 상대적인 안전의 수준을 물어본 항목에서는 식품안전의 경우 「매우 불안」 과 「어느 정도 불안」 을 합친 비율이 71.0%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다른 분야의 경우 자연 재해 86.7%, 환경문제 83.3%, 중증감염 (신종 인플루엔자등) 75.5%, 교통사고 62.3%, 범죄 61.6%, 전쟁/테러 5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분야별 불안정도



식품안전의 불안정도에 대한 시계열적 비교 결과는 [그림 2-25]에 제시되어 있다. “매우 불안을 느낀다”를 선택한 비율은 2011년 일본대지진 발생시 31.7%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왔으나 2014년 조사시 전년보다 5.5%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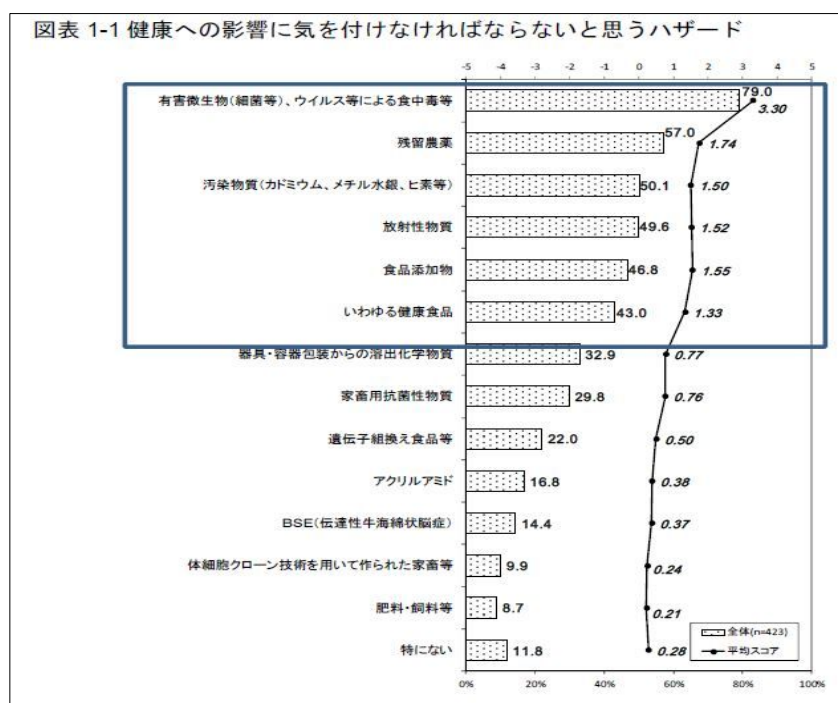
[그림 2-25]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정도 시계열 분석



나.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

[그림 2-26]에는 현대 일본의 식생활 등에서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를 순서대로 5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이 79.0%로 가장 많았고 “잔류농약”이 57.0%,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이 43.0%였다. 순위별로 뽑은 5개 위해요소의 경우 1위가 5점, 5위가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균 점수를 낸 결과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이 3.30점으로 역시 가장 높았고 “잔류농약”이 1.74점이었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답변 비율은 46.8%로 5위였으나 평균 점수는 1.55로 3위로 나타났다.

[그림 2-26] 일본 식품안전모니터가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



세부적으로는 모든 특성에서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이 1위였으며 특히 남성의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인 3.01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남성은 “잔류 농약”이 2위로 여성보다 높았고 여성은 “식품첨가물”과 “방사성물질”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잔류 농약”이 모든 연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방사성물질”의 경우 20대~5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20대 3위, 30대 2위, 40대 4위, 50대 4위)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6위에 머물렀다.

제6절 시사점

1. 정부 여러 부처에서는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만족도, 체감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인식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조사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과 활용 방안은 각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조사결과 산출시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두 조사결과를 합산하여 결과값을 산출하는 부처가 있는 반면에
-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 차이를 비교하는 비교값으로만 사용하는 조사도 있었다.

2. 점수 산출체계에 대한 차이점도 존재하였다. 국내 환경부의 경우는 각 조사영역, 조사항목별 가중치를 두어 최종 값을 산출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체감도를 포함하여 주요국의 점수 산출체계는 조사영역, 항목별 중요도가 같다고 보고 가중치를 주지 않고 최종값이 산출되고 있었다.

- 하지만 환경부처럼 자체 정책평가에 활용되는 인식도 조사의 경우 평가 영역별 가중치를 예산 액수 등을 고려하는 주는 것도 바람직해 보였다.
- 더불어 살펴보면 두 조사대상(전문가, 일반국민)이 각각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값을 산출하기 위해 % 개념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점수를 산출하기도 하고, 조사대상 인원수와 상관없이 단순히 1:1로 산술평균을 하기도 하였다.

3. 또한 결과 활용면에서도 해당년도의 대표적인 조사결과를 두 조사대상을 합산한 결과로 활용하는 조사도 있었으나, 단순히 비교를 위해 산출한 뒤 각각의 조사결과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조사도 있었다.
4. 결론적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조사를 병행할시 결과 값을 산출하기 위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성격, 목적에 따라 조사결과를 산출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시계열 분석을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5. 미국, 일본, 영국 등 매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조사체계,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국제적인 시계열 분석 결과를 도출해 얻어지는 시사점을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참고하면 식품안전체감도 생산의 또 다른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설계

제1절 조사설계

제2절 조사계획

제3절 사전조사

3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 조사설계 <

제1절 조사설계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는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3년 새정부 출범이후 하반기에 처음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매년 2회씩 조사를 실시하여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하게 되었다. 조사내용 매년 동일하게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해마다 현안에 대해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부가조사로 구성된다.

2013년에 선정한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주체는 국무조정실이고, 조사주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7월과 12월에 각각 보고 및 발표하게 되었고, 조사 및 통계분석 등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3-1>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체감도 등 조사	
조사내용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조사구분	표본조사	
조사종류	패널조사	
조사규모	패널 1,200명 및 전문가 220명 이내	탈락률 등 고려
표본추출	층화비례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	
조사주기	1년 2회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인터넷 조사	
자료수집	설문조사법	
조사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한국갤럽	
조사주체	국무조정실	
결과발표	7월, 12월	

1. 조사절차

이 연구의 전체 절차는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표본설계를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설문지 개발 및 수정, 사전조사, 상·하반기 조사 실시 및 2016년 식품안전 체감도를 산출한다.

[그림 3-1]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절차



1) 조사자료 에디팅(editing)

조사가 완료된 평가표를 오류 점검 및 수정하여 코딩할 수 있는 자료화한다.

2) 조사자료 코딩(coding)

에디팅이 된 조사자료를 통계분석하기 위해 부호화 한다.

3) 조사자료 크리닝(cleaning)

조사자료의 코딩 후 입력된 자료의 오류 점검 및 수정으로 통계분석 전 마지막 조사 자료 질관리를 한다.

4) 조사자료 프로세싱(processing)

조사자료를 에디팅, 크리닝한 후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2. 표본설계

가. 기본원칙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하에 설계되었다. Final Sampling Unit은 개인으로 하며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단위는 성, 연령, 지역이었다.

〈표 3-2〉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나. 모집단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집단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성인 남녀인 36,690,307명으로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치이다.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은 16개 사·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였다.

40대 인구수가 남, 녀 모두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60대 이상의 인구수가 가장 적었다.

<표 3-3>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36,690,307	3,587,760	3,231,240	4,100,937	3,909,584	4,340,214	4,191,892	3,708,107	3,708,864	2,754,588	3,157,121
서울	7,715,005	787,703	808,662	885,118	866,717	823,430	834,599	731,849	794,267	564,237	618,423
부산	2,622,981	251,639	228,559	251,575	247,484	271,727	285,138	287,403	310,114	229,658	259,684
대구	1,823,926	180,792	155,466	184,114	188,664	215,182	222,105	188,454	194,497	134,716	159,936
인천	2,060,782	204,206	186,035	242,851	225,116	257,297	251,437	214,642	206,892	129,264	143,042
광주	1,079,629	113,823	110,321	122,924	122,886	127,866	127,302	98,786	100,730	72,464	82,527
대전	1,121,627	129,013	115,495	124,267	124,100	130,576	130,018	109,381	108,554	71,306	78,917
울산	811,368	76,460	58,177	97,344	88,980	110,014	105,452	91,268	84,077	49,338	50,258
경기	8,664,116	829,101	758,288	1,065,844	1,020,512	1,134,173	1,074,551	845,958	803,657	529,771	602,261
강원	1,085,284	110,223	80,232	101,726	96,299	124,289	115,241	122,206	118,862	99,446	116,760
충북	1,109,778	113,225	93,826	116,991	108,132	130,469	121,325	117,662	112,376	90,541	105,231
충남	1,511,901	157,553	133,018	172,855	146,115	176,241	151,338	150,145	140,444	131,767	152,425
전북	1,261,737	118,080	99,069	120,787	117,092	141,909	134,866	129,761	130,949	121,807	147,417
전남	1,213,303	91,250	70,722	111,953	102,863	142,583	126,245	131,885	128,415	138,180	169,207
경북	1,903,052	182,543	143,694	190,608	173,974	213,345	197,468	202,746	200,700	180,153	217,821
경남	2,321,269	209,027	160,463	269,980	240,615	291,039	268,493	247,472	237,076	180,054	217,050
제주	384,549	33,122	29,213	42,000	40,035	50,074	46,314	38,489	37,254	31,886	36,162

다. 표본 추출

<표 3-4>에는 연령별, 지역별로 구성된 식품패널이 분포되어있다.

분석시 대상자 수가 적어 4대 권역으로 묶어 분석하여 16개 시도별로 추출된 표본 오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표 3-4〉 식품패널 분포

	남자						여자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합계	100	105	109	102	88	504	91	101	107	102	95	496	1,000
서울	13	14	13	12	11	63	13	13	13	13	11	63	126
부산	7	7	8	8	7	37	7	7	8	8	7	37	74
대구	6	6	7	6	5	30	6	6	7	6	6	31	61
인천	6	7	7	7	5	32	6	7	7	7	5	32	64
광주	5	5	5	5	4	24	5	5	5	5	4	24	48
대전	5	5	5	5	4	24	5	5	5	5	4	24	48
울산	4	4	5	4	3	20	3	4	5	4	3	19	39
경기	13	15	15	13	10	66	12	14	15	13	11	65	131
강원	5	5	5	5	5	25	4	4	5	5	5	23	48
충북	5	5	5	5	4	24	4	5	5	5	5	24	48
충남	6	6	6	6	5	29	5	5	6	5	6	27	56
전북	5	5	5	5	5	25	4	5	5	5	5	24	49
전남	4	5	5	5	5	24	4	5	5	5	6	25	49
경북	6	6	7	6	6	31	5	6	6	6	7	30	61
경남	7	7	8	7	6	35	6	7	7	7	7	34	69
제주	3	3	3	3	3	15	2	3	3	3	3	14	29

<표 3-5>에는 표본설계의 항목별 세부내역이 정리되어있다.

<표 3-5> 표본설계 세부내역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전국의 20세이상 국민(통계청 추계인구)을 대상으로 층화계통추출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목표오차 : 95% ± 3% - 표본규모 : 성인 1,000명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2012년 통계청 인구추계치를 모집단으로 하여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하여 등확률로 표본선정 - 층내에서 계통추출 -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 - 세종시는 모집단 미파악으로 제외
표본배정방식	- 지역, 성별, 연령별 모집단 크기에 근거하여 1/38,418의 확률로 각 셀별로 표본 할당
추정식 (평균, 총합, 비율, 분산)	$\hat{p}_{st} = \sum_{r=1}^{16} \sum_{s=1}^2 \sum_{a=1}^5 w_{rsa} \hat{p}_{rsa}$ r : 16개 지역, s : 1,2(남,여), a : 20대, ...,60대이상 w_{rsa}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의 가중치 $\hat{Var}(\hat{p}_{st}) = \sum_r \sum_s \sum_a w_{rsa}^2 \hat{Var}(\hat{p}_{rsa})$ 여기에서 $\hat{Var}(\hat{p}_{rsa}) = \frac{N_{rsa} - n_{rsa}}{N_{rsa}} \frac{\hat{p}_{rsa}(1 - \hat{p}_{rsa})}{n_{rsa} - 1}$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는 전년 대비, 올해, 내년의 3종으로 구성 - 식품안전체감도는 5개 세부영역으로 구분 (수입식품, 외식, 단체급식, 학교주변 식품, 제조·유통식품)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조사의 총 Sample 수는 1,000표본이고, Final Sampling Unit 1단위 (명)에 대한 Sampling Fraction(표본추출확률)은 $\frac{1}{38,418}$ (단위:명)

이 적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 전체 List(Sampling Frame)를 확보하여 일정한 확률을 유지하기 위해 Random하게 복원 추출(With replacement)하는 단순무작위추출(SRS : Simple Random Sampling)을 할 경우 모집단의 수가 전 국민이 되고,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 할 때 불가능함에 따라 이 연구의 최종적인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연령·지역이라 가정하고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추출은 조사원에게 주어진 표본할당의 70%를 Birthday Method 방식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30%는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대/과소 표집 계층을 해소하기 위한 유의할당 추출을 하였다.

표본의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설계되어있으며, 표본의 거주지에 제주도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1,000명의 패널을 지역, 성, 연령별 각 셀별로 분포시키다 보니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 연령대별 일부 계층군은 표본 수가 적어 발생 오차율이 10%p 이상 발생하는 계층이 있어 향후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 발표시 지역은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등 4대 권역으로 묶어 자료분석 및 결과를 발표하였다.

<표 3-6>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대상계층별 오차발생 현황

지역	목표 허용오차	연령	목표 허용오차
경기(최소)	±8.5%p	40대(최소)	±6.7%p
제주(최대)	±18.5%p	60대~(최대)	±7.2%p

제2절 조사계획

1. 조사계획 개요

<표 3-7>에는 사전조사, 상·하반기조사 등 이 연구의 조사계획 개요가 정리되어있다.

사전조사는 200명, 본조사는 패널 1,000명과 전문가 200명을 조사 완료할 목표이며, 조사방법은 패널조사의 경우 최근 통계청이 조사비 절약 등을 이유로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터넷 조사와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 등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방법을 다양하게 채택하여 실시기로 하였다.

사전조사는 설문지 수정으로 인해 2016년 하반기 조사와 함께 실시하여 조사 초기의 20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일반인인 식품패널 조사와 함께 실시되고 있는 전문가 조사가 2016년에도 실시되었다. 그리고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크게 두가지 형태로 진행하는 조사형태는 동일하였으나 일부 문항간의 수정이 있었다.

〈표 3-7〉 조사실시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식품패널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11월 28일 ~ 12월 1일
상반기 조사	식품패널	1,170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6월 7일 ~ 6월 17일
	전문가	211명	전수	상동	상동
하반기 조사	식품패널	1,158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11월 28일 ~ 12월 11일
	전문가	205명	전수	상동	상동

2. 설문지 수정·보완

가. 상반기 설문지

<표 3-8>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가 제시되어 있으며, 응답항목 등 세부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있다.

〈표 3-8〉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구성

평가 분야	평가 영역	평가 항목
기본조사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1. 작년 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변화
		1-1.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진 이유
		1-2.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진 이유
	수입식품의 안전	2. 수입식품의 안전정도
		2-1.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유통식품의 안전	3.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3-1. 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외식의 안전	4. 외식의 안전정도
		4-1.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체급식의 안전	5-0. 단체급식 경험 여부
		5. 단체급식의 안전정도
		5-1.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부가조사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6.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정도
		6-1. 학교 주변 판매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7. 2016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8. 내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9.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식품안전 관련 정보 이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식품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
		11. 식품안전 영향 요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12.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12-1. 잘 추진되고 있는 이유
	불량식품 근절	13. 불량식품 근절 정책 인지정도
		14.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나. 하반기 설문지

하반기 조사는 상반기 설문지의 일부 문항의 번호체계를 수정하였다. 즉, 부가조사에 포함되었던 설문항목을 기본조사에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표 3-9>에는 하반기 설문지 수정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3-9>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항목 수정 내용

변경 내용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수정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다음 정책 중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복선택) ①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농약, 중금속 등) 강화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활성화 ③ 부적합한 식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제품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④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⑤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에게 정보(음식점, 부적합 등) 공개 ⑥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⑦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⑧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⑨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⑩ 나트륨 줄이기 운동 ⑪ 기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②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③ 식품관련 이슈 감소 ④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⑤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⑥ 기타

<표 3-10>에는 2016년 상·하반기 설문지간 변화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표 3-10〉 2016년 상하반기 설문지 비교(부가조사)

평가 영역	상반기	하반기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평가	12. 위 정책 중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복선택)	기본조사로 이동
	12-1.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조사로 이동
불량식품 근절	13. 불량식품 근절 정책 인지정도	11. 불량식품 근절 정책 인지정도
	14.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12.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제3절 사전조사

2015년에는 부가조사 항목이 일부 변경되어 상반기 조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였으며, 2016년의 경우 하반기 조사시 일부 설문지 수정에 의해 조사초기 200명의 조사결과를 사전조사결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표 3-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6년 Cronbach's alpha 계수 값은 0.91로 나타났다. 2015년 0.82보다 0.1 가량 상승하였다.

〈표 3-11〉 하반기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값

항목	Cronbach's α 계수 값	변수 제외 시 Cronbach's α 값			
		Raw variable		Standardized variable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0.91	0.79	0.89	0.78	0.89
수입식품 안전		0.70	0.90	0.71	0.90
유통식품 안전		0.76	0.89	0.76	0.89
외식 안전		0.73	0.89	0.73	0.89
단체급식 안전		0.77	0.89	0.74	0.89
학교주변 판매 식품 안전		0.73	0.89	0.73	0.89

제 4 장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제1절 조사 계획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4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 상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

제1절 조사 계획

1. 조사개요

<표 4-1>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실시 개요가 제시되어있다.

〈표 4-1〉 상반기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6년 6월 7일 ~ 6월 17일
조사대상	- 패널: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식품패널 967명 - 전문가: 211명
조사내용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로 총 14개 조사항목
조사방법	- 패널: 인터넷 조사 738명, 전화조사 226명 - 전문가: 인터넷 조사 165명, 전화조사 9명
탈락사유	인터넷 조사에 무응답, 전화조사 거부, 전화연결 안됨
조사 성공자	- 패널: 총 952명 - 전문가: 총 174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식품패널의 명단을 제공 받아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가 2016년 6월 7일부터 2016년 6월 17일까지 11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

상반기 조사는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참여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 전화조사가 사용되었다.

<표 4-2> 조사 선호 방법

구분	식품패널		전문가	
	대상자수	비율	대상자수	비율
합계	964	100.0	174	100.0
인터넷조사	738	76.6	165	94.8
전화조사	226	23.4	9 ¹⁾	5.2

주: 인터넷조사로 대체

전화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수행하였다. 인터넷 조사의 경우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설문지를 송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주일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67명의 조사대상자 중 패널 선정 기준인 연령, 성, 권역별 조사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조사단위의 조사를 마감하여 과조사되지 않게 하였다. 전화조사와 인터넷 조사가 동시에 병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사단위를 넘은 경우 조사완료시간을 고려하여 먼저 응답이 완료된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조사단위의 경우 추가 반복 접촉을 시도하여 조사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경우도 조사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반복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패널 964명, 전문가 174명이었으며 조사목표에 따라 분석에 활용될 인원은 패널 952명과 전문가 174명이었다.

3. 조사실시 현황

가. 조사 목표

<표 4-3>에는 본조사 목표인 식품패널 1,000명에 대한 성, 지역, 권역별 구성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총 1,000명이 대상이며 성별, 4개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5개 연령군(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층화되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중부권은 강원, 대전, 충남, 충북을, 호남권은 광주, 제주, 전남, 전북을 포함하고 있다.

<표 4-3> 조사목표 식품패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000	504	100	105	109	102	88	496	91	101	107	102	95
수도권	321	161	32	36	35	32	26	160	31	34	35	33	27
영남권	304	153	30	30	35	31	27	151	27	30	33	31	30
중부권	200	102	21	21	21	21	18	98	18	19	21	20	20
호남권	175	88	17	18	18	18	17	87	15	18	18	18	18

구축된 식품패널 1000명 중 20대 전체와 일부 지역 30대에서 패널 인원수가 조사 목표치에 부족하여 최종 조사대상 패널은 967명으로 확정되었다. 성별, 권역별, 연령군별로 층화된 최종 조사대상 패널은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4> 최종 조사목표 식품패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967	489	88	102	109	102	88	478	76	98	107	102	95
수도권	314	160	31	36	35	32	26	154	25	34	35	33	27
영남권	295	150	28	29	35	31	27	145	21	30	33	31	30
중부권	190	94	15	19	21	21	18	96	16	19	21	20	20
호남권	168	85	14	18	18	18	17	83	14	15	18	18	18

나. 조사 성공

<표 4-5>에는 조사에 성공한 952명에 대한 각 지역, 성, 연령별 성공률이 제시되어 있다. 총 40개 조사단위중 32개 조사단위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조사 성공률이 가장 낮은 조사단위는 호남권의 30대 여성군(80.0%)이었으며 영남권의 20대 남성군도 90%에 약간 미치지 못한 조사성공률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중부권, 성별로는 남성, 연령군별로는 60대 이상의 조사 성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5〉 상반기조사 조사성공률 현황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98.4	98.8	94.3	100.0	100.0	99.0	100.0	98.1	93.4	95.9	100.0	100.0	100.0
수도권	98.7	98.8	93.5	100.0	100.0	100.0	100.0	98.7	92.0	100.0	100.0	100.0	100.0
영남권	98.3	98.0	89.3	100.0	100.0	100.0	100.0	98.6	90.5	100.0	100.0	100.0	100.0
중부권	9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9	93.8	94.7	100.0	100.0	100.0
호남권	97.6	98.8	100.0	100.0	100.0	94.4	100.0	96.4	100.0	80.0	100.0	100.0	100.0

제2절 조사 결과

1. 기본 분석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6>에는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2013년 구축된 식품패널의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국민 평균수준 보다 높은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표 4-6〉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식품패널		전문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합계		952	100.0	174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1	5.4	0	—
	100만원대	126	13.2	1	0.6
	200만원대	160	16.8	13	7.5
	300만원대	184	19.3	11	6.3
	400만원대	169	17.8	35	20.1
	500만원 이상	260	27.3	113	64.9
	모름/무응답	2	0.2	1	0.6
교육수준	중졸 이하	62	6.5	0	—
	고졸	325	34.1	0	—
	대졸 이상	565	59.3	174	100.0
직업분류	공무원	21	2.2	17	9.8
	자영업	86	9.0	1	0.6
	판매 서비스직	62	6.5	4	2.3
	기능직	38	4.0	0	—
	사무기술직	235	24.7	38	21.8
	사무관리직	118	12.4	45	25.9
	전문자유직	31	3.3	69	39.7
	주부	201	21.1	0	—
	학생	85	8.9	0	—
	무직	75	7.9	0	—

나. 기본 조사

1) 전체 식품안전체감도

<표 4-7>에는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52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는 75.9%로,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74.3%보다 1.6%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87.9%로 2016년 상반기 89.5%에 비하여 1.6% 낮게 조사되었고, 패널에 비하여 12%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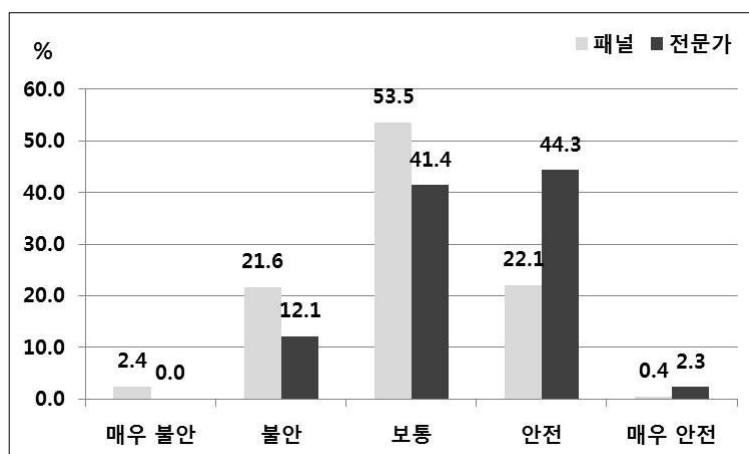
<표 4-7>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75.9	952	2.4	21.6	53.5	22.1	0.4
전문가	87.9	174	0.0	12.1	41.4	44.3	2.3

[그림 4-1]에는 이 결과가 막대 그래프로 비교되어있다.

[그림 4-1]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2)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가) 안전체감도

<표 4-8>에는 2016년 상반기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88.6%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5년 상반기의 85.8%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하반기보다 0.9%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었다. 전문가의 96.6%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여 2015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응답을 나타냈다.

〈표 4-8〉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짐	크게 나아짐
패널	88.6	952	1.5	10.0	47.8	39.5	1.3
전문가	96.6	174	0.6	2.9	39.1	55.7	1.7

나) 나아진 이유

<표 4-9>에는 2016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22.4%와 전문가의 29.0%가 동일하게 ‘4대 사회악에 대한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을 식품안전관리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고, 또한 전문가는 동일한 비율(29.0%)의 응답자가 ‘식품업자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4-9〉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88	100.0	10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88	22.7	17	17.0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87	22.4	29	29.0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73	18.8	5	5.0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67	17.3	29	29.0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67	17.3	17	17.0
기타	6	1.6	3	3.0

다) 나빠진 이유

<표 4-10>에는 2016년 상반기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10〉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109	100.0	6	100.0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29	26.6	3	50.0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29	26.6	3	50.0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28	25.7	0	0.0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13	11.9	0	0.0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10	9.2	0	0.0

패널(26.6%)과 전문가(50.0%)가 동일하게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와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두가지를 식품안전관리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라고 선택하였다.

3)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4-11>에는 2017년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예측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93.1%가 동일할 것 또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5년 상반기 92.3% 수준보다 증가하였지만 하반기보다 2.1% 포인트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나아짐 이상을 선택한 비율도 2015년 상반기 47.7%, 하반기 52.0%보다 낮은 45.8%였다.

전문가의 식품안전체감도는 97.7%로 패널과 달리 2016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표 4-11〉 내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크게 떨어질 것	떨어질 것	동일할 것	나아질 것	크게 나아질 것
패널	93.1	952	1.1	5.9	47.3	43.5	2.3
전문가	97.7	174	0.0	2.3	35.1	62.1	0.6

4)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표 4-12>에는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식품안전 현안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로 46.8%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3.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41.4%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응답하였다.

〈표 4-12〉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52	100.0	174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46	46.8	72	41.4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314	33.0	35	20.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84	8.8	33	19.0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67	7.0	18	10.3
정부 정책 홍보 강화	37	3.9	11	6.3
기타	4	0.4	5	2.9

5)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표 4-13>에는 수입식품 안전, 제조·유통식품 안전, 외식 안전, 단체급식의 안전, 학교 주변 판매식품 안전 등 5개 분야별 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대상 조사에서 5개 분야를 총괄한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가 75.9%인데 이 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분야는 없었다. 그 중 가장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분야는 70.3%의 응답률을 보인 단체급식의 안전이었다. 반면에 수입식품 안전 체감도는 51.6%, 학교 주변 판매식품 안전체감도는 49.8%로 작년과 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 식품안전체감도는 87.9%로 나타났다. 단체급식 안전은 88.9%,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은 88.5%의 안전체감도를 보여 가장 안전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체감도를 60.5%로 응답하여 패널과 같이 전체 세부영역 중 가장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에 대해 대국민 홍보 등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4-13〉 세부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단위 :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수입식품 안전	51.6	952	6.2	42.2	39.0	12.1	0.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65.7	952	2.0	32.4	47.6	17.6	0.4
	외식 안전	68.1	952	2.3	29.6	52.7	14.9	0.4
	단체급식의 안전	70.3	505	4.0	25.7	38.4	28.7	3.2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49.8	952	5.9	44.3	39.9	9.5	0.4
	전반적인 식품안전	75.9	952	2.4	21.6	53.5	22.1	0.4
전문가	수입식품 안전	62.1	174	0.6	37.4	41.4	20.1	0.6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88.5	174	0.6	10.9	50.0	34.5	4.0
	외식 안전	77.0	174	1.7	21.3	51.7	24.7	0.6
	단체급식의 안전	88.9	117	0.0	11.1	36.8	48.7	3.4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58.6	174	3.4	37.9	42.5	15.5	0.6
	전반적인 식품안전	87.9	174	0.0	12.1	41.4	44.3	2.3

[그림 4-2]에는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패널과 전문가의 체감도를 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가는 패널보다 모든 세부영역에서 식품안전체감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패널과 전문가 모두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인 분야는 단체급식 안전이었고,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이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패널과 전문가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으로 22.8%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은 8.8%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게 조사되었다. 전문가 응답에서 패널과 비교하였을 때 외식 안전과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순위가 뒤바뀐 결과를 보였다.

[그림 4-2]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비교



다. 부가 조사

2016년 상반기에 실시된 부가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보 구득원

<표 4-14>에는 평소에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에 대해 중복응답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경우 방송매체가 주요 구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9.0%의 인터넷 지식정보로 나타났다. SNS는 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활용하는 매체는 정부(발표)로 전체의 29.3%가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24.7%가 인터넷 지식정보를 선택하였다. SNS를 활용함은 3.5%로 패널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14〉 정보 구독 매체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합계	1,787	100.0	287	100.0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694	38.8	69	24.0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518	29.0	71	24.7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247	13.8	51	17.8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202	11.3	84	29.3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121	6.8	10	3.5
기타	5	0.3	2	0.7

2) 영향요인

<표 4-15>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15〉 식품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52	100.0	174	100.0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540	56.7	91	52.3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78	18.7	15	8.6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133	14.0	62	35.6
주변 사람의 의견	67	7.0	4	2.3
정부의 보도 자료	34	3.6	2	1.1
기타	0	0.0	0	0.0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언론 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패널은 56.7%로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본인 및 가족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7%, 14.0%로 나타났다.

전문가도 52.3%가 언론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5.6%가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을 선택하였다. '본인 및 가족의 경험'을 선택한 전문가의 비율은 8.6%로 일반인으로 구성된 패널과 10% 가량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방송의 영향력은 모두에게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품안전정책의 추진 체감도

<표 4-16>에는 2016년 10종의 현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추진 체감도를 중복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16〉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합계	2,594	100.0	431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464	17.9	91	21.1
나트륨 줄이기 운동	352	13.6	49	11.4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335	12.9	53	12.3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273	10.5	45	10.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257	9.9	39	9.0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223	8.6	53	12.3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94	7.5	21	4.9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184	7.1	23	5.3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179	6.9	33	7.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112	4.3	22	5.1
기타	21	0.8	2	0.5

패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 ‘나트륨 줄이기 운동’, ‘영양 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학교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순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17.9%, 13.6%, 12.9%, 10.5%가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전문가는 21.1%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를 선택하였고, 그 외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나트륨 줄이기 운동’ 순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21.1%, 12.3%, 12.3%, 11.4%가 응답하였다. 패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전문가는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가장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4-17>에는 <표 4-16>에서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17>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52	100.0	174	100.0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337	35.4	83	47.7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299	31.4	32	18.4
식품관련 사건·사고 감소	161	16.9	32	18.4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인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95	10.0	13	7.5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32	3.4	6	3.4
기타	28	2.9	8	4.6

패널의 35.4%가 ‘정책추진 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을, 31.4%가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되기 때문’을 선택하였다.

전문가는 47.7%가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고, 18.4%가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되기 때문’과 ‘식품관련 사건·사고가 감소 했음’을 선택하였다.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를 선택한 비율은 패널과 전문가에서 모두 3.4%로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여전히 업체의 법 위반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불량식품 근절 노력

<표 4-18>에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패널의 80.0%와 전문가의 93.7%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안전체감도가 패널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8〉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보통이상	응답자 수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80.0	952	2.6	17.3	44.3	32.1	3.6
전문가	93.7	174	0.0	6.3	25.3	51.1	17.2

6) 불량식품 유통 이유

<표 4-19>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패널의 45.6%와 전문가의 26.4%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의 35.1%와 패널의 19.5%가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을 이유로 지적하였다. 전문가는 패널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처벌수위보다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과 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었다.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강화, 식품안전규제의 강화, 부당이익 환수제의 확대 등의 정부정책을 더 확실히 시행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준 결과이다.

〈표 4-19〉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52	100.0	174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34	45.6	46	26.4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86	19.5	61	35.1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58	16.6	53	30.5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107	11.2	8	4.6
정부의 단속 소홀	65	6.8	4	2.3
기타	2	0.2	2	1.1

2. 세부 분석

가. 기본 조사

1) 식품안전체감도

<표 4-20>에는 2016년 상반기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를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0대 이상, 중졸 이하, 중부권, 소득 500만원

이상, 사무관리직 및 무직일 때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군별, 직업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0〉 패널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75.9	—	2.4	21.6	53.5	22.1	0.4
성별	남	78.5	<.0001	2.9	18.6	49.3	28.6	0.6
	여	73.3		1.9	24.7	57.8	15.4	0.2
연령군별	20대	72.1	0.005	1.9	26.0	52.6	19.5	0.0
	30대	68.4		4.6	27.0	55.1	13.3	0.0
	40대	75.9		2.3	21.8	48.1	26.4	1.4
	50대	80.8		2.0	17.2	58.1	22.7	0.0
	60대 이상	82.0		1.1	16.9	53.6	27.9	0.5
권역별	수도권	74.2	0.925	2.9	22.9	52.9	20.6	0.6
	영남권	75.9		1.7	22.4	54.1	21.4	0.3
	충부권	77.7		1.6	20.7	52.1	25.0	0.5
	호남권	77.4		3.7	18.9	54.9	22.6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2.5	0.241	3.9	23.5	56.9	15.7	0.0
	100만원대	77.8		4.0	18.3	58.7	18.3	0.8
	200만원대	73.1		3.8	23.1	50.6	22.5	0.0
	300만원대	71.7		2.2	26.1	54.3	17.4	0.0
	400만원대	75.1		1.8	23.1	54.4	19.5	1.2
	500만원 이상	80.8		1.2	18.1	50.4	30.0	0.4
학력별	중졸 이하	80.6	0.926	1.6	17.7	58.1	22.6	0.0
	고졸	74.8		2.5	22.8	54.5	19.7	0.6
	대졸 이상	76.1		2.5	21.4	52.4	23.4	0.4
직업별	공무원	76.2	0.007	0.0	23.8	42.9	28.6	4.8
	자영업	76.7		3.5	19.8	51.2	24.4	1.2
	판매 서비스직	62.9		9.7	27.4	50.0	12.9	0.0
	기능직	71.1		2.6	26.3	50.0	21.1	0.0
	사무기술직	74.5		1.3	24.3	51.9	22.1	0.4
	사무관리직	83.1		1.7	15.3	51.7	30.5	0.8
	전문자유직	71.0		0.0	29.0	48.4	22.6	0.0
	주부	79.6		0.5	19.9	62.7	16.9	0.0
	학생	69.4		3.5	27.1	44.7	24.7	0.0
	무직	81.3		5.3	13.3	58.7	22.7	0.0

<표 4-21>에는 2016년 상반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하여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소득수준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과, 소득 100만원대 및 300만원대일 경우 체감 정도가 높았다.

<표 4-21> 전문가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87.9	—	—	12.1	41.4	44.3	2.3
성별	남	93.1	<.0001	—	6.9	31.4	57.8	3.9
	여	80.6		—	19.4	55.6	25.0	0.0
연령군별	20대	100.0	0.056	—	0.0	75.0	25.0	0.0
	30대	78.0		—	22.0	51.2	26.8	0.0
	40대	84.9		—	15.1	35.8	43.4	5.7
	50대	94.5		—	5.5	40.0	54.5	0.0
	60대 이상	95.2		—	4.8	33.3	57.1	4.8
권역별	수도권	89.2	0.875	—	10.8	45.0	41.7	2.5
	영남권	86.7		—	13.3	40.0	46.7	0.0
	중부권	85.0		—	15.0	25.0	55.0	5.0
	호남권	84.2		—	15.8	36.8	47.4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0.013	—	—	—	—	—
	100만원대	100.0		—	0.0	100.0	0.0	0.0
	200만원대	61.5		—	38.5	30.8	30.8	0.0
	300만원대	100.0		—	0.0	72.7	27.3	0.0
	400만원대	82.9		—	17.1	25.7	57.1	0.0
	500만원 이상	92.0		—	8.0	44.2	44.2	3.5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
	고졸	—		—	—	—	—	—
직업별	대졸 이상	87.9	0.191	—	12.1	41.4	44.3	2.3
	공무원	82.4		—	17.6	47.1	35.3	0.0
	자영업	100.0		—	0.0	100.0	0.0	0.0
	판매 서비스직	75.0		—	25.0	50.0	25.0	0.0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86.8		—	13.2	47.4	39.5	0.0
	사무관리직	91.1		—	8.9	26.7	55.6	8.9
	전문자유직	88.4		—	11.6	44.9	43.5	0.0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2)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표 4-22>에는 작년 대비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50대 이상일 때와 소득 100만원 및 400만원대의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가 높았다.

〈표 4-22〉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2016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짐	크게 나아짐
합계		88.6	—	1.5	10.0	47.8	39.5	1.3
성별	남	88.0	0.432	2.1	9.9	45.8	41.0	1.2
	여	89.1		0.9	10.0	49.9	38.0	1.3
연령군별	20대	87.0	<.0001	1.9	11.0	59.7	27.3	0.0
	30대	81.1		4.6	14.3	55.1	26.0	0.0
	40대	88.9		0.5	10.6	49.1	38.0	1.9
	50대	92.1		0.0	7.9	44.3	47.8	0.0
	60대 이상	93.4		0.5	6.0	32.2	56.8	4.4
권역별	수도권	86.8	0.494	2.6	10.6	47.7	38.1	1.0
	영남권	89.3		0.0	10.7	50.3	37.2	1.7
	충부권	88.3		1.6	10.1	45.2	42.0	1.1
	호남권	90.9		1.8	7.3	46.3	43.3	1.2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4.5	0.043	5.9	19.6	41.2	33.3	0.0
	100만원대	92.1		1.6	6.3	52.4	36.5	3.2
	200만원대	88.8		1.3	10.0	48.1	39.4	1.3
	300만원대	88.0		1.6	10.3	56.5	30.4	1.1
	400만원대	92.3		0.6	7.1	48.5	43.2	0.6
	500만원 이상	87.3		1.2	11.5	40.0	46.2	1.2
학력별	중졸 이하	93.5	0.096	0.0	6.5	41.9	50.0	1.6
	고졸	89.5		0.9	9.5	52.6	34.8	2.2
	대졸 이상	87.4		1.9	10.6	45.7	41.1	0.7
직업별	공무원	85.7	0.109	0.0	14.3	23.8	61.9	0.0
	자영업	93.0		1.2	5.8	50.0	40.7	2.3
	판매 서비스직	79.0		1.6	19.4	48.4	29.0	1.6
	기능직	81.6		5.3	13.2	36.8	44.7	0.0
	사무기술직	87.7		1.3	11.1	49.4	37.4	0.9
	사무관리직	92.4		0.8	6.8	44.9	44.9	2.5
	전문자유직	80.6		0.0	19.4	41.9	35.5	3.2
	주부	91.5		1.0	7.5	47.8	42.8	1.0
	학생	87.1		3.5	9.4	62.4	24.7	0.0
	무직	89.3		1.3	9.3	42.7	45.3	1.3

3)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4-23>에는 올해 대비 2017년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체감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 60 이상의 체감도를 보였고, 공무원의 체감도가 100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 이하인 경우 체감도가 가장 낮았다.

〈표 4-23〉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크게 떨어질 것	떨어질 것	동일할 것	나아질 것	크게 나아질 것
합계		93.1	—	1.1	5.9	47.3	43.5	2.3
성별	남	92.5	0.176	1.0	6.4	44.7	44.5	3.3
	여	93.6		1.1	5.3	49.9	42.4	1.3
연령군별	20대	87.7	<.0001	0.6	11.7	60.4	25.3	1.9
	30대	89.3		3.1	7.7	54.1	34.7	0.5
	40대	93.1		0.5	6.5	51.4	38.4	3.2
	50대	95.6		0.5	3.9	41.4	53.7	0.5
	60대 이상	98.9		0.5	0.5	30.6	62.8	5.5
권역별	수도권	91.3	0.199	1.9	6.8	47.4	42.6	1.3
	영남권	94.5		0.0	5.5	52.1	40.3	2.1
	충부권	92.0		1.1	6.9	44.1	44.7	3.2
	호남권	95.1		1.2	3.7	42.1	49.4	3.7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88.2	0.459	3.9	7.8	43.1	43.1	2.0
	100만원대	93.7		0.8	5.6	50.8	40.5	2.4
	200만원대	93.1		0.0	6.9	48.8	40.0	4.4
	300만원대	91.8		1.6	6.5	52.7	38.6	0.5
	400만원대	92.3		1.2	6.5	47.3	43.8	1.2
	500만원 이상	95.0		0.8	4.2	41.5	50.4	3.1
학력별	중졸 이하	98.4	0.035	0.0	1.6	30.6	66.1	1.6
	고졸	93.2		0.6	6.2	50.5	40.6	2.2
	대졸 이상	92.4		1.4	6.2	47.3	42.7	2.5
직업별	공무원	100.0	0.033	0.0	0.0	38.1	57.1	4.8
	자영업	95.3		0.0	4.7	52.3	39.5	3.5
	판매 서비스직	90.3		1.6	8.1	53.2	37.1	0.0
	기능직	92.1		0.0	7.9	42.1	50.0	0.0
	사무기술직	91.5		1.3	7.2	50.6	39.6	1.3
	사무관리직	93.2		1.7	5.1	33.1	55.1	5.1
	전문자유직	90.3		0.0	9.7	48.4	38.7	3.2
	주부	96.5		1.0	2.5	46.8	48.3	1.5
	학생	89.4		1.2	9.4	63.5	23.5	2.4
	무직	92.0		1.3	6.7	36.0	52.0	4.0

4) 수입식품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24>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널의 51.6%가 안전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2015년 상반기 51.3%보다 미미하게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의 62.1%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패널에 비해 높은 안전 체감도를 보였지만 2015년 상반기 65.4%보다 하락하였다.

〈표 4-24〉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51.6	100.0	6.2	42.2	39.0	12.1	0.5
전문가	62.1	100.0	0.6	37.4	41.4	20.1	0.6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25>에는 수입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변수별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남자, 20대, 호남권 거주, 100만원 대, 고졸이하, 공무원의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 연령군별, 직업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군별로는 20대, 40대는 5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판매서비스직에서 38.7%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가장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반대로 공무원은 61.9%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가장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직군으로 분석되었다.

〈표 4-25〉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51.6	—	6.2	42.2	39.0	12.1	0.5
성별	남	56.9	0.001	4.3	38.7	40.8	15.5	0.6
	여	46.1		8.1	45.8	37.1	8.5	0.4
연령군별	20대	60.4	0.012	5.2	34.4	37.0	22.1	1.3
	30대	48.5		8.2	43.4	40.8	7.7	0.0
	40대	54.2		7.9	38.0	43.1	10.6	0.5
	50대	47.3		5.4	47.3	35.0	11.8	0.5
	60대 이상	49.2		3.8	47.0	38.3	10.4	0.5
권역별	수도권	50.3	0.682	8.1	41.6	36.5	13.2	0.6
	영남권	51.0		4.8	44.1	38.6	12.1	0.3
	충부권	52.1		4.3	43.6	41.0	10.1	1.1
	호남권	54.3		7.3	38.4	42.1	12.2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1.0	0.076	7.8	41.2	47.1	3.9	0.0
	100만원대	57.9		3.2	38.9	46.0	11.1	0.8
	200만원대	44.4		6.3	49.4	33.1	11.3	0.0
	300만원대	47.8		8.7	43.5	39.1	8.7	0.0
	400만원대	50.3		7.7	42.0	39.6	9.5	1.2
	500만원 이상	56.2		4.6	39.2	36.9	18.5	0.8
학력별	중졸 이하	54.8	0.557	1.6	43.5	45.2	9.7	0.0
	고졸	54.2		5.2	40.6	40.9	12.9	0.3
	대졸 이상	49.7		7.3	43.0	37.2	11.9	0.7
직업별	공무원	61.9	0.042	0.0	38.1	47.6	14.3	0.0
	자영업	52.3		8.1	39.5	43.0	8.1	1.2
	판매 서비스직	38.7		17.7	43.5	30.6	8.1	0.0
	기능직	50.0		2.6	47.4	39.5	10.5	0.0
	사무기술직	55.3		6.4	38.3	39.6	15.3	0.4
	사무관리직	55.1		2.5	42.4	39.8	13.6	1.7
	전문자유직	41.9		6.5	51.6	29.0	9.7	3.2
	주부	47.8		5.0	47.3	41.3	6.5	0.0
	학생	51.8		8.2	40.0	32.9	18.8	0.0
	무직	56.0		4.0	40.0	40.0	16.0	0.0

다) 불안 이유

<표 4-26>에는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이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8.8%, ‘위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8%로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입업체의 낮은 안전 인식’,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에서는 1, 2위 순위가 뒤바뀐 결과를 보였다.

〈표 4-26〉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461	100.0	66	100.0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179	38.8	16	24.2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105	22.8	25	37.9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79	17.1	12	18.2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58	12.6	7	10.6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38	8.2	4	6.1
기타	2	0.4	2	3.0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27>에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령군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4-27〉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17.1	38.8	8.2	12.6	22.8	0.4	—
성별	남	21.2	36.1	5.8	11.1	25.5	0.5	0.106
	여	13.8	41.1	10.3	13.8	20.6	0.4	
연령군별	20대	9.8	55.7	8.2	14.8	11.5	0.0	0.002
	30대	14.9	45.5	14.9	8.9	15.8	0.0	
	40대	20.2	40.4	3.0	15.2	21.2	0.0	
	50대	17.8	28.0	9.3	14.0	29.0	1.9	
	60대 이상	20.4	31.2	5.4	10.8	32.3	0.0	
권역별	수도권	20.8	39.0	7.8	9.7	22.7	0.0	0.650
	영남권	16.2	41.5	7.0	14.1	19.7	1.4	
	충부권	14.4	38.9	11.1	11.1	24.4	0.0	
	호남권	14.7	33.3	8.0	17.3	26.7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20.0	40.0	4.0	12.0	24.0	0.0	0.780
	100만원대	15.1	41.5	11.3	17.0	13.2	1.9	
	200만원대	20.2	36.0	6.7	14.6	22.5	0.0	
	300만원대	17.7	35.4	7.3	8.3	30.2	1.0	
	400만원대	11.9	41.7	10.7	16.7	19.0	0.0	
	500만원 이상	18.4	40.4	7.9	9.6	23.7	0.0	
학력별	중졸 이하	14.3	42.9	7.1	17.9	17.9	0.0	0.761
	고졸	20.1	34.9	11.4	10.7	22.1	0.7	
	대졸 이상	15.8	40.5	6.7	13.0	23.6	0.4	
직업별	공무원	25.0	37.5	25.0	0.0	12.5	0.0	0.155
	자영업	12.2	43.9	7.3	12.2	24.4	0.0	
	판매 서비스직	13.2	47.4	5.3	15.8	18.4	0.0	
	기능직	36.8	21.1	5.3	5.3	31.6	0.0	
	사무기술직	17.1	43.8	10.5	8.6	20.0	0.0	
	사무관리직	18.9	35.8	7.5	9.4	28.3	0.0	
	전문자유직	33.3	27.8	0.0	5.6	27.8	5.6	
	주부	13.3	32.4	11.4	18.1	23.8	1.0	
	학생	9.8	56.1	4.9	14.6	14.6	0.0	
	무직	24.2	27.3	3.0	18.2	27.3	0.0	

- 이유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이유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이유 6. 기타

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28>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52명의 응답한 패널 중 65.7%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식품안전체감도인 75.9%보다 낮게 조사되었고, 또한 2015년 상반기 69.1%보다도 3.4%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의 88.5%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패널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고,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 87.9%보다 0.6%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2015년 상반기 결과인 85.2%보다 3.3% 높았다.

〈표 4-28〉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65.7	100.0	2.0	32.4	47.6	17.6	0.4
전문가	88.5	100.0	0.6	10.9	50.0	34.5	4.0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29>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40대, 500만원 이상, 중부권 대졸이상의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대,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학생의 체감 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별, 소득수준, 직업별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2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65.7	—	2.0	32.4	47.6	17.6	0.4
성별	남	70.2	<.0001	2.3	27.5	44.5	25.1	0.6
	여	61.0		1.7	37.3	50.7	10.0	0.2
연령군별	20대	59.7	0.096	1.9	38.3	40.9	18.2	0.6
	30대	59.2		4.1	36.7	48.0	11.2	0.0
	40대	71.8		1.9	26.4	49.5	21.8	0.5
	50대	68.0		1.0	31.0	46.3	21.2	0.5
	60대 이상	67.8		1.1	31.1	51.9	15.3	0.5
권역별	수도권	64.2	0.498	3.2	32.6	45.5	18.1	0.6
	영남권	64.8		0.7	34.5	45.5	19.0	0.3
	충부권	69.7		1.1	29.3	51.6	17.6	0.5
	호남권	65.2		3.0	31.7	50.6	14.6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1.0	0.027	3.9	45.1	43.1	7.8	0.0
	100만원대	67.5		2.4	30.2	54.8	11.1	1.6
	200만원대	65.0		1.9	33.1	48.8	16.3	0.0
	300만원대	58.7		3.3	38.0	44.6	14.1	0.0
	400만원대	65.7		1.8	32.5	46.7	18.3	0.6
	500만원 이상	72.7		0.8	26.5	46.5	25.8	0.4
학력별	중졸 이하	61.3	0.376	0.0	38.7	51.6	9.7	0.0
	고졸	64.6		1.2	34.2	45.5	18.8	0.3
	대졸 이상	66.7		2.7	30.6	48.3	17.9	0.5
직업별	공무원	81.0	0.028	0.0	19.0	42.9	33.3	4.8
	자영업	68.6		2.3	29.1	47.7	19.8	1.2
	판매 서비스직	62.9		1.6	35.5	53.2	9.7	0.0
	기능직	60.5		2.6	36.8	42.1	18.4	0.0
	사무기술직	64.3		2.1	33.6	43.8	20.4	0.0
	사무관리직	72.9		1.7	25.4	45.8	25.4	1.7
	전문자유직	64.5		3.2	32.3	45.2	19.4	0.0
	주부	65.2		1.0	33.8	55.7	9.5	0.0
	학생	57.6		2.4	40.0	36.5	21.2	0.0
	무직	66.7		4.0	29.3	53.3	13.3	0.0

다) 불안 이유

<표 4-30>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단속·관리 미흡’이 33.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제조·유통업체의 식품 보관 문제’가 20%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의 응답에서는 ‘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정부의 단속·관리 미흡’과 ‘제조·유통업체의 식품 보관 문제’가 동일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표 4-30〉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27	100.0	20	100.0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111	33.9	4	20.0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97	29.7	10	50.0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66	20.2	4	20.0
저가의 원재료 사용	34	10.4	1	5.0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19	5.8	1	5.0
기타	0	0.0	0	0.0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31>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세부변수 중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제조·유통업체의 식품 보관 문제’를, 300만원대인 응답자는 ‘식품 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그 외 응답자는 ‘정부의 단속·관리 미흡’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표 4-31〉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5.8	29.7	33.9	20.2	10.4	—	—
성별	남	7.6	31.3	33.3	19.4	8.3	—	0.583
	여	4.4	28.4	34.4	20.8	12.0	—	
연령군별	20대	4.8	32.3	38.7	12.9	11.3	—	0.420
	30대	3.8	31.3	42.5	16.3	6.3	—	
	40대	3.3	27.9	29.5	29.5	9.8	—	
	50대	10.8	26.2	30.8	21.5	10.8	—	
	60대 이상	6.8	30.5	25.4	22.0	15.3	—	
권역별	수도권	4.5	28.8	40.5	16.2	9.9	—	0.189
	영남권	5.9	23.5	34.3	28.4	7.8	—	
	중부권	8.8	36.8	31.6	12.3	10.5	—	
	호남권	5.3	35.1	22.8	21.1	15.8	—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6.0	12.0	24.0	36.0	12.0	—	0.023
	100만원대	4.9	26.8	41.5	14.6	12.2	—	
	200만원대	7.1	28.6	30.4	21.4	12.5	—	
	300만원대	5.3	34.2	27.6	14.5	18.4	—	
	400만원대	6.9	25.9	34.5	29.3	3.4	—	
	500만원 이상	1.4	36.6	42.3	15.5	4.2	—	
학력별	중졸 이하	12.5	25.0	29.2	16.7	16.7	—	0.346
	고졸	5.2	22.6	36.5	23.5	12.2	—	
	대졸 이상	5.3	34.6	33.0	18.6	8.5	—	
직업별	공무원	0.0	50.0	25.0	0.0	25.0	—	0.531
	자영업	3.7	29.6	37.0	22.2	7.4	—	
	판매 서비스직	4.3	17.4	34.8	26.1	17.4	—	
	기능직	0.0	46.7	33.3	0.0	20.0	—	
	사무기술직	7.1	32.1	35.7	21.4	3.6	—	
	사무관리직	12.5	28.1	34.4	18.8	6.3	—	
	전문자유직	0.0	54.5	18.2	18.2	9.1	—	
	주부	5.7	24.3	30.0	22.9	17.1	—	
	학생	2.8	30.6	47.2	13.9	5.6	—	
	무직	8.0	24.0	24.0	28.0	16.0	—	

이유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이유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이유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이유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이유 6. 기타

6) 외식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32>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널의 68.1%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안전체감도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전문가는 77.0%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패널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지만, 역시 전반적인 안전체감도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4-32〉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68.1	100.0	2.3	29.6	52.7	14.9	0.4
전문가	77.0	100.0	1.7	21.3	51.7	24.7	0.6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33>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50대, 호남권 거주, 100만원대, 중졸 이하, 공무원의 특성을 갖는 조사대상자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자영업, 사무관리직, 전문자유직의 경우 70% 이상의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4.5%로 타 권역에 비해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33〉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68.1	—	2.3	29.6	52.7	14.9	0.4
성별	남	73.7	<.0001	2.5	23.8	54.2	19.0	0.4
	여	62.3		2.1	35.6	51.2	10.7	0.4
연령군별	20대	66.9	0.237	0.6	32.5	50.0	16.9	0.0
	30대	61.7		4.6	33.7	51.5	10.2	0.0
	40대	70.8		1.4	27.8	55.6	14.8	0.5
	50대	72.9		2.5	24.6	54.2	18.2	0.5
	60대 이상	67.2		2.2	30.6	51.4	14.8	1.1
권역별	수도권	64.5	0.558	3.5	31.9	49.7	14.2	0.6
	영남권	69.3		1.4	29.3	54.1	14.5	0.7
	중부권	66.5		2.7	30.9	51.1	15.4	0.0
	호남권	74.4		1.2	24.4	57.9	16.5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68.6	0.768	2.0	29.4	56.9	9.8	2.0
	100만원대	71.4		2.4	26.2	55.6	15.1	0.8
	200만원대	70.0		3.8	26.3	57.5	12.5	0.0
	300만원대	64.1		2.2	33.7	52.7	11.4	0.0
	400만원대	65.1		2.4	32.5	48.5	16.0	0.6
	500만원 이상	70.0		1.5	28.5	50.4	19.2	0.4
학력별	중졸 이하	72.6	0.579	1.6	25.8	59.7	12.9	0.0
	고졸	70.2		3.4	26.5	54.2	15.4	0.6
	대졸 이상	66.4		1.8	31.9	51.2	14.9	0.4
직업별	공무원	76.2	0.144	4.8	19.0	57.1	19.0	0.0
	자영업	75.6		1.2	23.3	57.0	17.4	1.2
	판매 서비스직	62.9		6.5	30.6	58.1	4.8	0.0
	기능직	65.8		5.3	28.9	55.3	10.5	0.0
	사무기술직	64.7		2.1	33.2	50.6	14.0	0.0
	사무관리직	74.6		1.7	23.7	50.0	22.9	1.7
	전문자유직	74.2		3.2	22.6	61.3	12.9	0.0
	주부	69.2		1.5	29.4	57.7	10.9	0.5
	학생	57.6		1.2	41.2	40.0	17.6	0.0
	무직	69.3		2.7	28.0	49.3	20.0	0.0

다) 불안 이유

<표 4-34>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조리되는 것’을 응답 패널의 40.8%가 선택하여 가장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가 식재료의 사용 선호’가 25.3%,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이 19.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이 8.6%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57.5%가 ‘비위생적인 조리’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고, 25.0%가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함을 선택하였다.

〈표 4-34〉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04	100.0	40	100.0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124	40.8	23	57.5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77	25.3	10	25.0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59	19.4	3	7.5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26	8.6	1	2.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16	5.3	3	7.5
기타	2	0.7	0	0.0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35>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직업별로는 주부는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고, 그 외 응답자는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중졸 이하에서는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을 주된 이유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응답자에서는 같은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업주나 종사자의 비위생적인 조리’를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별 응답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4-35〉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0.8	19.4	25.3	8.6	5.3	0.7	—
성별	남	43.3	21.3	22.8	7.9	3.1	1.6	0.305
	여	39.0	18.1	27.1	9.0	6.8	0.0	
연령군별	20대	47.1	21.6	21.6	3.9	3.9	2.0	0.747
	30대	42.7	18.7	25.3	10.7	2.7	0.0	
	40대	36.5	22.2	20.6	14.3	4.8	1.6	
	50대	43.6	16.4	29.1	3.6	7.3	0.0	
	60대 이상	35.0	18.3	30.0	8.3	8.3	0.0	
권역별	수도권	46.4	20.0	20.9	8.2	3.6	0.9	0.892
	영남권	38.2	20.2	25.8	10.1	5.6	0.0	
	충부권	34.9	20.6	28.6	9.5	4.8	1.6	
	호남권	40.5	14.3	31.0	4.8	9.5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25.0	18.8	18.8	37.5	0.0	0.0	0.009
	100만원대	38.9	22.2	16.7	8.3	13.9	0.0	
	200만원대	52.1	22.9	22.9	0.0	2.1	0.0	
	300만원대	37.9	13.6	27.3	15.2	6.1	0.0	
	400만원대	44.1	18.6	23.7	6.8	3.4	3.4	
	500만원 이상	38.5	21.8	30.8	3.8	5.1	0.0	
학력별	중졸 이하	17.6	17.6	29.4	17.6	17.6	0.0	0.226
	고졸	46.4	18.6	21.6	7.2	6.2	0.0	
	대졸 이상	40.0	20.0	26.8	8.4	3.7	1.1	
직업별	공무원	60.0	20.0	20.0	0.0	0.0	0.0	0.560
	자영업	28.6	23.8	19.0	9.5	19.0	0.0	
	판매 서비스직	47.8	21.7	21.7	8.7	0.0	0.0	
	기능직	53.8	23.1	15.4	7.7	0.0	0.0	
	사무기술직	41.0	21.7	26.5	6.0	3.6	1.2	
	사무관리직	46.7	16.7	26.7	6.7	3.3	0.0	
	전문자유직	50.0	25.0	0.0	25.0	0.0	0.0	
	주부	27.4	11.3	40.3	11.3	9.7	0.0	
	학생	50.0	25.0	13.9	5.6	2.8	2.8	
	무직	43.5	17.4	21.7	13.0	4.3	0.0	

이유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이유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이유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이유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이유 6. 기타

7) 단체급식의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36>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52명중 단체급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05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0.3%가 보통 이상 응답하여 전반적인 체감도보다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전문가는 174명 중 단체급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9%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표 4-36〉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70.3	100.0	4.0	25.7	38.4	28.7	3.2
전문가	88.9	100.0	0.0	11.1	36.8	48.7	3.4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37>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분야별 안전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특성별로 보면 여자, 60대, 호남권 거주자, 100만원 미만, 대졸 이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타 계층에 비해 안전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득수준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학생의 안전체감 정도가 낮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체감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5개 세부영역 중 단체급식에서만 여성의 안전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7〉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70.3	—	4.0	25.7	38.4	28.7	3.2
성별	남	69.6	<.0001	4.5	25.9	36.7	29.1	3.8
	여	71.4		3.1	25.5	41.1	28.1	2.1
연령군별	20대	58.7	<.0001	7.3	33.9	32.1	24.8	1.8
	30대	62.5		6.7	30.8	46.7	15.0	0.8
	40대	74.8		1.7	23.5	39.1	33.0	2.6
	50대	80.2		1.2	18.5	37.0	39.5	3.7
	60대 이상	81.3		1.3	17.5	35.0	37.5	8.8
권역별	수도권	66.0	0.009	9.0	25.0	36.1	26.4	3.5
	영남권	66.7		2.5	30.9	34.6	30.2	1.9
	중부권	76.1		1.8	22.1	41.6	29.2	5.3
	호남권	76.7		1.2	22.1	45.3	29.1	2.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7.3	0.493	4.5	18.2	40.9	31.8	4.5
	100만원대	67.9		7.5	24.5	47.2	20.8	0.0
	200만원대	74.1		2.5	23.5	38.3	30.9	4.9
	300만원대	65.3		5.0	29.7	42.6	19.8	3.0
	400만원대	71.9		2.1	26.0	35.4	34.4	2.1
	500만원 이상	70.2		4.0	25.8	33.8	32.5	4.0
학력별	중졸 이하	70.6	0.001	0.0	29.4	35.3	35.3	0.0
	고졸	68.4		5.1	26.6	34.2	31.0	3.2
	대졸 이상	71.2		3.6	25.2	40.6	27.3	3.3
직업별	공무원	81.8	<.0001	0.0	18.2	18.2	45.5	18.2
	자영업	65.8		2.6	31.6	42.1	21.1	2.6
	판매 서비스직	61.8		5.9	32.4	38.2	23.5	0.0
	기능직	75.9		6.9	17.2	48.3	17.2	10.3
	사무기술직	70.7		4.8	24.5	36.1	32.7	2.0
	사무관리직	70.1		1.5	28.4	40.3	26.9	3.0
	전문자유직	73.7		0.0	26.3	42.1	31.6	0.0
	주부	77.2		3.5	19.3	43.9	31.6	1.8
	학생	62.9		8.1	29.0	37.1	24.2	1.6
	무직	73.2		0.0	26.8	31.7	34.1	7.3

다) 불안 이유

<표 4-38>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불안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보통 미만으로 응답한 총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급식관리자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대상자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24.7%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단체급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17명 중 보통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13명이고 53.8%가 ‘급식관리자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4-38>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150	100.0	13	100.0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55	36.7	7	53.8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37	24.7	2	15.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24	16.0	2	15.4
정부의 관리 미흡	23	15.3	2	15.4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8	5.3	0	0.0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2	1.3	0	0.0
기타	1	0.7	0	0.0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39>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녀 모두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안전의식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대신 여성은 ‘실제 비위생적인 급식제공으로 식중독 발생’을 9.2% 남성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50대 이상의 응답자에서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함’을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모든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39〉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36.7	15.3	5.3	16.0	1.3	24.7	0.7	—
성별	남	38.9	14.7	6.3	12.6	2.1	24.2	1.1	0.610
	여	32.7	16.4	3.6	21.8	0.0	25.5	0.0	
연령군별	20대	40.0	13.3	4.4	17.8	0.0	22.2	2.2	0.753
	30대	35.6	22.2	8.9	13.3	2.2	17.8	0.0	
	40대	27.6	13.8	6.9	24.1	0.0	27.6	0.0	
	50대	50.0	6.3	0.0	6.3	6.3	31.3	0.0	
	60대 이상	33.3	13.3	0.0	13.3	0.0	40.0	0.0	
권역별	수도권	32.7	24.5	6.1	12.2	0.0	24.5	0.0	0.275
	영남권	42.6	9.3	5.6	11.1	1.9	29.6	0.0	
	중부권	40.7	11.1	7.4	22.2	3.7	11.1	3.7	
	호남권	25.0	15.0	0.0	30.0	0.0	30.0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0.0	20.0	0.0	20.0	0.0	20.0	0.0	0.533
	100만원대	41.2	5.9	5.9	11.8	5.9	23.5	5.9	
	200만원대	38.1	14.3	0.0	23.8	0.0	23.8	0.0	
	300만원대	25.7	17.1	8.6	11.4	0.0	37.1	0.0	
	400만원대	25.9	14.8	3.7	18.5	3.7	33.3	0.0	
	500만원 이상	48.9	17.8	6.7	15.6	0.0	11.1	0.0	
학력별	중졸 이하	40.0	20.0	0.0	0.0	0.0	40.0	0.0	0.867
	고졸	46.0	14.0	4.0	10.0	2.0	24.0	0.0	
	대졸 이상	31.6	15.8	6.3	20.0	1.1	24.2	1.1	
직업별	공무원	0.0	0.0	50.0	0.0	0.0	50.0	0.0	0.684
	자영업	30.8	38.5	0.0	15.4	0.0	15.4	0.0	
	판매 서비스직	23.1	15.4	7.7	30.8	7.7	15.4	0.0	
	기능직	28.6	14.3	0.0	14.3	0.0	42.9	0.0	
	사무기술직	41.9	18.6	7.0	11.6	0.0	20.9	0.0	
	사무관리직	35.0	5.0	5.0	10.0	5.0	40.0	0.0	
	전문자유직	60.0	0.0	0.0	40.0	0.0	0.0	0.0	
	주부	23.1	15.4	0.0	30.8	0.0	30.8	0.0	
	학생	47.8	13.0	4.3	8.7	0.0	21.7	4.3	
	무직	36.4	9.1	9.1	18.2	0.0	27.3	0.0	

이유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이유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이유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이유 7. 기타

8)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40>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안전체감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한 패널의 49.8%로 5개 세부분야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작년 상반기 45.6%보다 상승하였다.

전문가 중 58.6%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마찬가지로 5개 세부분야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표 4-40>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49.8	100.0	5.9	44.3	39.9	9.5	0.4
전문가	58.6	100.0	3.4	37.9	42.5	15.5	0.6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41>에는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정도에 대해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보면 남자, 60대 이상, 중부권 거주,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자영업의 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 연령군별, 직업별 차이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0대의 안전체감도가 가장 낮았고,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 응답자의 안전체감도가 가장 낮았다.

〈표 4-4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세부변수별 분석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49.8	—	5.9	44.3	39.9	9.5	0.4
성별	남	53.8	0.016	6.0	40.2	41.2	12.2	0.4
	여	45.6		5.8	48.6	38.6	6.6	0.4
연령군별	20대	50.6	0.050	5.2	44.2	37.7	12.3	0.6
	30대	41.8		8.2	50.0	35.2	6.6	0.0
	40대	48.1		6.0	45.8	36.6	10.6	0.9
	50대	53.2		3.9	42.9	48.3	4.9	0.0
	60대 이상	55.7		6.0	38.3	41.5	13.7	0.5
권역별	수도권	47.1	0.614	6.8	46.1	37.7	9.0	0.3
	영남권	48.3		6.2	45.5	36.2	11.4	0.7
	중부권	54.3		5.9	39.9	46.3	8.0	0.0
	호남권	52.4		3.7	43.9	43.3	8.5	0.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4.9	0.725	9.8	35.3	47.1	7.8	0.0
	100만원대	54.0		4.8	41.3	42.1	11.1	0.8
	200만원대	50.0		6.9	43.1	39.4	10.0	0.6
	300만원대	45.1		6.5	48.4	40.2	4.9	0.0
	400만원대	46.2		7.7	46.2	37.9	7.7	0.6
	500만원 이상	52.3		3.5	44.2	38.8	13.1	0.4
학력별	중졸 이하	58.1	0.847	6.5	35.5	45.2	12.9	0.0
	고졸	51.1		6.2	42.8	40.9	9.8	0.3
	대졸 이상	48.1		5.7	46.2	38.8	8.8	0.5
직업별	공무원	57.1	<.0001	4.8	38.1	33.3	14.3	9.5
	자영업	59.3		2.3	38.4	53.5	4.7	1.2
	판매 서비스직	41.9		8.1	50.0	37.1	4.8	0.0
	기능직	57.9		2.6	39.5	47.4	10.5	0.0
	사무기술직	46.8		3.8	49.4	37.9	8.9	0.0
	사무관리직	45.8		5.1	49.2	32.2	12.7	0.8
	전문자유직	45.2		3.2	51.6	35.5	9.7	0.0
	주부	49.8		8.5	41.8	41.8	8.0	0.0
	학생	57.6		10.6	31.8	42.4	15.3	0.0
	무직	48.0		6.7	45.3	37.3	10.7	0.0

다) 불안 이유

<표 4-42>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품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9.0%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작년과 1, 2순위가 뒤바뀐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문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등히 높은 비율이 ‘식품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4-4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478	100.0	72	100.0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51	31.6	30	41.7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113	23.6	18	25.0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91	19.0	10	13.9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49	10.3	11	15.3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48	10.0	2	2.8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25	5.2	1	1.4
기타	1	0.2	0	0.0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43>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와 여자 간에 학교주변 판매식품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교 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4-43〉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31.6	19.0	5.2	23.6	10.0	10.3	0.2	—
성별	남	38.6	21.5	1.8	22.4	9.4	5.8	0.4	<.001
	여	25.5	16.9	8.2	24.7	10.6	14.1	0.0	
연령군별	20대	26.3	19.7	9.2	22.4	7.9	14.5	0.0	0.639
	30대	28.1	21.1	7.0	21.1	11.4	10.5	0.9	
	40대	31.3	18.8	1.8	25.0	12.5	10.7	0.0	
	50대	40.0	14.7	3.2	22.1	9.5	10.5	0.0	
	60대 이상	32.1	21.0	6.2	28.4	7.4	4.9	0.0	
권역별	수도권	35.4	21.3	6.7	17.7	6.7	12.2	0.0	0.075
	영남권	25.3	18.0	2.0	33.3	12.0	8.7	0.7	
	중부권	39.5	17.4	4.7	17.4	11.6	9.3	0.0	
	호남권	26.9	17.9	9.0	24.4	11.5	10.3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21.7	21.7	8.7	21.7	13.0	13.0	0.0	0.660
	100만원대	32.8	20.7	8.6	13.8	10.3	13.8	0.0	
	200만원대	32.5	20.0	2.5	23.8	10.0	10.0	1.3	
	300만원대	29.7	19.8	4.0	22.8	12.9	10.9	0.0	
	400만원대	30.8	12.1	4.4	30.8	12.1	9.9	0.0	
	500만원 이상	34.7	21.8	6.5	24.2	5.6	7.3	0.0	
학력별	중졸 이하	30.8	15.4	15.4	23.1	11.5	3.8	0.0	0.480
	고졸	31.4	18.9	3.1	22.6	10.1	13.2	0.6	
	대졸 이상	31.7	19.5	5.5	24.2	9.9	9.2	0.0	
직업별	공무원	44.4	11.1	11.1	11.1	22.2	0.0	0.0	0.241
	자영업	28.6	31.4	5.7	20.0	8.6	5.7	0.0	
	판매 서비스직	22.2	30.6	8.3	13.9	13.9	11.1	0.0	
	기능직	62.5	18.8	0.0	6.3	6.3	6.3	0.0	
	사무기술직	27.2	16.8	8.8	25.6	9.6	11.2	0.8	
	사무관리직	46.9	12.5	0.0	20.3	9.4	10.9	0.0	
	전문자유직	47.1	5.9	0.0	41.2	5.9	0.0	0.0	
	주부	23.8	14.9	5.9	28.7	11.9	14.9	0.0	
	학생	33.3	27.8	2.8	22.2	2.8	11.1	0.0	
	무직	28.2	25.6	2.6	25.6	12.8	5.1	0.0	

- 이유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이유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유 6. 저가의 수입품 대한 안전성 우려
 이유 7. 기타

9) 정책현안

가) 현안

<표 4-44>에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46.8%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법 등 법, 규정의 개선’을 33.0%의 대상자가 선택하여 그 뒤를 이었다.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전문가와 패널을 비교하였을 때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선택한 전문가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4-44>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52	100.0	174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46	46.8	72	41.4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314	33.0	35	20.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84	8.8	33	19.0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67	7.0	18	10.3
정부 정책 홍보 강화	37	3.9	11	6.3
기타	4	0.4	5	2.9

나) 세부변수별 현안

<표 4-45>에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호남권에서는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을 그 외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를 식품안전 현안 중 우선순위로 선택하였다.

〈표 4-45〉 조사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단위: %)

구분		현안1	현안2	현안3	현안4	현안5	현안6	p
합계		8.8	33.0	46.8	3.9	7.0	0.4	—
성별	남	9.1	31.7	49.5	3.7	5.8	0.2	0.378
	여	8.5	34.3	44.1	4.1	8.3	0.6	
연령군별	20대	5.8	33.8	48.7	5.8	5.2	0.6	0.206
	30대	7.1	36.7	46.9	4.6	4.1	0.5	
	40대	9.7	33.8	48.1	2.3	5.6	0.5	
	50대	10.3	35.0	40.4	4.4	9.4	0.5	
	60대 이상	10.4	25.1	50.8	2.7	10.9	0.0	
권역별	수도권	8.1	32.3	50.6	4.2	4.8	0.0	0.026
	영남권	6.9	33.4	48.6	2.8	7.6	0.7	
	중부권	9.0	29.3	50.5	4.8	5.9	0.5	
	호남권	13.4	37.8	32.3	4.3	11.6	0.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9	27.5	51.0	5.9	9.8	0.0	0.463
	100만원대	7.1	31.7	46.0	3.2	11.1	0.8	
	200만원대	8.8	40.0	42.5	2.5	6.3	0.0	
	300만원대	8.7	29.9	51.6	2.2	7.1	0.5	
	400만원대	13.0	36.7	42.0	4.1	3.6	0.6	
	500만원 이상	7.7	29.6	49.2	5.8	7.3	0.4	
학력별	중졸 이하	12.9	33.9	40.3	3.2	9.7	0.0	0.736
	고졸	8.6	30.8	49.5	3.7	7.4	0.0	
	대졸 이상	8.5	34.2	46.0	4.1	6.5	0.7	
직업별	공무원	9.5	33.3	42.9	4.8	4.8	4.8	0.299
	자영업	16.3	30.2	40.7	4.7	8.1	0.0	
	판매 서비스직	8.1	32.3	45.2	6.5	8.1	0.0	
	기능직	7.9	34.2	55.3	2.6	0.0	0.0	
	사무기술직	9.4	34.5	46.4	3.4	6.0	0.4	
	사무관리직	6.8	39.0	44.9	1.7	7.6	0.0	
	전문자유직	9.7	19.4	54.8	9.7	3.2	3.2	
	주부	9.0	34.3	43.3	3.5	10.0	0.0	
	학생	4.7	28.2	54.1	5.9	5.9	1.2	
	무직	6.7	29.3	54.7	2.7	6.7	0.0	

주) 현안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현안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현안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현안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현안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현안 6. 기타

나. 부가 조사

1) 식품안전인식

가) 영향요인

<표 4-46>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가 56.7%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본인 및 가족의 경험, 과학적 사실, 주변 사람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 역시 언론 보도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나, 경험보다는 과학적 사실을 더 큰 영향 요인이라고 선택하였다.

〈표 4-46〉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52	100.0	174	100.0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540	56.7	91	52.3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78	18.7	15	8.6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133	14.0	62	35.6
주변 사람의 의견	67	7.0	4	2.3
정부의 보도 자료	34	3.6	2	1.1
기타	0	0.0	0	0.0

나) 세부변수별 영향요인

<표 4-47>에는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령군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언론 보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20대와 30대는 본인 및 가족의 경험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연령이 증가하며 언론의 영향이 더 커짐이 분석되었다. 학력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요인은 언론 보도였고, 대졸 이상에서 대졸 미만에 비하여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중졸 이하에서 주변 사람의 의견, 정부 보도 자료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조사대상자 특성별 영향요인

(단위: %)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p
합계		18.7	14.0	56.7	7.0	3.6	—	—
성별	남	20.3	15.1	56.7	5.4	2.5	—	0.054
	여	17.1	12.8	56.7	8.7	4.7	—	
연령군별	20대	21.4	12.3	51.9	11.7	2.6	—	<.001
	30대	25.5	13.8	52.6	6.6	1.5	—	
	40대	19.0	17.1	58.3	4.6	0.9	—	
	50대	16.3	14.3	59.6	4.9	4.9	—	
	60대 이상	11.5	11.5	60.1	8.7	8.2	—	
권역별	수도권	22.3	13.5	55.8	5.5	2.9	—	0.187
	영남권	17.6	11.0	60.7	7.6	3.1	—	
	중부권	16.5	18.1	55.3	7.4	2.7	—	
	호남권	16.5	15.2	53.0	8.5	6.7	—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21.6	5.9	60.8	7.8	3.9	—	0.508
	100만원대	15.9	7.9	59.5	9.5	7.1	—	
	200만원대	21.3	13.8	56.3	6.3	2.5	—	
	300만원대	19.6	14.1	53.3	8.2	4.9	—	
	400만원대	16.0	17.8	58.0	5.3	3.0	—	
	500만원 이상	19.2	16.2	56.2	6.5	1.9	—	
학력별	중졸 이하	12.9	4.8	59.7	11.3	11.3	—	0.007
	고졸	19.4	12.6	57.8	6.2	4.0	—	
	대졸 이상	18.9	15.8	55.8	7.1	2.5	—	
직업별	공무원	14.3	9.5	71.4	4.8	0.0	—	0.188
	자영업	19.8	7.0	65.1	4.7	3.5	—	
	판매 서비스직	19.4	12.9	54.8	8.1	4.8	—	
	기능직	28.9	21.1	44.7	5.3	0.0	—	
	사무기술직	17.4	18.7	54.5	6.8	2.6	—	
	사무관리직	18.6	15.3	61.0	3.4	1.7	—	
	전문자유직	25.8	9.7	41.9	16.1	6.5	—	
	주부	16.4	12.9	56.2	8.0	6.5	—	
	학생	22.4	10.6	51.8	12.9	2.4	—	
	무직	16.0	12.0	64.0	4.0	4.0	—	

요인 1. 본인 및 가족의 경험
 요인 2.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요인 3.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요인 4. 주변 사람의 의견
 요인 5. 정부의 보도 자료
 요인 6. 기타

2) 불량식품 근절

가) 인지도

<표 4-48>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80.0%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5년 상반기 75.2%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93.7%로 패널보다 13.7% 높고, 2015년 상반기 90.1%보다도 높았다.

〈표 4-48〉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보통 이상	합계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80.0	100	2.6	17.3	44.3	32.1	3.6
전문가	93.7	162	0.0	6.3	25.3	51.1	17.2

나) 인지도 세부분석

<표 4-49>에는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 60대 이상, 영남권 거주자, 300만원대와 500만원 이상, 중졸 이하, 공무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증가와 함께 인지도도 상승했으며, 직업별로는 기능직과 학생의 인지도가 낮고, 공무원과 주부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의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권역을 제외하고 모든 구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4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합계		80.0	—	2.6	17.3	44.3	32.1	3.6
성별	남	79.1	0.036	2.5	18.4	39.5	35.2	4.3
	여	81.0		2.8	16.2	49.3	29.0	2.8
연령군별	20대	67.5	<.0001	7.1	25.3	36.4	30.5	0.6
	30대	78.6		2.6	18.9	46.4	30.6	1.5
	40대	80.6		2.3	17.1	46.3	30.1	4.2
	50대	83.7		2.0	14.3	46.8	35.0	2.0
	60대 이상	87.4		0.0	12.6	43.7	34.4	9.3
권역별	수도권	80.3	0.138	4.5	15.2	43.5	34.2	2.6
	영남권	80.7		0.3	19.0	46.6	30.3	3.8
	충부권	79.3		2.1	18.6	41.5	34.6	3.2
	호남권	79.3		3.7	17.1	45.1	28.7	5.5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0.6	<.001	5.9	23.5	52.9	15.7	2.0
	100만원대	78.6		2.4	19.0	51.6	23.8	3.2
	200만원대	78.8		1.9	19.4	49.4	26.3	3.1
	300만원대	83.2		0.0	16.8	52.2	29.9	1.1
	400만원대	77.5		3.6	18.9	37.3	37.3	3.0
	500만원 이상	83.1		3.8	13.1	35.0	41.5	6.5
학력별	중졸 이하	83.9	0.001	0.0	16.1	64.5	17.7	1.6
	고졸	78.2		2.2	19.7	48.3	27.4	2.5
	대졸 이상	80.7		3.2	16.1	39.8	36.5	4.4
직업별	공무원	90.5	0.005	0.0	9.5	33.3	52.4	4.8
	자영업	79.1		1.2	19.8	48.8	27.9	2.3
	판매 서비스직	72.6		6.5	21.0	51.6	17.7	3.2
	기능직	71.1		0.0	28.9	42.1	28.9	0.0
	사무기술직	80.4		4.3	15.3	43.0	34.0	3.4
	사무관리직	83.9		0.0	16.1	33.1	43.2	7.6
	전문자유직	80.6		3.2	16.1	41.9	32.3	6.5
	주부	85.6		0.5	13.9	53.7	28.9	3.0
	학생	71.8		7.1	21.2	38.8	31.8	1.2
	무직	76.0		2.7	21.3	41.3	30.7	4.0

다)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

<표 4-50>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응답자의 45.6%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9.5%),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6.6%)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2015년 상반기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는 불량식품 미근절 원인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약한 처벌’ 순으로 선택하였다.

〈표 4-50〉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52	100.0	174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34	45.6	46	26.4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86	19.5	61	35.1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58	16.6	53	30.5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107	11.2	8	4.6
정부의 단속 소홀	65	6.8	4	2.3
기타	2	0.2	2	1.1

라)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51>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불량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60대 이상에서 더욱 강했고 (50% 이상) 상대적으로 ‘불량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사회분위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40대 이하에서 높았다. 중졸 이하인 경우 ‘정부의 단속 소홀’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낮았다. 직업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자가 '약한 처벌'을 1순위로 선택했지만 판매서비스직, 주부, 학생, 무직인 경우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이 2순위로 나타났다. 권역별, 소득수준별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5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5.6	16.6	19.5	11.2	6.8	0.2	—
성별	남	46.0	18.2	19.5	9.3	6.6	0.4	0.235
	여	45.2	14.9	19.6	13.2	7.0	0.0	
연령군별	20대	33.8	13.6	18.8	21.4	11.7	0.6	<.0001
	30대	41.3	16.3	20.4	14.3	7.7	0.0	
	40대	48.6	16.7	21.3	11.1	2.3	0.0	
	50대	48.3	19.2	21.2	6.4	4.4	0.5	
	60대 이상	53.6	16.4	15.3	4.9	9.8	0.0	
권역별	수도권	43.2	18.4	17.7	12.3	8.4	0.0	0.602
	영남권	44.8	16.6	22.8	10.0	5.2	0.7	
	중부권	46.8	16.5	17.6	11.7	7.4	0.0	
	호남권	50.0	13.4	19.5	11.0	6.1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1.0	13.7	13.7	7.8	13.7	0.0	0.353
	100만원대	47.6	12.7	19.8	10.3	9.5	0.0	
	200만원대	51.9	15.6	14.4	10.0	8.1	0.0	
	300만원대	41.8	21.2	18.5	11.4	6.0	1.1	
	400만원대	42.0	16.0	23.1	14.8	4.1	0.0	
학력별	500만원 이상	44.6	16.9	21.9	10.8	5.8	0.0	0.003
	중졸 이하	56.5	9.7	14.5	6.5	12.9	0.0	
	고졸	51.7	16.9	13.2	11.1	6.8	0.3	
	대졸 이상	40.9	17.2	23.7	11.9	6.2	0.2	
	대졸 이상	40.9	17.2	23.7	11.9	6.2	0.2	
직업별	공무원	38.1	19.0	33.3	4.8	4.8	0.0	<.0001
	자영업	55.8	12.8	12.8	9.3	9.3	0.0	
	판매 서비스직	53.2	16.1	14.5	11.3	4.8	0.0	
	기능직	42.1	21.1	26.3	10.5	0.0	0.0	
	사무기술직	37.9	15.7	25.5	14.9	6.0	0.0	
	사무관리직	44.1	20.3	24.6	8.5	2.5	0.0	
	전문자유직	41.9	9.7	29.0	16.1	0.0	3.2	
	주부	50.2	16.4	16.4	9.0	8.0	0.0	
	학생	35.3	20.0	11.8	12.9	18.8	1.2	
	무직	58.7	14.7	10.7	10.7	5.3	0.0	

이유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이유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이유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이유 5. 정부의 단속 소홀

이유 6. 기타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2016년 상반기 패널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4-5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식품안전체감도가 75.9%로 2015년 상반기 74.3%보다 1.6% 상승하였고, 조사된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여전히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체감도가 가장 낮았지만 작년 상반기 45.6%에 비해 4.2% 상승하였다.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외식의 안전, 단체급식의 안전은 작년 상반기 안전체감도보다 하락하였다.

<표 4-52>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패널)

(단위 :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	75.9	952	2.4	21.6	53.5	22.1	0.4
수입식품 안전	51.6	952	6.2	42.2	39.0	12.1	0.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65.7	952	2.0	32.4	47.6	17.6	0.4
외식 안전	68.1	952	2.3	29.6	52.7	14.9	0.4
단체급식 안전	70.3	505	4.0	25.7	38.4	28.7	3.2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49.8	995	6.3	48	38	7.2	0.4

나. 2016년 상반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4-5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수입 식품의 안전, 단체급식의 안전,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은 작년 상반기 체감도 보다 하락하였다. 하지만 패널에 비해 전체 영역에서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에서 패널의 안전체감도와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고, 외식의 안전에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표 4-53〉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전문가)

(단위 :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	87.9	174	0.0	12.1	41.4	44.3	2.3
수입식품 안전	62.1	174	0.6	37.4	41.4	20.1	0.6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88.5	174	0.6	10.9	50.0	34.5	4.0
외식 안전	77.0	174	1.7	21.3	51.7	24.7	0.6
단체급식 안전	88.9	117	0.0	11.1	36.8	48.7	3.4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58.6	174	3.4	37.9	42.5	15.5	0.6

다. 부가조사 결과에서 10가지 현안정책에 대해 잘 추진되고 있는 체감도를 중복조사한 결과를 보면,

- HACCP 적용, 나트륨 정책, 식품 표시, 식중독 예방 등이 패널과 전문가 모두에서 추진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 타 정책에 비해 정책홍보 및 실제 활용도가 높은 정책들로 평가되었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 인식의 순위가 하락하였고 이는 작년에 비해 정책 홍보 등이 다소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은 전문가에 비해 일반 국민 대상 홍보가 부족하고, 아직은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라.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013년 첫회 조사 86.9% 이후 계속 70%대에 머물다가 이번 조사 결과에서 80.0%로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2. 시사점

가. 향후 통계청 지적대로 식품패널 선정이 통계학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명단으로는 20대와 30대 일부 지역에서 조사 목표치에
부족함이 있어 1000명 조사가 불가능 하였다.

나. 맞춤형 조사방법으로 인터넷 조사와 전화 조사 두 가지를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다. 2015년 조사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10가지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로 시계열 비교를 할 수 있었다.

제 5 장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제1절 조사 계획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5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제1절 조사 계획

1. 조사개요

<표 5-1>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개요가 제시되어있다.

<표 5-1> 하반기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6년 11월 28일 ~ 12월 11일
조사대상	- 패널: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식품패널 962명 - 전문가: 205명
조사내용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로 총 26개 조사항목
조사방법	패널: 인터넷 조사 703명, 전화조사 209명 전문가: 인터넷 조사 156명, 전화조사 8명
탈락사유	인터넷 조사에 무응답, 전화연결 안됨
조사 성공자	- 패널: 총 912명 - 전문가: 총 164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식품패널의 명단을 제공 받아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가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11일까지 14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

하반기 조사는 <표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참여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 전화조사가 사용되었다.

〈표 5-2〉 조사 선호 방법

구분	식품패널		전문가	
	대상자수	비율	대상자수	비율
합계	935	100.0	164	100.0
인터넷조사	703	75.2	156	95.1
전화조사	232	24.8	8	4.9

전화조사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한국갤럽에서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조사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조사를 선호하는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설문지를 송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962명의 패널과 205명의 전문가 조사대상자 중 패널선정 기준인 연령, 성, 권역별 조사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조사단위의 조사를 마감하여 과조사되지 않게 하였으며,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조사단위의 경우 추가 반복 접촉을 시도하여 조사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패널 935명, 전문가 164명이었으며 조사목표에 따라 분석될 인원은 패널 912명, 전문가 164명이었다.

3. 조사실시 현황

가. 조사목표

하반기 조사도 상반기 조사와 마찬가지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 4개 권역별, 5개 연령군으로 층화된 식품패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하반기 조사를 위해 구축된 식품패널 중 일부 연령, 지역의 패널의 인원수가 조사 목표치에 부족하여 최종 조사 대상 패널은 962명이었다. <표 5-3>에 하반기 최종 조사대상 패널이 제시되어 있다.

<표 5-3> 최종 조사목표 식품패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962	485	85	102	108	102	88	477	76	97	107	102	95
수도권	312	158	29	36	35	32	26	154	25	34	35	33	27
영남권	294	149	28	29	34	31	27	145	21	30	33	31	30
중부권	190	94	15	19	21	21	18	96	16	19	21	20	20
호남권	166	84	13	18	18	18	17	82	14	14	18	18	18

나. 조사 성공

<표 5-4>에는 조사에 성공한 912명에 대한 각 지역, 성, 연령별 성공률이 제시되어 있다. 총 40개 조사단위중 19개 조사단위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조사 성공률이 가장 낮은 조사단위는 수도권의 20대 남성군으로 72.4%였으며 영남권 20대 남성도 78.6%의 조사 성공률을 보여 20대 남성의 조사 성공률이 낮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권역별로는 호남권, 연령군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조사 성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4> 하반기조사 조사 성공률 현황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94.8	93.4	80.0	97.1	89.8	99.0	100.0	96.2	88.2	95.9	98.1	97.1	100.0
수도권	93.6	91.1	72.4	97.2	85.7	100.0	100.0	96.1	84.0	100.0	94.3	100.0	100.0
영남권	94.2	91.9	78.6	96.6	85.3	100.0	100.0	96.6	90.5	96.7	100.0	93.5	100.0
중부권	95.8	95.7	86.7	94.7	95.2	100.0	100.0	95.8	87.5	94.7	100.0	95.0	100.0
호남권	97.0	97.6	92.3	100.0	100.0	94.4	100.0	96.3	92.9	85.7	100.0	100.0	100.0

다. 설문지 신뢰도 검증

하반기에 설문지가 수정됨에 따라 신뢰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표 5-5>에 상·하반기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값이 제시되어있다.

상반기의 경우 크롬바알파값은 0.85로 산출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사용된 설문지의 수정이 있었다. 우선 기존 설문지의 번호체계를 달리하고, 5개 항목은 추가하고, 2개 항목은 삭제를 하는 등 개선을 하였는데 그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91로 상반기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5> 상·하반기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값 비교 (패널, 전문가)

항목	상반기					하반기				
	Cronbach's α 계수 값	변수 제외 시 Cronbach's α 값				Cronbach's α 계수 값	변수 제외 시 Cronbach's α 값			
		Raw variable		Standardized variable			Raw variable		Standardized variable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0.85	0.62	0.83	0.62	0.84	0.91	0.79	0.88	0.78	0.88
수입식품 안전		0.73	0.81	0.74	0.82		0.69	0.90	0.69	0.90
유통식품 안전		0.64	0.83	0.64	0.83		0.76	0.89	0.76	0.88
외식 안전		0.58	0.84	0.58	0.85		0.73	0.89	0.73	0.89
단체급식 안전		0.56	0.85	0.56	0.85		0.76	0.89	0.74	0.89
학교주변 판매 식품 안전		0.75	0.81	0.75	0.81		0.73	0.89	0.73	0.89

제2절 조사 결과

1. 기본 분석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5-6>에는 하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6〉 하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식품패널		전문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합계		912	100.0	164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0	5.5	0	0.0
	100만원대	117	12.8	1	0.6
	200만원대	151	16.6	14	8.5
	300만원대	182	20.0	12	7.3
	400만원대	164	18.0	36	22.0
	500만원 이상	246	27.0	100	61.0
	모름/무응답	2	0.2	1	0.6
교육수준	중졸 이하	55	6.0	0	0.0
	고졸	320	35.1	0	0.0
	대졸 이상	537	58.9	164	100.0
직업분류	공무원	14	1.5	16	9.8
	자영업	90	9.9	1	0.6
	판매 서비스직	55	6.0	5	3.0
	기능직	36	3.9	0	0.0
	사무기술직	222	24.3	41	25.0
	사무관리직	114	12.5	45	27.4
	전문자유직	33	3.6	56	34.1
	주부	203	22.3	0	0.0
	학생	77	8.4	0	0.0
	무직	68	7.5	0	0.0

2013년 구축된 식품패널의 경제적, 학력수준이 국민 평균수준 보다 높은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나. 기본 조사

1) 전체 식품안전체감도

<표 5-7>에는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12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4.6%로 조사되었다.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79.6%보다 5.0% 높게 나타났고, 총 7회차 조사결과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전문가는 89.5%로 상승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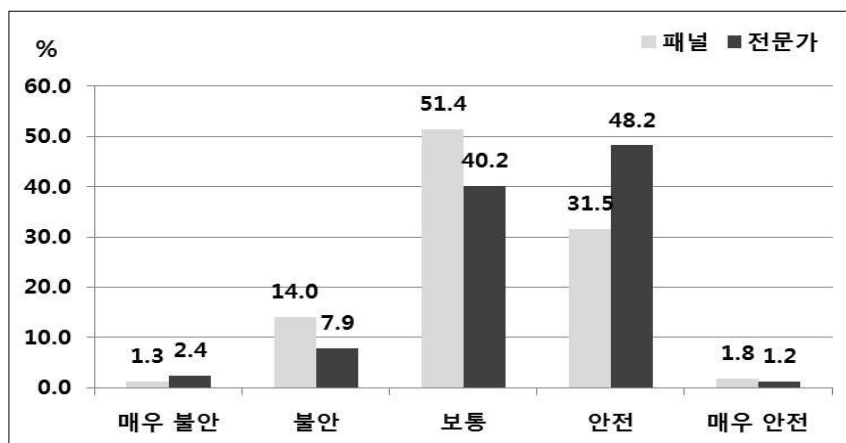
<표 5-7>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84.6	912	1.3	14.0	51.4	31.5	1.8
전문가	89.6	164	2.4	7.9	40.2	48.2	1.2

[그림 5-1]에는 이 결과가 막대 그래프로 비교되어있다.

[그림 5-1]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2)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가) 안전체감도

<표 5-8>에는 2016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88.4%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 89.5%보다 낮아진 수준이었다. 전문가의 경우 전체의 94.5%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표 5-8〉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짐	크게 나아짐
패널	88.4	912	0.9	10.7	46.3	39.0	3.1
전문가	94.5	164	0.0	5.5	37.8	54.9	1.8

나) 나아진 이유

<표 5-9>에는 2016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품안전관리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로 패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24.7%)과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23.7%)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여 패널과 전문가 사이에 인식 차이를 보였다.

〈표 5-9〉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84	100.0	93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95	24.7	19	20.4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91	23.7	10	10.8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74	19.3	29	31.2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64	16.7	17	18.3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59	15.4	17	18.3
기타	1	0.3	1	1.1

다) 나빠진 이유

<표 5-10>에는 2016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10〉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106	100.0	9	100.0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30	28.3	1	11.1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28	26.4	4	44.4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22	20.8	2	22.2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18	17.0	0	0.0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8	7.5	2	22.2
기타	0	0.0	0	0.0

패널은 28.3%가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이 작년대비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진 이유라 응답하였고 이 외에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26.4%),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20.8%) 등을 이유를 선택하였다.

전문가는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44.4%)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3)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5-11>에는 내년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예측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11>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크게 떨어질 것	떨어질 것	동일할 것	나아질 것	크게 나아질 것
패널	93.6	912	0.9	5.5	38.2	51.8	3.7
전문가	98.8	164	0.0	1.2	30.5	67.7	0.6

응답 패널의 93.6%가 동일할 것 또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반기 93.1% 보다는 상승하였고, 2015년 하반기 95.2% 수준보다는 감소하였다. 나아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은 2015년 하반기 50.5%에서 51.8%로 1.3% 포인트 증가하였다.

전문가의 식품안전체감도는 98.8%로 역대 회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표 5-12>에는 2016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패널을 대상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현안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로 42.4%의 대상자가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5.0%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37.8%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를 가장 주된 현안으로 조사되었다.

〈표 5-12〉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12	100.0	164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387	42.4	62	37.8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250	27.4	29	17.7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133	14.6	36	22.0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83	9.1	21	12.8
정부 정책 홍보 강화	46	5.0	7	4.3
기타	13	1.4	9	5.5

5)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표 5-13>에는 수입식품안전, 유통식품안전, 외식안전, 단체급식의 안전, 학교 주변 판매식품안전 등 5개 분야별 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대상 조사에서 5개 분야를 총괄한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4.6%인데, 5개 세부영역은 모두 이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수입식품 안전 체감도는 58.7%, 학교 주변 판매식품 안전체감도는 60.0%로 5개 영역중 여전히 가장 낮았지만 역대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였다.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전반적 식품안전체감도는 89.6%였고, 세부 영역의 안전체감도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유통식품의 안전 체감도는 84.1%로 가장 안전한 분야로 평가하였고,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체감도가 6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에 대해 해당부처의 적극적인 현황 분석과 홍보 추진으로 역대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¹⁵⁾.

〈표 5-13〉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수입식품 안전	58.7	912	5.3	36.1	36.7	20.8	1.1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68.6	912	2.4	28.9	40.1	26.5	2.0
	외식 안전	68.8	912	2.7	28.5	43.1	24.5	1.2
	단체급식의 안전	71.5	445	4.9	23.6	36.2	29.4	5.8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60.0	912	5.4	34.6	38.3	19.8	1.9
	전반적인 식품안전	84.6	912	1.3	14.0	51.4	31.5	1.8
전문가	수입식품 안전	68.3	164	3.0	28.7	34.8	30.5	3.0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84.1	164	—	15.9	29.3	48.8	6.1
	외식 안전	75.6	164	1.8	22.6	43.3	32.3	—
	단체급식의 안전	82.4	108	0.9	16.7	27.8	51.9	2.8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67.7	164	2.4	29.9	37.8	29.9	—
	전반적인 식품안전	89.6	164	2.4	7.9	40.2	48.2	1.2

[그림 5-2]에는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패널과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사방형 비교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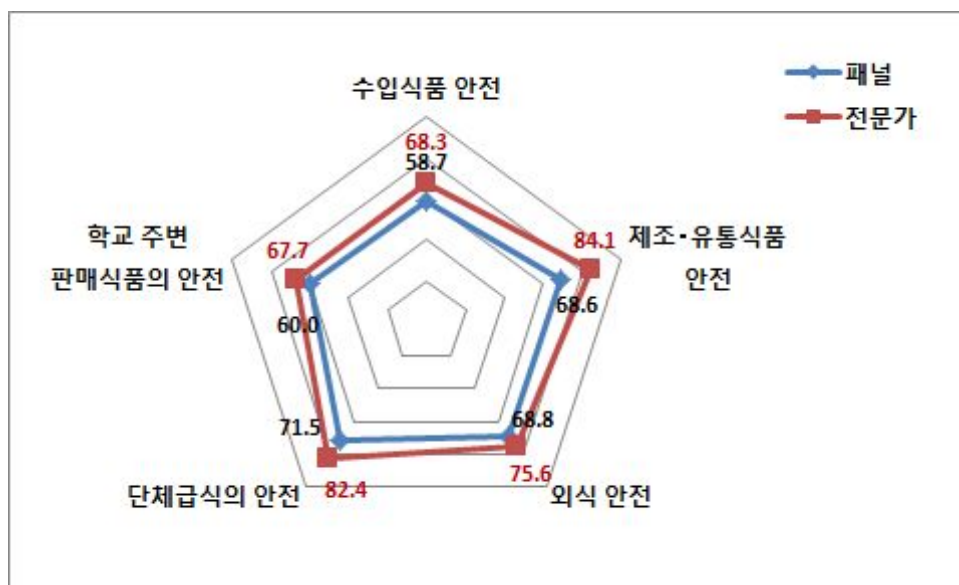
15) - 식약처는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약 5,000여명의 학생, 학부모,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조리·판매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도출, 실시하였음

-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수도권 지하철 등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였고,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자 의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모든 영역에서 패널보다 높은 체감도를 보였다. 전문가가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인 영역은 제조·유통식품 안전이었고, 패널의 경우 단체급식의 안전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인 영역은 패널의 경우 수입식품의 안전이었고 전문가는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이었다.

패널과 전문가 사이에 가장 큰 체감도 차이를 보인 영역은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으로 15.5% 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그림 5-2]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비교



6) 세부영역별 작년 대비 식품안전체감도

<표 5-14>에는 세부분야별 체감도에 대한 작년대비 나아진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개 세부영역 중 패널의 88.5%는 외식의 안전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졌다는 응답인 88.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전문가의 경우 단체급식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98.1%로 나타났다.

패널의 경우 외식의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나아진 정도보다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졌다는 응답이 일부 더 높았으나 전문가의 경우 모든 세부영역이 나아진 정도가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졌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는 수입식품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대해 작년대비 크게 떨어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었다.

〈표 5-14〉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수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짐	크게 나아짐
패널	수입식품 안전	85.4	912	1.0	13.6	49.3	33.8	2.3
	유통식품의 안전	87.5	912	0.9	11.6	49.8	35.6	2.1
	외식 안전	88.5	912	1.3	10.2	54.6	31.7	2.2
	단체급식의 안전	86.7	445	0.7	12.6	48.3	34.2	4.3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86.8	912	1.1	12.1	53.8	30.5	2.5
	전반적인 식품안전	88.4	912	0.9	10.7	46.3	39.0	3.1
전문가	수입식품 안전	95.7	164	0.6	3.7	53.7	40.2	1.8
	유통식품의 안전	96.3	164	0.0	3.7	43.9	50.6	1.8
	외식 안전	95.1	164	0.0	4.9	57.3	36.6	1.2
	단체급식의 안전	98.1	108	0.0	1.9	52.8	44.4	0.9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97.6	164	0.0	2.4	62.2	34.8	0.6
	전반적인 식품안전	94.5	164	0.0	5.5	37.8	54.9	1.8

7) 식품안전정책의 추진 체감도

<표 5-15>에는 10가지의 현 식품안전정책을 대상으로 추진정도(잘 추진되는 정도)를 중복선택한 결과가 분석되어 있다.

〈표 5-15〉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합계	3,052	100.0	431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487	16.0	104	24.1
나트륨 줄이기 운동	415	13.6	73	16.9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368	12.1	73	16.9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325	10.6	62	14.4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84	9.3	36	8.4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278	9.1	57	13.2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에게 정보(음식점, 부적합 등) 공개	263	8.6	61	14.2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농약, 중금속 등) 강화	234	7.7	47	10.9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213	7.0	46	10.7
부적합한 식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제품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166	5.4	46	10.7
기타	19	0.6	0	0.0

패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나트륨 줄이기 운동’,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순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문가는 전체의 24.1%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를 꼽았고, 그 외 ‘나트륨 줄이기 운동’,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학교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순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패널 조사결과와는 달리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위해제품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정책의 경우 사실상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경험률이 낮아 정책의 추진정도에 대해서도 낮은 인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되었다.

8)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5-16>에는 <표 5-15>에서 선택한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16>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12	100.0	164	100.0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364	39.9	85	51.8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277	30.4	24	14.6
식품관련 이슈 감소	138	15.1	29	17.7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인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69	7.6	19	11.6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40	4.4	6	3.7
기타	24	2.6	1	0.6

패널의 39.9%가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정책추진 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과 30.4%가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되기 때문’을 선택하였다. 즉, 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보여주는 조사결과로 사료되었다.

전문가는 51.8%가 ‘정책추진 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고, 17.7%가 ‘식품관련 이슈가 감소 했음’을 선택하였다.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를 선택한 비율은 패널과 전문가에서 각각 4.0%, 3.7%로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여전히 업체의 법 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부가 조사

1) 불량식품 근절 노력

<표 5-17>에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정도를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85.6%와 전문가의 96.3%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인지도가 패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17>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보통이상	응답자 수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85.6	912	1.1	13.3	48.7	33.6	3.4
전문가	96.3	164	0.6	3.0	29.3	56.1	11.0

2) 불량식품 유통 이유

<표 5-18>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45.1%와 전문가의 32.9%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패널은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20.7%), 전문가는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30.5%)을 이유로 지적하였다.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강화, 식품안전규제의 강화, 부당이익 환수 확대 등의 정책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조사결과라 하겠다.

〈표 5-18〉 불량식품의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12	100.0	164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11	45.1	54	32.9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89	20.7	46	28.0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85	20.3	50	30.5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68	7.5	4	2.4
정부의 단속 소홀	58	6.4	8	4.9
기타	1	0.1	2	1.2

2. 세부 분석

가. 기본 조사

1) 식품안전체감도

<표 5-19>에는 2016년 하반기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하여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50대, 중부권 거주자, 소득 500만원대, 고졸, 공무원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군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84.6	—	1.3	14.0	51.4	31.5	1.8
성별	남	86.8	<.0001	2.0	11.3	46.1	38.2	2.4
	여	82.6		0.7	16.8	56.6	24.8	1.1
연령군별	20대	76.3	0.018	3.0	20.7	48.9	26.7	0.7
	30대	80.7		2.1	17.2	56.3	24.0	0.5
	40대	87.6		1.0	11.4	49.5	35.6	2.5
	50대	90.0		0.5	9.5	54.5	34.0	1.5
	60대 이상	85.8		0.5	13.7	47.0	35.5	3.3
권역별	수도권	81.2	0.538	1.0	17.8	47.9	31.2	2.1
	영남권	85.9		2.2	11.9	52.0	32.1	1.8
	중부권	87.9		0.0	12.1	55.5	31.3	1.1
	호남권	85.1		1.9	13.0	52.2	31.1	1.9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84.0	0.223	4.0	12.0	60.0	20.0	4.0
	100만원대	78.6		1.7	19.7	49.6	27.4	1.7
	200만원대	85.4		1.3	13.2	55.0	28.5	2.0
	300만원대	81.3		1.1	17.6	53.3	27.5	0.5
	400만원대	86.6		1.2	12.2	53.0	32.3	1.2
	500만원 이상	88.2		0.8	11.0	45.5	40.2	2.4
학력별	중졸 이하	78.2	0.491	1.8	20.0	60.0	18.2	0.0
	고졸	85.6		1.3	13.1	50.0	33.4	2.2
	대졸 이상	84.7		1.3	14.0	51.4	31.7	1.7
직업별	공무원	100.0	0.059	0.0	0.0	57.1	42.9	0.0
	자영업	93.3		1.1	5.6	57.8	33.3	2.2
	판매 서비스직	81.8		1.8	16.4	49.1	29.1	3.6
	기능직	83.3		2.8	13.9	38.9	41.7	2.8
	사무기술직	80.6		1.8	17.6	51.8	27.5	1.4
	사무관리직	86.8		1.8	11.4	40.4	42.1	4.4
	전문자유직	84.8		0.0	15.2	60.6	24.2	0.0
	주부	84.7		0.5	14.8	59.6	24.6	0.5
	학생	76.6		2.6	20.8	41.6	35.1	0.0
	무직	91.2		0.0	8.8	50.0	38.2	2.9

<표 5-20>에는 2016년 하반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하여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60대 이상, 영남권 거주자, 소득 300만원대, 공무원 및 자영업 종사자의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학적으로는 성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0〉 전문가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89.6	—	2.4	7.9	40.2	48.2	1.2
성별	남	94.6	0.022	1.1	4.3	35.5	57.0	2.2
	여	83.1		4.2	12.7	46.5	36.6	0.0
연령군별	20대	75.0	0.303	0.0	25.0	50.0	25.0	0.0
	30대	84.8		2.2	13.0	45.7	39.1	0.0
	40대	88.9		6.7	4.4	42.2	46.7	0.0
	50대	92.2		0.0	7.8	31.4	58.8	2.0
	60대 이상	100.0		0.0	0.0	44.4	50.0	5.6
권역별	수도권	88.7	0.848	3.5	7.8	40.0	47.0	1.7
	영남권	100.0		0.0	0.0	60.0	40.0	0.0
	중부권	86.7		0.0	13.3	33.3	53.3	0.0
	호남권	89.5		0.0	10.5	31.6	57.9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0.197	—	—	—	—	—
	100만원대	0.0		0.0	100.0	0.0	0.0	0.0
	200만원대	92.9		0.0	7.1	28.6	64.3	0.0
	300만원대	100.0		0.0	0.0	75.0	25.0	0.0
	400만원대	91.7		2.8	5.6	50.0	41.7	0.0
	500만원 이상	88.0		3.0	9.0	34.0	52.0	2.0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
	고졸	—		—	—	—	—	—
대졸 이상		89.6	0.554	2.4	7.9	40.2	48.2	1.2
직업별	공무원	100.0		0.0	0.0	31.3	68.8	0.0
	자영업	100.0		0.0	0.0	0.0	100.0	0.0
	판매 서비스직	80.0		0.0	20.0	60.0	20.0	0.0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78.0		4.9	17.1	36.6	41.5	0.0
	사무관리직	93.5		2.2	4.4	33.3	57.8	2.2
	전문자유직	92.9		1.8	5.4	50.0	41.1	1.8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2)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표 5-21>에는 작년 대비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21>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짐	크게 나아짐
합계		88.4	—	0.9	10.7	46.3	39.0	3.1
성별	남	89.6	0.058	0.4	9.9	43.7	41.7	4.2
	여	87.1		1.3	11.5	48.8	36.4	2.0
연령군별	20대	85.2	<.0001	2.2	12.6	60.7	23.0	1.5
	30대	80.2		1.6	18.2	50.0	29.2	1.0
	40대	92.1		0.0	7.9	45.0	44.1	3.0
	50대	91.0		0.0	9.0	44.0	44.5	2.5
	60대 이상	92.3		1.1	6.6	35.5	49.7	7.1
권역별	수도권	86.6	0.652	0.7	12.7	47.6	36.3	2.7
	영남권	89.5		1.4	9.0	49.8	36.8	2.9
	중부권	89.6		0.5	9.9	41.2	45.6	2.7
	호남권	88.2		0.6	11.2	43.5	40.4	4.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88.0	0.084	0.0	12.0	46.0	38.0	4.0
	100만원대	86.3		3.4	10.3	51.3	35.0	0.0
	200만원대	93.4		0.0	6.6	52.3	37.7	3.3
	300만원대	85.7		1.1	13.2	47.3	35.7	2.7
	400만원대	86.0		0.0	14.0	44.5	38.4	3.0
	500만원 이상	90.2		0.8	8.9	40.7	45.1	4.5
학력별	중졸 이하	85.5	0.774	1.8	12.7	41.8	41.8	1.8
	고졸	90.3		0.3	9.4	47.2	40.6	2.5
	대졸 이상	87.5		1.1	11.4	46.2	37.8	3.5
직업별	공무원	100.0	0.012	0.0	0.0	42.9	57.1	0.0
	자영업	92.2		2.2	5.6	41.1	45.6	5.6
	판매 서비스직	90.9		0.0	9.1	54.5	32.7	3.6
	기능직	86.1		2.8	11.1	38.9	47.2	0.0
	사무기술직	84.7		0.9	14.4	48.2	33.8	2.7
	사무관리직	88.6		0.0	11.4	39.5	44.7	4.4
	전문자유직	75.8		3.0	21.2	36.4	36.4	3.0
	주부	89.2		0.0	10.8	49.8	37.9	1.5
	학생	89.6		0.0	10.4	61.0	26.0	2.6
	무직	94.1		2.9	2.9	33.8	54.4	5.9

3)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5-22>에는 올해 대비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22〉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크게 떨어질 것	떨어질 것	동일할 것	나아질 것	크게 나아질 것
합계		93.6	—	0.9	5.5	38.2	51.8	3.7
성별	남	94.5	0.028	1.3	4.2	37.3	51.9	5.3
	여	92.8		0.4	6.8	39.0	51.6	2.2
연령군별	20대	92.6	<.0001	0.7	6.7	53.3	37.8	1.5
	30대	92.2		1.6	6.3	54.2	35.4	2.6
	40대	96.0		0.0	4.0	34.7	57.4	4.0
	50대	94.0		1.0	5.0	33.5	57.5	3.0
	60대 이상	92.9		1.1	6.0	19.1	66.7	7.1
권역별	수도권	93.2	0.362	1.0	5.8	41.8	48.3	3.1
	영남권	94.6		1.1	4.3	35.4	56.3	2.9
	중부권	95.1		0.0	4.9	38.5	53.3	3.3
	호남권	91.3		1.2	7.5	36.0	48.4	6.8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92.0	0.782	0.0	8.0	42.0	44.0	6.0
	100만원대	91.5		2.6	6.0	41.0	47.0	3.4
	200만원대	94.7		1.3	4.0	36.4	53.6	4.6
	300만원대	94.5		0.5	4.9	40.7	51.1	2.7
	400만원대	92.1		0.0	7.9	37.8	52.4	1.8
	500만원 이상	94.7		0.8	4.5	35.8	54.1	4.9
학력별	중졸 이하	81.8	0.021	3.6	14.5	23.6	54.5	3.6
	고졸	95.0		0.6	4.4	39.7	52.2	3.1
	대졸 이상	94.0		0.7	5.2	38.7	51.2	4.1
직업별	공무원	100.0	0.044	0.0	0.0	21.4	78.6	0.0
	자영업	94.4		3.3	2.2	26.7	61.1	6.7
	판매 서비스직	98.2		0.0	1.8	49.1	45.5	3.6
	기능직	97.2		0.0	2.8	30.6	63.9	2.8
	사무기술직	92.3		1.4	6.3	44.1	44.1	4.1
	사무관리직	93.0		0.9	6.1	34.2	53.5	5.3
	전문자유직	87.9		0.0	12.1	39.4	48.5	0.0
	주부	92.1		0.0	7.9	35.0	55.2	2.0
	학생	93.5		1.3	5.2	49.4	41.6	2.6
	무직	98.5		0.0	1.5	35.3	57.4	5.9

4) 수입식품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23>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널의 58.7%가 안전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역대 회차 중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였다. 전문가는 68.3%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패널보다 안전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3〉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58.7	100.0	5.3	36.1	36.7	20.8	1.1
전문가	68.3	100.0	3.0	28.7	34.8	30.5	3.0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24>에는 수입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60대 이상, 중부권 거주, 500만원 이상, 중졸 이하, 공무원인 조사대상자의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성별에서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30대에서 51.6%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이 45.5%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반대로 공무원은 92.9%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가장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직군으로 분석되었다.

〈표 5-24〉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58.7	—	5.3	36.1	36.7	20.8	1.1
성별	남	64.9	<.0001	4.4	30.7	37.5	26.3	1.1
	여	52.5		6.1	41.4	35.9	15.5	1.1
연령군별	20대	53.3	0.05	6.7	40.0	30.4	21.5	1.5
	30대	51.6		8.9	39.6	37.0	13.5	1.0
	40대	58.9		5.9	35.1	37.1	21.8	0.0
	50대	62.0		3.5	34.5	37.5	23.5	1.0
	60대 이상	66.1		1.6	32.2	39.9	24.0	2.2
권역별	수도권	57.5	0.165	4.8	37.7	33.2	22.9	1.4
	영남권	55.2		7.2	37.5	36.5	18.8	0.0
	중부권	62.6		2.7	34.6	42.9	17.6	2.2
	호남권	62.1		5.6	32.3	36.6	24.2	1.2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64.0	0.336	0.0	36.0	40.0	24.0	0.0
	100만원대	57.3		6.8	35.9	41.9	14.5	0.9
	200만원대	54.3		2.6	43.0	32.5	21.2	0.7
	300만원대	54.4		8.2	37.4	34.1	19.2	1.1
	400만원대	58.5		4.9	36.6	40.2	17.7	0.6
	500만원 이상	64.2		5.3	30.5	35.8	26.4	2.0
학력별	중졸 이하	60.0	0.379	0.0	40.0	45.5	12.7	1.8
	고졸	59.7		4.7	35.6	37.5	21.6	0.6
	대졸 이상	57.9		6.1	35.9	35.4	21.2	1.3
직업별	공무원	92.9	0.616	0.0	7.1	42.9	50.0	0.0
	자영업	63.3		5.6	31.1	40.0	22.2	1.1
	판매 서비스직	54.5		9.1	36.4	36.4	16.4	1.8
	기능직	61.1		5.6	33.3	41.7	16.7	2.8
	사무기술직	58.1		5.9	36.0	37.4	19.4	1.4
	사무관리직	58.8		6.1	35.1	35.1	21.9	1.8
	전문자유직	45.5		6.1	48.5	24.2	21.2	0.0
	주부	56.7		4.4	38.9	39.9	15.8	1.0
	학생	54.5		3.9	41.6	29.9	24.7	0.0
	무직	66.2		2.9	30.9	33.8	32.4	0.0

다) 불안 이유

<표 5-25>에는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이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9.0%, ‘위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9.6%로 주요 이유로 나타나는 등 상반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입업체의 낮은 안전 인식’,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25〉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77	100.0	52	100.0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147	39.0	13	25.0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74	19.6	17	32.7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69	18.3	11	21.2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55	14.6	6	11.5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31	8.2	3	5.8
기타	1	0.3	2	3.8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26>에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세부변수 중 연령군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군별로 보면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을 불안 이유로 선택하였으나 60대 이상 연령층은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불안하지 않은 이유로 나타났다.

〈표 5-26〉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18.3	39.0	8.2	14.6	19.6	0.3	—
성별	남	20.8	36.5	8.2	13.8	20.8	0.0	0.797
	여	16.5	40.8	8.3	15.1	18.8	0.5	
연령군별	20대	14.3	47.6	9.5	17.5	9.5	1.6	0.004
	30대	12.9	51.6	7.5	11.8	16.1	0.0	
	40대	20.5	33.7	9.6	21.7	14.5	0.0	
	50대	23.7	36.8	6.6	9.2	23.7	0.0	
	60대 이상	21.0	21.0	8.1	12.9	37.1	0.0	
권역별	수도권	13.7	42.7	12.1	13.7	16.9	0.8	0.6
	영남권	23.4	36.3	4.0	14.5	21.8	0.0	
	중부권	17.6	39.7	10.3	13.2	19.1	0.0	
	호남권	18.0	36.1	6.6	18.0	21.3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1.1	16.7	11.1	33.3	27.8	0.0	0.915
	100만원대	18.0	34.0	8.0	22.0	18.0	0.0	
	200만원대	20.3	40.6	7.2	11.6	20.3	0.0	
	300만원대	18.1	42.2	10.8	13.3	15.7	0.0	
	400만원대	16.2	45.6	5.9	11.8	20.6	0.0	
	500만원 이상	20.5	36.4	8.0	12.5	21.6	1.1	
학력별	중졸 이하	22.7	27.3	4.5	18.2	27.3	0.0	0.882
	고졸	19.4	36.4	8.5	13.2	22.5	0.0	
	대졸 이상	17.3	41.6	8.4	15.0	17.3	0.4	
직업별	공무원	0.0	0.0	100.0	0.0	0.0	0.0	0.852
	자영업	21.2	33.3	9.1	15.2	21.2	0.0	
	판매 서비스직	16.0	36.0	20.0	12.0	16.0	0.0	
	기능직	14.3	57.1	7.1	14.3	7.1	0.0	
	사무기술직	17.2	46.2	5.4	15.1	15.1	1.1	
	사무관리직	25.5	27.7	2.1	19.1	25.5	0.0	
	전문자유직	16.7	38.9	5.6	22.2	16.7	0.0	
	주부	17.0	37.5	9.1	12.5	23.9	0.0	
	학생	14.3	40.0	11.4	11.4	22.9	0.0	
	무직	21.7	39.1	8.7	13.0	17.4	0.0	

이유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이유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이유 6. 기타

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27>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12명의 응답 패널 중 68.6%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인 안전체감도인 84.6%보다 낮게 나타났고, 2015년 하반기 70.7%보다 2.1% 포인트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는 전체의 84.1%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패널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고,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인 89.6%에 비해서 5.5%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5-27〉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68.6	100.0	2.4	28.9	40.1	26.5	2.0
전문가	84.1	100.0	0.0	15.9	29.3	48.8	6.1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28>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50대, 중부권 거주,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공무원의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이 73.1%로 가장 높고, 호남권이 70.2%로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무직에서 8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에서 70%가 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28〉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68.6	—	2.4	28.9	40.1	26.5	2.0
성별	남	74.2	<.0001	2.9	23.0	38.9	32.5	2.9
	여	63.2		2.0	34.9	41.4	20.7	1.1
연령군별	20대	61.5	0.043	3.0	35.6	41.5	17.8	2.2
	30대	59.4		3.1	37.5	35.4	22.4	1.6
	40대	68.3		2.5	29.2	37.6	29.7	1.0
	50대	77.5		2.0	20.5	45.0	30.0	2.5
	60대 이상	74.3		1.6	24.0	41.5	30.1	2.7
권역별	수도권	66.4	0.637	2.4	31.2	37.3	26.7	2.4
	영남권	67.1		3.2	29.6	41.2	24.9	1.1
	충부권	73.1		0.5	26.4	42.3	27.5	3.3
	호남권	70.2		3.1	26.7	41.0	28.0	1.2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4.0	0.702	4.0	22.0	52.0	22.0	0.0
	100만원대	66.7		3.4	29.9	42.7	22.2	1.7
	200만원대	69.5		2.6	27.8	43.0	24.5	2.0
	300만원대	67.0		2.2	30.8	41.2	24.2	1.6
	400만원대	64.6		2.4	32.9	39.0	23.8	1.8
	500만원 이상	72.0		1.6	26.4	34.6	34.6	2.8
학력별	중졸 이하	70.9	0.588	3.6	25.5	50.9	18.2	1.8
	고졸	70.3		2.5	27.2	40.6	28.4	1.3
	대졸 이상	67.4		2.2	30.4	38.7	26.3	2.4
직업별	공무원	100.0	0.020	0.0	0.0	57.1	42.9	0.0
	자영업	77.8		2.2	20.0	44.4	32.2	1.1
	판매 서비스직	65.5		5.5	29.1	49.1	10.9	5.5
	기능직	63.9		2.8	33.3	38.9	22.2	2.8
	사무기술직	62.2		1.8	36.0	32.9	26.6	2.7
	사무관리직	69.3		4.4	26.3	37.7	29.8	1.8
	전문자유직	54.5		0.0	45.5	27.3	27.3	0.0
	주부	71.9		1.5	26.6	44.3	26.6	1.0
	학생	58.4		2.6	39.0	36.4	20.8	1.3
	무직	83.8		2.9	13.2	50.0	30.9	2.9

다) 불안 이유

<표 5-29>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정부의 관리 미흡’이 32.2%로 가장 높은 불안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제조·유통업체의 식품 보관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표 5-29〉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286	100.0	26	100.0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92	32.2	7	26.9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82	28.7	5	19.2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66	23.1	7	26.9
저가의 원재료 사용	32	11.2	0	0.0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13	4.5	6	23.1
기타	1	0.3	1	3.8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30>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령군별로는 20대, 30대, 60대 이상은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을 주된 불안 이유로 선택했으나 40대의 경우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50대의 경우 ‘제조·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된 불안 이유로 선택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의 경우 53.3%가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불안 이유로 선택하였으나 무직의 경우 63.6%가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을 선택하였다.

모든 세부분석 층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3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5	28.7	32.2	23.1	11.2	0.3	—
성별	남	4.3	29.9	32.5	22.2	10.3	0.9	0.875
	여	4.7	27.8	32.0	23.7	11.8	0.0	
연령군별	20대	0.0	32.7	40.4	17.3	9.6	0.0	0.263
	30대	3.8	32.1	34.6	20.5	9.0	0.0	
	40대	9.4	32.8	28.1	17.2	10.9	1.6	
	50대	6.7	22.2	24.4	35.6	11.1	0.0	
	60대 이상	2.1	19.1	31.9	29.8	17.0	0.0	
권역별	수도권	2.0	35.7	28.6	20.4	12.2	1.0	0.493
	영남권	6.6	18.7	36.3	25.3	13.2	0.0	
	중부권	4.1	32.7	36.7	22.4	4.1	0.0	
	호남권	6.3	29.2	27.1	25.0	12.5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0.0	38.5	38.5	15.4	7.7	0.0	0.687
	100만원대	2.6	33.3	28.2	23.1	12.8	0.0	
	200만원대	10.9	34.8	37.0	15.2	2.2	0.0	
	300만원대	5.0	25.0	36.7	23.3	10.0	0.0	
	400만원대	5.2	25.9	24.1	31.0	13.8	0.0	
	500만원 이상	1.4	26.1	33.3	21.7	15.9	1.4	
학력별	중졸 이하	0.0	25.0	25.0	37.5	12.5	—	0.630
	고졸	5.3	26.3	32.6	28.4	7.4	—	
	대졸 이상	4.6	30.3	32.6	18.9	13.1	0.6	
직업별	공무원	0.0	0.0	0.0	0.0	0.0	0.0	0.086
	자영업	0.0	25.0	30.0	20.0	25.0	0.0	
	판매 서비스직	10.5	21.1	47.4	21.1	0.0	0.0	
	기능직	15.4	15.4	30.8	38.5	0.0	0.0	
	사무기술직	1.2	31.0	35.7	21.4	10.7	0.0	
	사무관리직	8.6	31.4	20.0	14.3	22.9	2.9	
	전문자유직	6.7	53.3	6.7	26.7	6.7	0.0	
	주부	7.0	22.8	31.6	29.8	8.8	0.0	
	학생	0.0	37.5	31.3	21.9	9.4	0.0	
	무직	0.0	9.1	63.6	18.2	9.1	0.0	

이유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이유 2.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이유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이유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이유 6. 기타

6) 외식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31>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넬의 68.8%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안전체감도 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전문가의 75.6%가 보통 이상을 선택하여 패넬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체감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5-31〉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넬	68.8	100.0	2.7	28.5	43.1	24.5	1.2
전문가	75.6	100.0	1.8	22.6	43.3	32.3	0.0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32>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60대 이상, 호남권 거주, 200만원대, 중졸 이하, 공무원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성별, 연령군별, 직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안전체감도가 73.7%로 여성에 비해 9.9% 포인트 높았고 연령군별로는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인 60대 이상(76.5%)과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인 20대(59.3%)가 17.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자영업, 사무관리직, 주부, 무직의 경우 70% 이상의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표 5-32〉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68.8	—	2.7	28.5	43.1	24.5	1.2
성별	남	73.7	0.001	2.6	23.6	42.8	29.1	1.8
	여	63.8		2.8	33.3	43.4	19.8	0.7
연령군별	20대	59.3	0.007	3.0	37.8	41.5	17.0	0.7
	30대	59.9		3.1	37.0	41.1	17.7	1.0
	40대	72.3		3.0	24.8	42.6	29.7	0.0
	50대	73.0		2.5	24.5	46.0	25.5	1.5
	60대 이상	76.5		2.2	21.3	43.7	30.1	2.7
권역별	수도권	65.4	0.708	3.1	31.5	43.2	21.2	1.0
	영남권	67.5		2.2	30.3	40.1	26.0	1.4
	중부권	72.5		2.2	25.3	46.7	24.2	1.6
	호남권	72.7		3.7	23.6	44.1	28.0	0.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68.0	0.825	6.0	26.0	34.0	34.0	0.0
	100만원대	69.2		5.1	25.6	43.6	23.9	1.7
	200만원대	72.8		2.6	24.5	47.0	25.2	0.7
	300만원대	65.4		1.6	33.0	41.2	22.5	1.6
	400만원대	67.7		1.8	30.5	43.9	23.2	0.6
	500만원 이상	69.1		2.4	28.5	42.7	24.8	1.6
학력별	중졸 이하	72.7	0.799	3.6	23.6	40.0	30.9	1.8
	고졸	70.3		2.5	27.2	45.9	23.8	0.6
	대졸 이상	67.4		2.8	29.8	41.7	24.2	1.5
직업별	공무원	92.9	0.031	0.0	7.1	71.4	21.4	0.0
	자영업	81.1		1.1	17.8	48.9	32.2	0.0
	판매 서비스직	67.3		7.3	25.5	47.3	18.2	1.8
	기능직	63.9		2.8	33.3	41.7	19.4	2.8
	사무기술직	60.4		1.8	37.8	36.5	22.5	1.4
	사무관리직	74.6		4.4	21.1	39.5	34.2	0.9
	전문자유직	60.6		6.1	33.3	39.4	18.2	3.0
	주부	70.9		2.5	26.6	49.3	20.7	1.0
	학생	61.0		1.3	37.7	36.4	24.7	0.0
	무직	75.0		2.9	22.1	45.6	26.5	2.9

다) 불안 이유

<표 5-33>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조리’되는 것을 응답 패널의 40.7%가 선택하여 가장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가 식재료의 사용 선호’가 22.5%,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이 20.0%,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과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이 8.4%로 나타났다.

〈표 5-33〉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285	100.0	40	100.0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116	40.7	20	50.0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64	22.5	10	25.0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57	20.0	4	10.0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24	8.4	3	7.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24	8.4	3	7.5
기타	0	0.0	0	0.0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34>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대부분의 세부변수별 집단에서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를 외식의 주된 불안 이유로 선택하였으나 권역별로 호남권과 소득수준별 200만원대, 직업별로 공무원과 무직은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5-34〉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0.7	20.0	22.5	8.4	8.4	0.0	—
성별	남	42.0	24.4	17.6	7.6	8.4	0.0	0.364
	여	39.8	16.9	25.9	9.0	8.4	0.0	
연령군별	20대	34.5	25.5	23.6	10.9	5.5	0.0	0.589
	30대	42.9	23.4	16.9	7.8	9.1	0.0	
	40대	44.6	16.1	19.6	7.1	12.5	0.0	
	50대	44.4	16.7	31.5	3.7	3.7	0.0	
	60대 이상	34.9	16.3	23.3	14.0	11.6	0.0	
권역별	수도권	44.6	19.8	21.8	5.9	7.9	0.0	0.203
	영남권	47.8	16.7	18.9	12.2	4.4	0.0	
	중부권	34.0	26.0	20.0	8.0	12.0	0.0	
	호남권	25.0	20.5	34.1	6.8	13.6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0.0	12.5	18.8	12.5	6.3	0.0	0.936
	100만원대	50.0	13.9	16.7	11.1	8.3	0.0	
	200만원대	31.7	17.1	31.7	7.3	12.2	0.0	
	300만원대	39.7	23.8	23.8	7.9	4.8	0.0	
	400만원대	37.7	24.5	24.5	7.5	5.7	0.0	
	500만원 이상	42.1	19.7	18.4	7.9	11.8	0.0	
학력별	중졸 이하	33.3	20.0	26.7	0.0	20.0	0.0	0.426
	고졸	36.8	22.1	27.4	6.3	7.4	0.0	
	대졸 이상	43.4	18.9	19.4	10.3	8.0	0.0	
직업별	공무원	0.0	0.0	100.0	0.0	0.0	0.0	0.331
	자영업	41.2	17.6	17.6	23.5	0.0	0.0	
	판매 서비스직	22.2	27.8	27.8	5.6	16.7	0.0	
	기능직	53.8	30.8	15.4	0.0	0.0	0.0	
	사무기술직	40.9	23.9	14.8	8.0	12.5	0.0	
	사무관리직	55.2	20.7	17.2	6.9	0.0	0.0	
	전문자유직	53.8	15.4	7.7	15.4	7.7	0.0	
	주부	37.3	11.9	32.2	6.8	11.9	0.0	
	학생	36.7	16.7	30.0	10.0	6.7	0.0	
	무직	35.3	23.5	35.3	5.9	0.0	0.0	

이유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이유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이유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이유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이유 6. 기타

7) 단체급식의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35>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912명중 단체급식에 참여한 총 445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1.5%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는 164명 중 108명만 단체급식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82.4%가 보통 이상을 선택하였다.

〈표 5-35〉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71.5	100.0	4.9	23.6	36.2	29.4	5.8
전문가	82.4	100.0	0.9	16.7	27.8	51.9	2.8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36>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분야별 안전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로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60대 이상, 중부권 거주자,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타 계층에 비해 안전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령군별을 제외하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개 세부영역 중 단체급식에서만 남녀의 체감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다. 연령군별로 60대 이상은 83.3%로 가장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고 20대는 63.2%로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여 20.1% 포인트의 큰 차이가 있었다.

〈표 5-36〉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71.5	—	4.9	23.6	36.2	29.4	5.8
성별	남	71.7	0.585	5.4	22.8	34.4	31.9	5.4
	여	71.0		4.1	24.9	39.1	25.4	6.5
연령군별	20대	63.2	0.028	6.9	29.9	34.5	26.4	2.3
	30대	67.3		8.7	24.0	35.6	28.8	2.9
	40대	73.2		6.2	20.6	35.1	34.0	4.1
	50대	73.6		0.0	26.4	39.6	25.3	8.8
	60대 이상	83.3		1.5	15.2	36.4	33.3	13.6
권역별	수도권	66.4	0.555	4.7	28.9	31.3	31.3	3.9
	영남권	72.2		4.2	23.6	41.0	27.1	4.2
	충부권	77.8		5.6	16.7	37.8	30.0	10.0
	호남권	71.1		6.0	22.9	33.7	30.1	7.2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84.2	0.215	5.3	10.5	47.4	26.3	10.5
	100만원대	60.9		15.2	23.9	34.8	19.6	6.5
	200만원대	71.8		4.2	23.9	28.2	36.6	7.0
	300만원대	64.5		6.5	29.0	33.3	26.9	4.3
	400만원대	74.0		2.6	23.4	42.9	26.0	5.2
	500만원 이상	76.3		2.2	21.6	37.4	33.1	5.8
학력별	중졸 이하	75.0	0.659	0.0	25.0	37.5	37.5	0.0
	고졸	67.4		6.9	25.7	29.9	30.6	6.9
	대졸 이상	73.4		4.1	22.5	39.2	28.7	5.5
직업별	공무원	90.9	0.630	0.0	9.1	18.2	63.6	9.1
	자영업	76.5		8.8	14.7	29.4	38.2	8.8
	판매 서비스직	75.0		4.2	20.8	45.8	16.7	12.5
	기능직	68.2		9.1	22.7	27.3	27.3	13.6
	사무기술직	69.6		4.4	25.9	36.3	28.1	5.2
	사무관리직	72.4		5.2	22.4	34.5	31.0	6.9
	전문자유직	57.1		4.8	38.1	42.9	14.3	0.0
	주부	77.0		3.3	19.7	44.3	26.2	6.6
	학생	63.0		4.3	32.6	30.4	30.4	2.2
	무직	75.8		6.1	18.2	39.4	36.4	0.0

다) 불안 이유

<표 5-37>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불안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보통 미만으로 응답한 총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급식관리자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대상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정부의 관리 미흡’이 21.3%, ‘저급한 식자재를 이용’이 18.1%로 나타났다.

<표 5-37>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127	100.0	19	100.0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41	32.3	12	63.2
정부의 관리 미흡	27	21.3	0	0.0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23	18.1	5	26.3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21	16.5	1	5.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7	5.5	0	0.0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5	3.9	0	0.0
기타	3	2.4	1	5.3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38>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대신 여성은 ‘정부의 관리 미흡’을 남성은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품으로 식중독 발생’을 그 다음 이유로 선택하였다.

20, 40, 50대, 60대 이상은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고, 30대는 ‘정부의 관리 미흡’을 주요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5-38〉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32.3	21.3	5.5	16.5	3.9	18.1	2.4	—
성별	남	32.1	24.4	6.4	11.5	5.1	17.9	2.6	0.540
	여	32.7	16.3	4.1	24.5	2.0	18.4	2.0	
연령군별	20대	31.3	18.8	9.4	21.9	3.1	12.5	3.1	0.406
	30대	29.4	32.4	2.9	20.6	0.0	8.8	5.9	
	40대	30.8	23.1	7.7	7.7	3.8	26.9	0.0	
	50대	37.5	4.2	0.0	16.7	8.3	33.3	0.0	
	60대 이상	36.4	27.3	9.1	9.1	9.1	9.1	0.0	
권역별	수도권	25.6	25.6	7.0	16.3	4.7	18.6	2.3	0.803
	영남권	37.5	15.0	5.0	17.5	5.0	15.0	5.0	
	중부권	45.0	30.0	0.0	10.0	5.0	10.0	0.0	
	호남권	25.0	16.7	8.3	20.8	0.0	29.2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33.3	0.0	33.3	0.0	0.0	33.3	0.0	0.377
	100만원대	50.0	16.7	0.0	22.2	0.0	11.1	0.0	
	200만원대	35.0	20.0	10.0	15.0	0.0	15.0	5.0	
	300만원대	21.2	33.3	9.1	18.2	3.0	15.2	0.0	
	400만원대	25.0	25.0	0.0	10.0	15.0	25.0	0.0	
	500만원 이상	36.4	12.1	3.0	18.2	3.0	21.2	6.1	
학력별	중졸 이하	50.0	0.0	0.0	50.0	0.0	0.0	0.0	0.893
	고졸	34.0	21.3	2.1	19.1	4.3	14.9	4.3	
	대졸 이상	30.8	21.8	7.7	14.1	3.8	20.5	1.3	
직업별	공무원	100.0	0.0	0.0	0.0	0.0	0.0	0.0	0.884
	자영업	37.5	50.0	0.0	0.0	0.0	12.5	0.0	
	판매 서비스직	50.0	16.7	0.0	16.7	0.0	16.7	0.0	
	기능직	14.3	14.3	14.3	42.9	14.3	0.0	0.0	
	사무기술직	19.5	24.4	7.3	17.1	4.9	22.0	4.9	
	사무관리직	31.3	18.8	6.3	6.3	0.0	37.5	0.0	
	전문자유직	44.4	22.2	11.1	11.1	11.1	0.0	0.0	
	주부	42.9	21.4	0.0	28.6	0.0	7.1	0.0	
	학생	41.2	17.6	5.9	11.8	5.9	11.8	5.9	
	무직	37.5	0.0	0.0	25.0	0.0	37.5	0.0	

이유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이유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이유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이유 7. 기타

8)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39>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안전체감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패널 응답자의 60.0%로 7회차 조사 중 처음으로 60%대의 체감도를 보였다. 전문가는 67.7%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5개 세부 영역 중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매우 안전을 선택한 전문가는 전혀 없었고, 패널도 전체의 1.9%만 응답하였다.

<표 5-39>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60.0	100.0	5.4	34.6	38.3	19.8	1.9
전문가	67.7	100.0	2.4	29.9	37.8	29.9	0.0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40>에는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정도에 대해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특성별로 보면 남자, 50대, 영남권 및 중부권 거주, 100만원 미만, 고졸, 무직의 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통계학적으로는 성별, 연령군별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자는 여자보다 8% 포인트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가장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50대는 가장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20대에 비해 20.3% 포인트나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5-40〉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의 세부변수별 분석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60.0	—	5.4	34.6	38.3	19.8	1.9
성별	남	64.0	0.026	4.4	31.6	38.2	23.6	2.2
	여	56.0		6.3	37.7	38.3	16.1	1.5
연령군별	20대	46.7	<.0001	9.6	43.7	28.9	17.0	0.7
	30대	52.6		8.3	39.1	36.5	15.1	1.0
	40대	64.4		4.0	31.7	42.6	19.8	2.0
	50대	67.0		1.0	32.0	43.0	23.5	0.5
	60대 이상	65.0		5.5	29.5	37.2	23.0	4.9
권역별	수도권	55.8	0.460	6.2	38.0	36.0	18.5	1.4
	영남권	63.2		5.1	31.8	37.9	23.8	1.4
	중부권	63.2		3.8	33.0	43.4	18.1	1.6
	호남권	58.4		6.2	35.4	37.3	17.4	3.7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2.0	0.285	2.0	26.0	40.0	24.0	8.0
	100만원대	59.8		7.7	32.5	38.5	17.9	3.4
	200만원대	57.6		5.3	37.1	38.4	17.2	2.0
	300만원대	58.8		6.0	35.2	41.8	15.9	1.1
	400만원대	57.9		5.5	36.6	36.0	21.3	0.6
	500만원 이상	61.0		4.5	34.6	36.2	23.6	1.2
학력별	중졸 이하	60.0	0.614	9.1	30.9	41.8	16.4	1.8
	고졸	63.8		5.3	30.9	39.4	22.2	2.2
	대졸 이상	57.7		5.0	37.2	37.2	18.8	1.7
직업별	공무원	64.3	0.099	0.0	35.7	28.6	35.7	0.0
	자영업	70.0		3.3	26.7	54.4	11.1	4.4
	판매 서비스직	61.8		9.1	29.1	36.4	21.8	3.6
	기능직	66.7		11.1	22.2	30.6	33.3	2.8
	사무기술직	57.7		5.0	37.4	37.8	19.4	0.5
	사무관리직	58.8		6.1	35.1	30.7	25.4	2.6
	전문자유직	48.5		6.1	45.5	36.4	12.1	0.0
	주부	57.6		4.9	37.4	39.9	16.3	1.5
	학생	53.2		5.2	41.6	29.9	22.1	1.3
	무직	70.6		4.4	25.0	44.1	23.5	2.9

다) 불안 이유

<표 5-41>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패널의 26.3%가 ‘식품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은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정부의 현장 감시 미흡’,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4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65	100.0	53	100.0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96	26.3	17	32.1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94	25.8	8	15.1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63	17.3	6	11.3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47	12.9	17	32.1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38	10.4	2	3.8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24	6.6	2	3.8
기타	3	0.8	1	1.9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42>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령군별로 30대 이하의 경우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를 주된 불안 이유로 선택하였으나 40대 이상은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여 차이가 있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는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과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고졸은 ‘식품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과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을, 대졸 이상은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를 선택하여 차이가 있었다. 두 세부변수에 대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2〉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26.3	17.3	6.6	25.8	10.4	12.9	0.8	—
성별	남	27.0	19.6	6.1	22.7	10.4	12.3	1.8	0.427
	여	25.7	15.3	6.9	28.2	10.4	13.4	0.0	
연령군별	20대	15.3	15.3	8.3	27.8	11.1	19.4	2.8	0.028
	30대	17.6	17.6	6.6	36.3	11.0	9.9	1.1	
	40대	26.4	23.6	5.6	22.2	15.3	6.9	0.0	
	50대	43.9	13.6	6.1	15.2	6.1	15.2	0.0	
	60대 이상	32.8	15.6	6.3	23.4	7.8	14.1	0.0	
권역별	수도권	24.8	19.4	9.3	27.9	4.7	13.2	0.8	0.308
	영남권	31.4	12.7	4.9	27.5	11.8	11.8	0.0	
	충부권	26.9	16.4	6.0	22.4	14.9	10.4	3.0	
	호남권	20.9	20.9	4.5	22.4	14.9	16.4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4.3	14.3	14.3	21.4	28.6	7.1	0.0	0.324
	100만원대	31.9	19.1	2.1	19.1	6.4	19.1	2.1	
	200만원대	26.6	14.1	3.1	28.1	12.5	15.6	0.0	
	300만원대	17.3	17.3	9.3	28.0	12.0	16.0	0.0	
	400만원대	29.0	18.8	5.8	33.3	10.1	1.4	1.4	
	500만원 이상	30.2	17.7	8.3	20.8	7.3	14.6	1.0	
학력별	중졸 이하	27.3	0.0	9.1	18.2	18.2	27.3	0.0	0.011
	고졸	25.0	25.0	3.4	20.7	6.9	17.2	1.7	
	대졸 이상	26.9	15.0	7.9	29.1	11.5	9.3	0.4	
직업별	공무원	80.0	0.0	0.0	20.0	0.0	0.0	0.0	0.154
	자영업	33.3	18.5	7.4	14.8	3.7	22.2	0.0	
	판매 서비스직	23.8	28.6	0.0	28.6	4.8	14.3	0.0	
	기능직	16.7	25.0	16.7	33.3	0.0	8.3	0.0	
	사무기술직	22.3	20.2	10.6	23.4	9.6	11.7	2.1	
	사무관리직	44.7	14.9	6.4	21.3	4.3	8.5	0.0	
	전문자유직	23.5	5.9	0.0	41.2	17.6	5.9	5.9	
	주부	25.6	15.1	3.5	26.7	14.0	15.1	0.0	
	학생	11.1	19.4	2.8	27.8	19.4	19.4	0.0	
	무직	20.0	10.0	15.0	35.0	15.0	5.0	0.0	

이유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이유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유 6. 저가의 수입품 대한 안전성 우려

이유 7. 기타

9) 정책현안

가) 현안

<표 5-43>에는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42.4%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법 등 법, 규정의 개선’을 27.4%의 대상자가 선택하여 그 뒤를 이었다. ‘정부발표의 신뢰성 강화’가 14.6%,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9.1%를 차지하였으며,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5.0%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5-43>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12	100.0	164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387	42.4	62	37.8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250	27.4	29	17.7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133	14.6	36	22.0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83	9.1	21	12.8
정부 정책 홍보 강화	46	5.0	7	4.3
기타	13	1.4	9	5.5

나) 세부변수별 현안

<표 5-44>에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를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였다.

성별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을 현안으로 선택한 비율이 8.4% 포인트 높았다. 직업별로 학생의 경우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와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을 같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두 세부변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44〉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단위: %)

구분		현안1	현안2	현안3	현안4	현안5	현안6	p
합계		14.6	27.4	42.4	5.0	9.1	1.4	—
성별	남	15.7	23.2	44.2	5.5	9.1	2.4	0.016
	여	13.5	31.6	40.7	4.6	9.2	0.4	
연령군별	20대	15.6	35.6	37.8	4.4	5.2	1.5	0.1
	30대	14.6	31.3	40.1	4.2	6.8	3.1	
	40대	11.4	25.7	45.0	4.0	12.4	1.5	
	50대	17.0	24.5	41.0	8.0	9.0	0.5	
	60대 이상	14.8	22.4	47.0	4.4	10.9	0.5	
권역별	수도권	14.7	26.7	44.9	4.1	8.2	1.4	0.964
	영남권	13.4	28.5	41.5	5.8	9.0	1.8	
	중부권	17.0	24.2	40.7	4.9	11.5	1.6	
	호남권	13.7	30.4	41.6	5.6	8.1	0.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6.0	16.0	38.0	8.0	18.0	4.0	0.275
	100만원대	17.9	28.2	40.2	3.4	8.5	1.7	
	200만원대	13.9	29.1	43.0	4.0	7.9	2.0	
	300만원대	13.7	29.7	35.7	6.6	12.6	1.6	
	400만원대	14.6	29.3	45.1	3.7	6.7	0.6	
	500만원 이상	13.8	25.6	47.2	5.3	7.3	0.8	
학력별	중졸 이하	16.4	23.6	40.0	9.1	10.9	0.0	0.386
	고졸	16.3	30.3	37.5	5.9	8.8	1.3	
	대졸 이상	13.4	26.1	45.6	4.1	9.1	1.7	
직업별	공무원	14.3	14.3	50.0	7.1	14.3	0.0	0.006
	자영업	13.3	26.7	34.4	8.9	16.7	0.0	
	판매 서비스직	14.5	16.4	49.1	3.6	16.4	0.0	
	기능직	16.7	19.4	41.7	13.9	5.6	2.8	
	사무기술직	14.0	26.1	47.3	2.7	9.0	0.9	
	사무관리직	21.1	29.8	38.6	3.5	6.1	0.9	
	전문자유직	6.1	30.3	51.5	3.0	6.1	3.0	
	주부	12.3	32.0	39.9	6.4	8.9	0.5	
	학생	16.9	35.1	35.1	6.5	3.9	2.6	
	무직	14.7	20.6	48.5	1.5	7.4	7.4	

현안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현안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현안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현안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현안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현안 6. 기타

나. 부가 조사

1) 불량 식품 근절

가) 인지도

<표 5-45>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널 912명의 85.6%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7회차 중 가장 높아 정책의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전문가 164명 중 96.3%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패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5-45〉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보통 이상	합계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85.6	100.0	1.1	13.3	48.7	33.6	3.4
전문가	96.3	100.0	0.6	3.0	29.3	56.1	11.0

나) 인지도 세부분석

<표 5-46>에는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60대 이상, 영남권, 400만원대, 대졸 이상, 무직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증가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변수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46〉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합계		85.6	—	1.1	13.3	48.7	33.6	3.4
성별	남	87.0	0.324	1.3	11.7	47.2	35.8	4.0
	여	84.3		0.9	14.8	50.1	31.4	2.8
연령군별	20대	76.3	<.0001	3.0	20.7	46.7	28.1	1.5
	30대	82.3		2.6	15.1	50.5	30.2	1.6
	40대	87.6		0.0	12.4	49.5	36.1	2.0
	50대	86.5		0.5	13.0	52.0	31.5	3.0
	60대 이상	92.9		0.0	7.1	43.7	40.4	8.7
권역별	수도권	84.9	0.298	2.4	12.7	44.5	36.3	4.1
	영남권	87.7		0.7	11.6	52.7	31.8	3.2
	중부권	85.2		0.0	14.8	52.2	30.2	2.7
	호남권	83.9		0.6	15.5	45.3	35.4	3.1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84.0	0.164	2.0	14.0	62.0	16.0	6.0
	100만원대	83.8		0.9	15.4	51.3	29.9	2.6
	200만원대	86.1		0.7	13.2	52.3	31.1	2.6
	300만원대	85.2		0.0	14.8	47.3	34.1	3.8
	400만원대	89.6		0.6	9.8	52.4	36.0	1.2
	500만원 이상	84.1		2.4	13.4	40.7	38.6	4.9
학력별	중졸 이하	85.5	0.264	0.0	14.5	61.8	21.8	1.8
	고졸	83.4		0.9	15.6	48.1	32.8	2.5
	대졸 이상	87.0		1.3	11.7	47.7	35.2	4.1
직업별	공무원	92.9	0.052	0.0	7.1	50.0	42.9	0.0
	자영업	87.8		0.0	12.2	55.6	30.0	2.2
	판매 서비스직	81.8		3.6	14.5	60.0	18.2	3.6
	기능직	94.4		0.0	5.6	55.6	38.9	0.0
	사무기술직	82.4		2.7	14.9	43.7	36.9	1.8
	사무관리직	89.5		0.0	10.5	44.7	38.6	6.1
	전문자유직	84.8		0.0	15.2	36.4	42.4	6.1
	주부	85.7		0.0	14.3	49.8	32.0	3.9
	학생	76.6		2.6	20.8	48.1	27.3	1.3
	무직	94.1		0.0	5.9	52.9	33.8	7.4

다)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

<표 5-47>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5.1%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20.7%),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0.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47〉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12	100.0	164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11	45.1	54	32.9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89	20.7	46	28.0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85	20.3	50	30.5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68	7.5	4	2.4
정부의 단속 소홀	58	6.4	8	4.9
기타	1	0.1	2	1.2

라)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5-48>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불량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공무원만 유일하게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을 첫 번째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5-48〉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5.1	20.3	20.7	7.5	6.4	0.1	—
성별	남	42.2	21.2	22.7	6.2	7.5	0.2	0.124
	여	47.9	19.4	18.7	8.7	5.2	0.0	
연령군별	20대	37.0	11.9	28.1	15.6	7.4	0.0	0.008
	30대	42.7	21.9	22.9	6.8	5.2	0.5	
	40대	44.1	23.3	19.3	6.4	6.9	0.0	
	50대	49.5	20.0	21.0	4.5	5.0	0.0	
	60대 이상	49.7	21.9	14.2	6.6	7.7	0.0	
권역별	수도권	45.2	21.2	19.2	9.6	4.5	0.3	0.097
	영남권	41.5	22.4	24.5	6.1	5.4	0.0	
	중부권	50.5	13.7	20.9	7.7	7.1	0.0	
	호남권	44.7	22.4	16.8	5.6	10.6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0.0	10.0	20.0	6.0	14.0	0.0	0.695
	100만원대	45.3	22.2	16.2	10.3	5.1	0.9	
	200만원대	46.4	19.9	19.9	7.3	6.6	0.0	
	300만원대	47.3	22.0	22.5	3.8	4.4	0.0	
	400만원대	43.9	19.5	21.3	9.1	6.1	0.0	
	500만원 이상	42.3	21.1	21.5	8.1	6.9	0.0	
학력별	중졸 이하	49.1	20.0	10.9	7.3	12.7	0.0	0.212
	고졸	48.1	20.6	17.2	8.1	5.9	0.0	
	대졸 이상	42.8	20.1	23.8	7.1	6.0	0.2	
직업별	공무원	35.7	0.0	64.3	0.0	0.0	0.0	<.0001
	자영업	54.4	20.0	11.1	1.1	13.3	0.0	
	판매 서비스직	43.6	20.0	29.1	3.6	3.6	0.0	
	기능직	38.9	33.3	13.9	5.6	8.3	0.0	
	사무기술직	46.4	18.0	22.5	7.7	5.4	0.0	
	사무관리직	40.4	25.4	21.9	7.0	5.3	0.0	
	전문자유직	39.4	21.2	12.1	24.2	3.0	0.0	
	주부	47.3	23.6	18.2	6.9	3.9	0.0	
	학생	37.7	14.3	26.0	10.4	11.7	0.0	
	무직	47.1	13.2	19.1	11.8	7.4	1.5	

이유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이유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이유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이유 5. 정부의 단속 소홀

이유 6. 기타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2016년 하반기 패널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5-49>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5년 하반기 79.6%에 비해 5.0% 포인트 안전체감도가 증가하였으며 세부영역별로도 모두 50% 이상의 안전체감도를 보여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감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식품 안전은 6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역대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였고 학교 주변 판매식품도 처음으로 60%대의 체감도를 보였다. 다섯가지 세부영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5-49>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패널)

(단위 :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	84.6	912	1.3	14.0	51.4	31.5	1.8
수입식품 안전	58.7	912	5.3	36.1	36.7	20.8	1.1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68.6	912	2.4	28.9	40.1	26.5	2.0
외식 안전	68.8	912	2.7	28.5	43.1	24.5	1.2
단체급식 안전	71.5	445	4.9	23.6	36.2	29.4	5.8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60.0	912	5.4	34.6	38.3	19.8	1.9

나. 2016년 하반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5-5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문가의 경우에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을 가장 낮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식품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패널에 비해 전체 영역에서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표 5-50〉 2016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전문가)

(단위 :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	89.6	164	2.4	7.9	40.2	48.2	1.2
수입식품 안전	68.3	164	3.0	28.7	34.8	30.5	3.0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84.1	164	0.0	15.9	29.3	48.8	6.1
외식 안전	75.6	164	1.8	22.6	43.3	32.3	0.0
단체급식 안전	82.4	108	0.9	16.7	27.8	51.9	2.8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67.7	164	2.4	29.9	37.8	29.9	0.0

다. 남자, 40대 이상, 공무원/무직/자영업, 100만원 미만 및 500만원 이상 소득, 중부권, 고졸 조사대상계층의 식품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여자, 20~30대, 100만원대 소득, 수도권, 사무기술직/학생 계층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라. 여성, 중졸이하층과 40대 이하 연령층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40대 이상 연령층과 차별화 된 것은 작년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체감도가 낮아지다가 100만원대에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V자 형태의 분포를 보인 경향 역시 작년과 동일하였다.

마. 전문가의 식품안전체감도가 89.6%로 84.6%인 패넬보다 5%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10.8% 포인트 차이가 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준 것으로 확인된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성에 의한 체감을 하는 전문가와 경험 등에 의한 감성에 의한 체감을 하는 일반인 패넬 사이의 인식의 간극이 줄어들어 소통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10가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5-51>에 나타났다.

○ HACCP 적용 확대, 나트륨 정책, 영양표시, 알레르기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등에서 추진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 추진정도가 높게 조사된 정책들은 타 정책에 비해 정책홍보 및 실제 활용도가 높은 정책들로 판단되었다.

○ 전문가는 모든 정책에 대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표 5-51> 2016년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비교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6 상반기	'16 하반기	'16 상반기	'16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17.9	16.0	21.1	24.1
나트륨 줄이기 운동	13.6	13.6	11.4	16.9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12.9	12.1	12.3	16.9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10.5	10.6	10.4	14.4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9.9	9.1	9.0	13.2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에게 정보(음식점, 부적합 등) 공개	8.6	8.6	12.3	14.2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7.5	9.3	4.9	8.4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농약, 중금속 등) 강화	7.1	7.7	5.3	10.9
부적합한 식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제품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6.9	5.4	7.7	10.7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4.3	7.0	5.1	10.7
기타	0.8	0.6	0.5	0.0

2. 시사점

가. 식품안전체감도의 상승

- 2013년 하반기에 처음 패널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한 식품안전체감도가 상하반기 미미한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식품안전체감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상승 원인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조사가 거듭되면서 패널들의 조사에 대한 학습효과가 더해진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지지율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고, 세번째는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해당부처의 노력도 한몫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식품안전분야의 독립성 확보

- 2016년 하반기 시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식품안전체감도가 최근 형성된 국가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안전에 대한 독자적 안전체감도를 조사대상 패널들은 산출하였다. 이는 식품 안전 분야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한 것으로 예단해도 될 조사결과라 보였다.

제 6 장

2016년을 포함한 연도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제1절 조사 계획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6

2016년을 포함한 연도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제1절 조사계획

1. 조사대상자

<표 6-1>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식품패널 811명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4장과 제5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반기 조사에는 952명, 하반기 조사에는 912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이 중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811명의 패널만을 대상으로 2016년 상·하반기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6-1> 2016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패널)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811	410	66	93	93	91	67	401	64	87	95	90	65
수도권	256	130	20	29	30	29	22	126	20	31	31	29	15
영남권	252	125	21	28	29	28	19	127	18	28	30	28	23
충부권	161	81	13	18	18	18	14	80	13	17	19	17	14
호남권	142	74	12	18	16	16	12	68	13	11	15	16	13

<표 6-2>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전문가 143명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4장과 제5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반기 조사에는 174명, 하반기 조사에는 164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이 중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4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6년 상·하반기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6-2〉 2016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전문가)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43	82	0	19	24	30	9	61	4	19	20	13	5
수도권	101	56	0	13	16	20	7	45	3	16	13	10	3
영남권	13	7	0	3	1	3	0	6	1	1	1	1	2
중부권	15	11	0	2	6	2	1	4	0	0	3	1	0
호남권	14	8	0	1	1	5	1	6	0	2	3	1	0

2. 조사 성공률

<표 6-3>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식품패널 811명의 현황을 하반기 목표 대비 비율로 표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연령군별로는 30대가 2회 모두 참여한 식품패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권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연속 참여 비율이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6-3〉 2016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패널의 목표대비 비율

(단위: %)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84.3	84.5	77.6	91.2	86.1	89.2	76.1	84.1	84.2	89.7	88.8	88.2	68.4
수도권	82.1	82.3	69.0	80.6	85.7	90.6	84.6	81.8	80.0	91.2	88.6	87.9	55.6
영남권	85.7	83.9	75.0	96.6	85.3	90.3	70.4	87.6	85.7	93.3	90.9	90.3	76.7
중부권	84.7	86.2	86.7	94.7	85.7	85.7	77.8	83.3	81.3	89.5	90.5	85.0	70.0
호남권	85.5	88.1	92.3	100.0	88.9	88.9	70.6	82.9	92.9	78.6	83.3	88.9	72.2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6-4>에는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식품패널 811명과 전문가 143명의 일반적 특성이 분석되어 있다.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그룹이 가장 많았고 (20.5%), 100만원 미만 그룹이 가장 적었다(5.1%)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이 6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졸이 33.8%, 중졸 이하는 4.7%에 불과하였다.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이 25.4%로 가장 많았고, 주부가 20.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사무관리직의 비율도 13.4%였고, 공무원과 기능직 및 전문자유직은 각각 1.7%와 3.7%, 3.8%로 적은 수준이었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상, 대졸이상 층의 조사계속 참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기술직과 주부의 지속 참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패널		전문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합계		811	100.0	143	100.0
소득수준 ¹⁾	100만원 미만	41	5.1	0	0.0
	100만원대	96	11.8	1	0.7
	200만원대	130	16.0	12	8.5
	300만원대	166	20.5	11	7.7
	400만원대	149	18.4	32	22.5
	500만원 이상	228	28.1	86	60.6
교육수준	중졸 이하	38	4.7	0	0.0
	고졸	274	33.8	0	0.0
	대졸 이상	499	61.5	143	100.0
직업분류	공무원	14	1.7	14	9.8
	자영업	68	8.4	1	0.7
	판매 서비스직	49	6.0	4	2.8
	기능직	30	3.7	0	0.0
	사무기술직	206	25.4	35	24.5
	사무관리직	109	13.4	41	28.7
	전문자유직	31	3.8	48	33.6
	주부	167	20.6	0	0.0
	학생	76	9.4	0	0.0
	무직	61	7.5	0	0.0

주)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안함인 1명 있어 패널 응답자 수가 810명, 전문가 응답자 수가 142명임

제2절 조사결과

1. 기본조사

가. 전체 식품안전체감도

<표 6-5>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일곱 번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조사한 네 번의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6-5〉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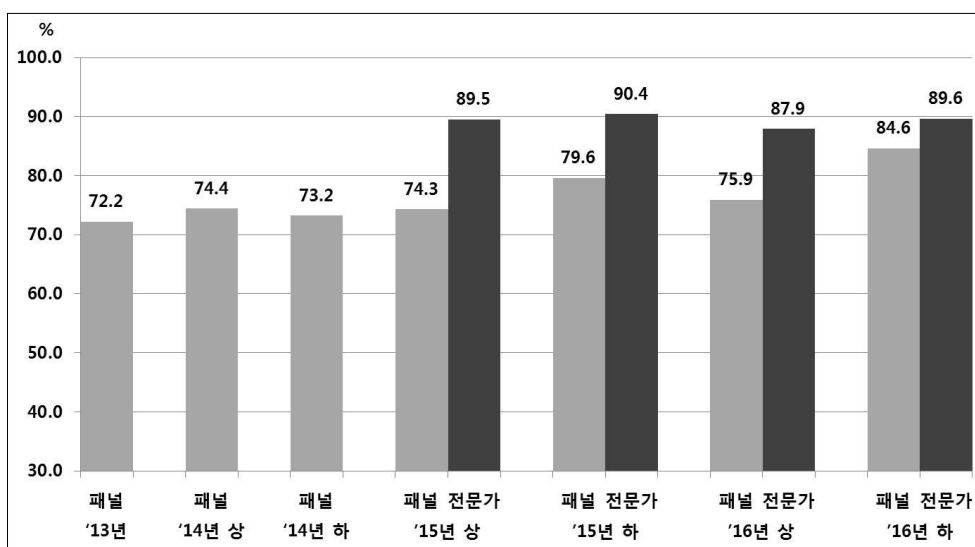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72.2	928	2.1	25.8	54.0	17.2	1.0
	‘14년 상반기 조사	74.4	970	1.1	24.4	49.2	24.1	1.1
	‘14년 하반기 조사	73.2	974	1.9	25.0	48.5	24.3	0.4
	‘14년 상·하반기 평균	73.8	—	1.5	24.7	48.9	24.2	0.8
	‘15년 상반기 조사	74.3	995	1.8	23.9	53.4	20.2	0.7
	‘15년 하반기 조사	79.6	984	1.1	19.3	53.0	26.2	0.4
	‘15년 상·하반기 평균	77.0	—	1.5	21.6	53.2	23.2	0.6
	‘16년 상반기 조사	75.9	952	2.4	21.6	53.5	22.1	0.4
	‘16년 하반기 조사	84.6	912	1.3	14.0	51.4	31.5	1.8
	‘16년 상·하반기 평균	80.3	—	1.9	17.8	52.5	26.8	1.1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89.5	162	1.2	9.3	45.7	41.4	2.5
	‘15년 하반기 조사	90.4	166	0.6	9.0	37.4	50.0	3.0
	‘15년 상·하반기 평균	90.0	—	0.9	9.2	41.6	45.7	2.8
	‘16년 상반기 조사	87.9	174	0.0	12.1	41.4	44.3	2.3
	‘16년 하반기 조사	89.6	164	2.4	7.9	40.2	48.2	1.2
	‘16년 상·하반기 평균	88.8	—	1.2	1.0	40.8	46.3	1.8

해당년의 식품안전체감도는 2015년부터 하반기 조사결과를 활용하기로 한 기준에 따라 연도별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2016년 2회에 걸쳐 전년도 결과에 비해 큰 폭으로 식품안전체감도가 증가하여 2016년의 안전체감도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84.6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2015년에 비하여 2016년은 0.8%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패널에 비해 전문가의 안전체감도가 상·하반기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패널과 전문가의 체감도 인식 수준 차이가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1]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1]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1) 패널

<표 6-6>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11명 패널을 대상으로 각 세부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비교에 용이하도록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매우 불안은 20점, 불안은 40점, 보통은 60점, 안전은 80점, 매우 안전은 100점씩 등간격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대부분 구분에서 상반기 조사보다 하반기 조사의 체감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상·하반기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던 집단은 연령군별 20대, 소득수준별 100만원 미만, 학력별 중졸 이하, 직업별 공무원, 사무기술직, 전문자유직, 주부, 학생, 무직이었다.

남성의 경우 하반기에 약 4.4점, 여성은 4.1점 상승하였으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영남권은 4.9점, 수도권은 3.6점 상승하였다. 200만원대 소득수준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경우 5.1점, 100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 3.4점 상승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 0.5점 하락하였고, 고졸인 경우 6.1점 상반기보다 상승하였다. 직업별로는 판매 서비스직인 경우 상하반기에 비해 10.6점 상승하였고, 주부는 3.1점, 사무기술직은 1.8점 안전 체감도의 상승이 확인되었다.

〈표 6-6〉 2016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11	59.6	14.7	63.9	14.5	<.001
성별	남	410	61.3	15.4	65.7	15.0	<.001
	여	401	57.9	13.7	62.0	13.8	<.001
연령군별	20대	130	58.6	14.6	60.5	15.0	0.222
	30대	180	56.0	14.2	60.9	14.2	<.001
	40대	188	61.0	15.7	65.5	14.5	<.001
	50대	181	60.7	13.8	65.6	13.2	<.001
	60대 이상	132	62.1	14.3	66.5	15.1	0.003
권역별	수도권	256	59.7	14.9	63.3	15.1	<.001
	영남권	252	58.9	14.4	63.8	14.8	<.001
	중부권	161	60.5	14.5	64.5	13.2	0.001
	호남권	142	59.7	15.1	64.4	14.5	<.001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1	58.0	14.0	61.5	15.7	0.255
	100만원대	96	57.7	14.5	61.5	16.2	0.028
	200만원대	130	58.6	15.6	63.7	14.7	<.001

	300만원대	166	57.8	14.4	61.8	14.1	0.001
	400만원대	149	60.3	14.9	64.4	13.1	0.002
	500만원 이상	228	62.1	14.1	66.6	14.3	<.001
학력별	중졸 이하	38	60.5	13.5	60.0	14.7	0.860
	고졸	274	58.5	14.5	64.6	14.8	<.001
	대졸 이상	499	60.1	14.9	63.8	14.3	<.001
직업별	공무원	14	62.9	13.3	68.6	10.3	0.165
	자영업	68	60.0	15.8	66.5	12.7	0.003
	판매 서비스직	49	53.1	16.6	63.7	15.6	<.001
	기능직	30	57.3	14.6	66.7	15.2	0.003
	사무기술직	206	60.2	14.4	62.0	14.8	0.066
	사무관리직	109	62.4	15.1	67.0	16.4	0.002
	전문자유직	31	58.7	14.5	61.3	12.6	0.380
	주부	167	59.3	12.4	62.4	13.0	0.009
	학생	76	58.7	16.1	62.4	15.7	0.061
	무직	61	60.3	15.3	66.6	13.5	0.003

주) paired t-test

2) 전문가

<표 6-7>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143명 전문가 대상으로,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 상하반기 조사 간 안전체감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군별, 권역별, 소득별, 학력별, 직업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집단에서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준별 200만원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 집단의 안전체감도는 상반기에 비해 13.3점 상승하였다.

〈표 6-7〉 2016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43	67.7	14.4	68.0	15.4	0.834
성별	남	82	72.4	13.2	71.2	13.7	0.449
	여	61	61.3	13.6	63.6	16.5	0.311
연령군별	20대	4	65.0	10.0	60.0	16.3	0.391
	30대	38	61.6	14.2	64.7	15.7	0.262
	40대	44	68.2	16.3	65.9	17.0	0.375
	50대	43	69.8	11.8	71.6	13.3	0.421
	60대 이상	14	77.1	10.7	74.3	12.2	0.435
권역별	수도권	101	66.9	14.3	67.9	16.3	0.538
	영남권	13	69.2	13.2	67.7	10.1	0.721
	중부권	15	72.0	16.6	68.0	14.7	0.189
	호남권	14	67.1	14.9	68.6	15.1	0.79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0	—	—	—	—	—
	100만원대	1	60.0	—	40.0	—	—
	200만원대	12	58.3	18.0	71.7	13.4	0.025
	300만원대	11	65.5	9.3	65.5	9.3	.
	400만원대	32	68.1	15.1	65.6	14.6	0.423
	500만원 이상	86	69.5	13.6	69.1	16.4	0.779
학력별	중졸 이하	0	—	—	—	—	—
	고졸	0	—	—	—	—	—
	대졸 이상	143	67.7	14.4	68.0	15.4	0.834
직업별	공무원	14	65.7	14.5	72.9	9.9	0.137
	자영업	1	60.0	—	80.0	—	—
	판매 서비스직	4	60.0	16.3	60.0	16.3	1.000
	기능직	0	—	—	—	—	—
	사무기술직	35	65.1	14.0	64.0	18.0	0.701
	사무관리직	41	72.2	15.4	70.7	14.9	0.555
	전문자유직	48	67.1	13.4	67.5	14.7	0.844
	주부	0	—	—	—	—	—
	학생	0	—	—	—	—	—
	무직	0	—	—	—	—	—

주) paired t-test

나. 세부영역별 안전체감도

1) 총괄 현황

가) 회차별 안전체감도 비교

<표 6-8>에는 식품안전체감도 세부영역에 대해 패널 조사결과를 총 7회차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수입식품 안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5회차에 급증 후 하락, 7회차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은 지속적으로 낮은 체감도를 보이던 영역이었으나 7회차 무려 10%가량 증가하여 60.0%로 수입식품 안전보다 더 높은 체감도를 나타냈다. 외식, 단체급식 안전체감도는 4회차에 하락 후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대비 수입식품 안전, 학교주변 판매 식품에서 증가하였고, 그 외 3개 영역(제조유통식품, 외식, 단체급식)에서는 감소하였다.

〈표 6-8〉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단위: %)

구분	회차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수입식품 안전	1차	52.9	928	7.8	39.3	42.4	9.7	0.9
	2차	52.1	970	5.9	42.1	41.0	10.7	0.3
	3차	51.5	974	7.9	40.6	38.8	12.3	0.4
	2, 3차 평균	51.8	—	6.9	41.4	39.9	11.5	0.4
	4차	51.3	995	5.0	43.7	37.5	13.4	0.4
	5차	56.6	984	5.2	38.2	41.1	14.9	0.6
	4, 5차 평균	54.0	—	5.1	41.0	39.3	14.2	0.5
	6차	51.6	952	6.2	42.2	39.0	12.1	0.5
	7차	58.7	912	5.3	36.1	36.7	20.8	1.1
제조·유통 식품 안전	6, 7차 평균	55.2	—	5.8	39.2	37.9	16.5	0.8
	1차	79.4	928	1.4	19.2	54.0	24.6	0.9
	2차	77.5	970	1.4	21.0	57.4	19.8	0.3
	3차	78.8	974	1.3	19.9	56.3	21.9	0.6
	2, 3차 평균	78.2	—	1.4	20.5	56.9	20.9	0.5
	4차	69.1	995	2.2	28.6	46.3	22	0.8
	5차	70.7	984	1.6	27.6	49.5	20.3	0.9
	4, 5차 평균	69.9	—	1.9	28.1	47.9	21.2	0.9
	6차	65.7	952	2.0	32.4	47.6	17.6	0.4
	7차	68.6	912	2.4	28.9	40.1	26.5	2.0
	6, 7차 평균	67.2	—	2.2	30.7	43.9	22.1	1.2

외식 안전	1차	74.5	928	2.6	23.0	58.0	16.1	0.4
	2차	69.8	970	2.2	28.0	54.9	14.4	0.5
	3차	74.9	974	1.5	23.6	57.9	16.4	0.5
	2, 3차 평균	72.4	—	1.9	25.8	56.4	15.4	0.5
	4차	68.7	995	3.5	27.7	51.6	16.7	0.5
	5차	67.8	984	2.4	29.8	48.7	18.7	0.4
	4, 5차 평균	68.3	—	3.0	28.8	50.2	17.7	0.5
	6차	68.1	952	2.3	29.6	52.7	14.9	0.4
	7차	68.8	912	2.7	28.5	43.1	24.5	1.2
	6, 7차 평균	68.5	—	2.5	29.1	47.9	19.7	0.8
단체급식 안전	1차	73.4	928	2.4	24.3	46.4	25.8	1.2
	2차	75.7	970	2.5	21.8	42.1	31.8	1.8
	3차	81.3	974	2.7	16.0	45.1	32.8	3.3
	2, 3차 평균	78.5	—	2.6	18.9	43.6	32.3	2.6
	4차	77.2	474	2.3	20.5	41.8	32.5	3
	5차	74.2	507	3.0	22.9	40.0	32.0	2.2
	4, 5차 평균	75.7	—	2.7	21.7	40.9	32.3	2.6
	6차	70.3	505	4.0	25.7	38.4	28.7	3.2
	7차	71.5	445	4.9	23.6	36.2	29.4	5.8
	6, 7차 평균	70.9	—	4.5	24.7	37.3	29.1	4.5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1차	43.0	928	11.1	45.9	34.2	8.4	0.4
	2차	47.7	970	6.3	46.0	36.8	10.6	0.3
	3차	51.6	974	5.7	42.7	38.0	12.9	0.7
	2, 3차 평균	49.7	—	6.0	44.4	37.4	11.8	0.5
	4차	45.6	995	6.3	48	38	7.2	0.4
	5차	51.5	984	6.2	42.3	41.0	10.4	0.2
	4, 5차 평균	48.6	—	6.3	45.2	39.5	8.8	0.3
	6차	49.8	952	5.9	44.3	39.9	9.5	0.4
	7차	60.0	912	5.4	34.6	38.3	19.8	1.9
	6, 7차 평균	54.9	—	5.7	39.5	39.1	14.7	1.2

주) 1차 조사: 2013년 11월

2차 조사: 2014년 6월~7월

3차 조사: 2014년 11월~12월

4차 조사: 2015년 6월~7월

5차 조사: 2015년 11월~12월

6차 조사: 2016년 6월

7차 조사: 2016년 11월~12월

나) 회차별 평균값 비교

<표 6-9>에는 7회차에 걸친 세부영역별 평균 안전체감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가 조사는 2015년부터 조사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2015년, 2016년 4회 조사 결과가 제시되었다.

〈표 6-9〉 세부영역별 2014년, 2015년,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평균값 비교

(단위: %)

구분	'15년 대비 증감	패널										전문가			
		2016년			2015년			2014년			13년	2016년		2015년	
		평균	하	상	평균	하	상	평균	하	상		하	상	하	상
수입식품 안전	2.1	55.2	58.7	51.6	54.0	56.6	51.3	51.8	51.5	52.1	52.9	68.3	62.1	72.9	65.4
제조·유통 식품 안전	-2.1	67.2	68.6	65.7	69.9	70.7	69.1	78.2	78.8	77.5	79.4	84.1	88.5	86.8	85.2
외식 안전	1.0	68.5	68.8	68.1	68.3	67.8	68.7	72.4	74.9	69.8	74.5	75.6	77.0	78.9	74.7
단체급식 안전	-2.7	70.9	71.5	70.3	75.7	74.2	77.2	78.5	81.3	75.7	73.4	82.4	88.9	86.0	89.5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8.5	54.9	60.0	49.8	48.6	51.5	45.6	49.7	51.6	47.7	43.0	67.7	58.6	72.3	60.5

2015년 대비 제조·유통식품 안전 분야, 단체급식 안전 분야에서 안전체감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2015년의 ‘백수오 사건’ 및 ‘가공육의 발암성에 대한 WHO 발표’ 영향 등으로 제조·가공식품분야의 안전체감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더하여 올해 하반기 ‘사골곰탕 사건’의 영향으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급식사고, 여름 발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 실태점검 결과의 영향 등으로 단체급식분야의 안전체감도는 2015년에 비하여 2.7점 하락하여 역대 최저값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학교주변 판매식품분야는 해당부처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8.5점의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2) 수입식품의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6-10>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해 패넬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넬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7회차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전문가 조사결과는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4회차의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6-10〉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52.9	928	7.8	39.3	42.4	9.7	0.9
	‘14년 상반기 조사	52.1	970	5.9	42.1	41.0	10.7	0.3
	‘14년 하반기 조사	51.5	974	7.9	40.6	38.8	12.3	0.4
	‘15년 상반기 조사	51.3	995	5.0	43.7	37.5	13.4	0.4
	‘15년 하반기 조사	56.6	984	5.2	38.2	41.1	14.9	0.6
	‘16년 상반기 조사	51.6	952	6.2	42.2	39.0	12.1	0.5
	‘16년 하반기 조사	58.7	912	5.3	36.1	36.7	20.8	1.1
	‘16년 상·하반기 평균	55.2	—	5.8	39.2	37.9	16.5	0.8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65.4	162	1.2	33.3	44.4	19.1	1.9
	‘15년 하반기 조사	72.9	166	2.4	24.7	50.0	20.5	2.4
	‘16년 상반기 조사	62.1	174	0.6	37.4	41.4	20.1	0.6
	‘16년 하반기 조사	68.3	164	3.0	28.7	34.8	30.5	3.0
	‘16년 상·하반기 평균	65.2	—	1.8	33.1	38.1	25.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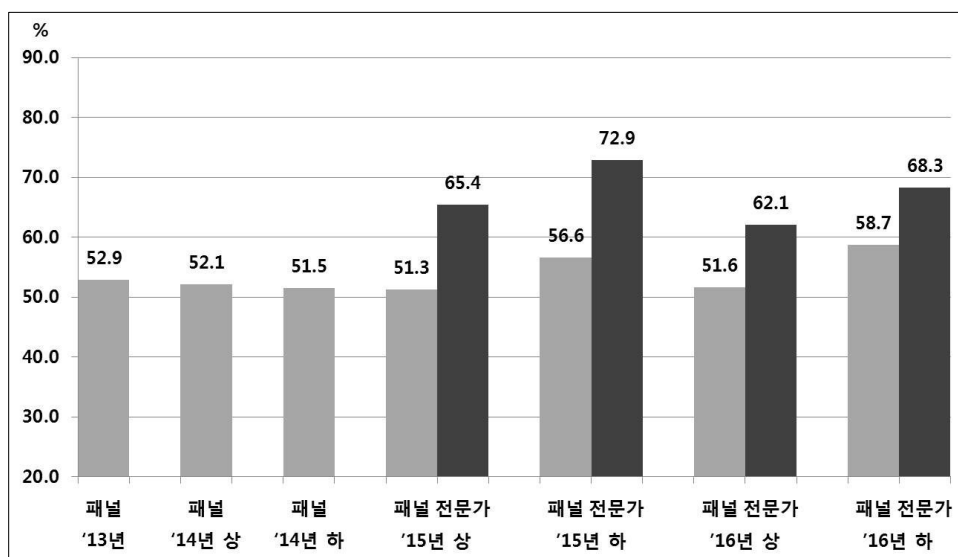
연도별로는 2015년 대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1%포인트 증가하였다. 안전의 비율은 5.9%포인트 상승하였고 ‘불안’의 비율은 2.1%포인트 감소하고, ‘매우

불안'의 비율은 0.1%포인트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전'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불안' 응답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6.2%포인트 상승하였지만, 2015년 대비 4.6%포인트 하락하였다. 전문가의 안전체감도가 패널보다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2]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세부변수별

<표 6-11>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11명 패널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대부분의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 여 모두 3점 이상 상승하였다. 연령군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연령이 높은 그룹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4점 이상 상승하였다. 소득수준별 구분에서도 100만원대에서 유일하게 체감도가 감소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그 외 소득에서는 체감도가 증가하였다. 공무원층의 수입식품 안전체감도는 상반기에 비해 12.9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표 6-11〉 2016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11	51.9	16.0	55.4	17.7	<.001
성별	남	410	54.2	16.2	57.8	17.8	<.001
	여	401	49.5	15.6	53.0	17.3	<.001
연령군별	20대	130	56.0	17.9	53.8	18.4	0.202
	30대	180	50.2	15.0	51.7	17.2	0.268
	40대	188	52.0	16.0	54.9	17.4	0.035
	50대	181	51.0	16.0	57.3	17.4	<.001
	60대 이상	132	51.1	15.3	60.0	17.3	<.001
권역별	수도권	256	51.8	16.9	56.1	18.0	0.001
	영남권	252	51.7	15.5	52.9	17.5	0.321
	중부권	161	52.4	15.3	56.5	17.0	0.005
	호남권	142	51.7	16.4	57.3	18.0	0.002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1	49.8	13.5	57.6	15.6	0.008
	100만원대	96	53.3	14.7	52.7	16.7	0.731
	200만원대	130	50.0	15.8	55.5	17.3	0.001
	300만원대	166	48.8	15.5	53.6	18.8	0.003
	400만원대	149	52.1	16.2	55.0	16.8	0.067
	500만원 이상	228	54.8	17.0	57.5	18.3	0.027
학력별	중졸 이하	38	51.1	14.5	56.3	13.8	0.040
	고졸	274	52.1	15.8	55.6	17.7	0.003
	대졸 이상	499	51.8	16.3	55.2	18.0	<.001
직업별	공무원	14	55.7	11.6	68.6	12.9	0.007
	자영업	68	51.2	16.0	56.2	17.7	0.040
	판매 서비스직	49	44.9	17.6	53.1	19.0	0.014
	기능직	30	50.0	13.6	54.0	16.7	0.281
	사무기술직	206	53.4	16.4	55.0	17.6	0.222
	사무관리직	109	53.8	16.0	55.4	18.6	0.378
	전문자유직	31	50.3	17.8	51.0	17.8	0.873
	주부	167	49.6	13.9	54.9	17.0	<.001
	학생	76	53.4	18.0	55.0	17.6	0.418
	무직	61	55.1	16.2	59.3	17.9	0.080

주) * paired t-test

<표 6-12>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143명 전문가 대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6-12〉 2016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43	56.5	15.3	60.7	18.4	0.003
성별	남	82	59.5	16.0	63.9	17.9	0.015
	여	61	52.5	13.2	56.4	18.4	0.077
연령군별	20대	4	60.0	16.3	60.0	16.3	1.000
	30대	38	55.8	16.9	61.6	19.4	0.039
	40대	44	55.0	14.4	56.4	18.4	0.570
	50대	43	55.8	14.8	62.3	18.1	0.015
	60대 이상	14	64.3	14.0	67.1	16.8	0.547
권역별	수도권	101	56.6	15.5	61.4	18.8	0.004
	영남권	13	58.5	15.2	66.2	17.1	0.096
	중부권	15	50.7	14.9	54.7	19.2	0.334
	호남권	14	60.0	13.6	57.1	15.4	0.58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0	—	—	—	—	—
	100만원대	1	60.0	—	40.0	—	—
	200만원대	12	53.3	15.6	63.3	18.7	0.111
	300만원대	11	52.7	16.2	60.0	21.9	0.167
	400만원대	32	57.5	15.9	60.0	16.1	0.354
	500만원 이상	86	57.2	15.1	61.2	19.0	0.029
학력별	중졸 이하	0	—	—	—	—	—
	고졸	0	—	—	—	—	—
	대졸 이상	143	56.5	15.3	60.7	18.4	0.003
직업별	공무원	14	57.1	13.3	62.9	19.0	0.302
	자영업	1	40.0	—	60.0	—	0.182
	판매 서비스직	4	45.0	10.0	55.0	19.1	0.263
	기능직	0	—	—	—	—	—
	사무기술직	35	57.7	15.9	61.1	19.4	0.303
	사무관리직	41	56.6	15.4	59.0	17.9	0.303
	전문자유직	48	56.7	15.6	61.7	18.8	0.038
	주부	0	—	—	—	—	—
	학생	0	—	—	—	—	—
	무직	0	—	—	—	—	—

주) paired t-test

전반적으로 상반기 조사보다 하반기 조사가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이고 있다. 남자, 연령군별로는 30대와 50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이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에서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의 체감도가 5.0점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3)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6-13>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일곱 번의 제조·유통식품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과 2016년의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체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 급락하면서 2016년 상반기 추가 하락으로 6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안’과 ‘매우 불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 비해 10.7%포인트 증가하였고, ‘보통’의 비율은 13.9%포인트 감소하였다.

전문가는 2015년에 비하여 안전체감도가 2.7%포인트 하락하였다.

〈표 6-13〉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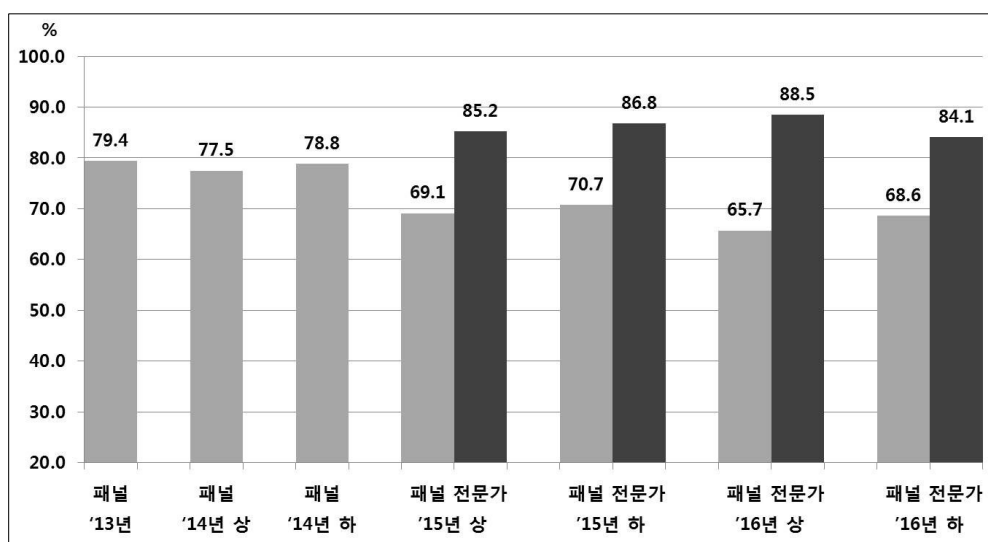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79.4	928	1.4	19.2	54.0	24.6	0.9
	‘14년 상반기 조사	77.5	970	1.4	21.0	57.4	19.8	0.3
	‘14년 하반기 조사	78.8	974	1.3	19.9	56.3	21.9	0.6
	‘14년 상·하반기 평균	78.2	—	1.4	20.5	56.9	20.9	0.5

	‘15년 상반기 조사	69.1	995	2.2	28.6	46.3	22.0	0.8
	‘15년 하반기 조사	70.7	984	1.6	27.6	49.5	20.3	0.9
	‘15년 상·하반기 평균	69.9	—	1.9	28.1	47.9	21.2	0.9
	‘16년 상반기 조사	65.7	952	2.0	32.4	47.6	17.6	0.4
	‘16년 하반기 조사	68.6	912	2.4	28.9	40.1	26.5	2.0
	‘16년 상·하반기 평균	67.2	—	2.2	30.7	43.9	22.1	1.2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85.2	162	0.0	14.8	38.9	42.6	3.7
	‘15년 하반기 조사	86.8	166	0.6	12.7	32.5	53.0	1.2
	‘15년 상·하반기 평균	86.0	—	0.3	13.8	35.7	47.8	2.5
	‘16년 상반기 조사	88.5	174	0.6	10.9	50.0	34.5	4.0
	‘16년 하반기 조사	84.1	164	0.0	15.9	29.3	48.8	6.1
	‘16년 상·하반기 평균	86.3	—	0.0	13.4	39.7	41.7	5.1

[그림 6-3]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3]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세부변수별

<표 6-14>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11명 패널을 대상으로,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대부분의 세부분석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연령군별로 20대와 40대, 권역별로 영남권에서, 소득별로는 100만원대와 400만원대에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인 그룹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 외에도 주부, 자영업 그룹에서 의미있게 상승하였다.

<표 6-14> 2016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11	56.5	15.0	59.4	17.1	<.001
성별	남	410	59.0	15.9	61.9	17.6	0.001
	여	401	54.0	13.6	56.9	16.3	0.001
연령군별	20대	130	55.4	15.5	56.2	16.3	0.617
	30대	180	53.4	14.5	56.1	17.2	0.041
	40대	188	58.4	15.0	59.3	17.1	0.463
	50대	181	58.3	15.3	62.5	16.6	0.002
	60대 이상	132	56.7	14.2	63.2	17.3	<.001
권역별	수도권	256	56.6	16.0	59.2	17.5	0.017
	영남권	252	56.3	14.6	58.0	16.9	0.103
	중부권	161	57.5	14.3	61.5	16.8	0.001
	호남권	142	55.8	14.8	60.0	17.2	0.005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1	51.2	13.5	58.0	16.0	0.009
	100만원대	96	55.6	14.0	57.5	17.2	0.288
	200만원대	130	55.8	14.2	59.8	17.3	0.009
	300만원대	166	53.5	14.8	58.7	16.8	<.001
	400만원대	149	57.2	15.6	57.9	16.9	0.654
	500만원 이상	228	60.0	15.3	61.9	17.4	0.065

학력별	중졸 이하	38	51.6	11.0	59.5	17.1	0.005
	고졸	274	56.4	14.8	59.6	16.9	0.002
	대졸 이상	499	57.0	15.4	59.4	17.3	0.002
직업별	공무원	14	65.7	16.5	68.6	10.3	0.547
	자영업	68	57.4	15.8	62.4	15.7	0.037
	판매 서비스직	49	54.7	14.0	56.7	18.4	0.452
	기능직	30	54.0	15.9	56.7	16.7	0.424
	사무기술직	206	56.7	15.3	58.4	17.8	0.123
	사무관리직	109	59.8	16.4	60.0	18.3	0.902
	전문자유직	31	56.1	15.8	55.5	16.9	0.851
	주부	167	54.6	12.7	60.5	16.3	<.001
	학생	76	56.3	15.9	56.3	16.6	1.000
	무직	61	55.4	13.9	63.0	16.7	<.001

주) paired t-test

<표 6-15>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143명 전문가 대상으로,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조사결과보다 하반기 조사결과가 다소 높게 분석되었다. 연령군별 50대, 소득수준별 500만원 이상, 공무원인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공무원의 상반기 평균에 비해 15.7점 상승하였다.

〈표 6-15〉 2016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43	66.0	15.0	69.2	16.7	0.027
성별	남	82	69.8	14.8	73.4	14.8	0.042
	여	61	61.0	13.9	63.6	17.7	0.280

연령군별	20대	4	70.0	11.5	55.0	10.0	0.058
	30대	38	62.6	16.2	64.7	17.0	0.500
	40대	44	67.3	16.8	67.3	16.2	1.000
	50대	43	65.6	12.6	74.9	16.4	0.001
	60대 이상	14	71.4	12.9	74.3	14.5	0.435
권역별	수도권	101	65.9	14.0	67.9	17.9	0.234
	영남권	13	67.7	15.4	75.4	12.0	0.175
	충부권	15	66.7	16.3	72.0	14.7	0.217
	호남권	14	64.3	21.0	70.0	13.0	0.33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0	—	—	—	—	—
	100만원대	1	60.0	—	40.0	—	—
	200만원대	12	56.7	18.7	68.3	15.9	0.089
	300만원대	11	67.3	16.2	69.1	16.4	0.676
	400만원대	32	65.0	14.4	65.0	14.4	1.000
	500만원 이상	86	67.7	14.4	71.4	17.5	0.048
학력별	중졸 이하	0	—	—	—	—	—
	고졸	0	—	—	—	—	—
	대졸 이상	143	66.0	15.0	69.2	16.7	0.027
직업별	공무원	14	60.0	13.6	75.7	8.5	0.003
	자영업	1	60.0	—	60.0	—	—
	판매 서비스직	4	70.0	25.8	60.0	16.3	0.182
	기능직	0	—	—	—	—	—
	사무기술직	35	66.3	15.2	64.0	17.4	0.379
	사무관리직	41	67.8	16.0	70.7	16.8	0.295
	전문자유직	48	65.8	13.7	70.8	17.5	0.051
	주부	0	—	—	—	—	—
	학생	0	—	—	—	—	—
	무직	0	—	—	—	—	—

주) paired t-test

4) 외식의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6-16>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일곱 번의 외식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과 2016년의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6-16〉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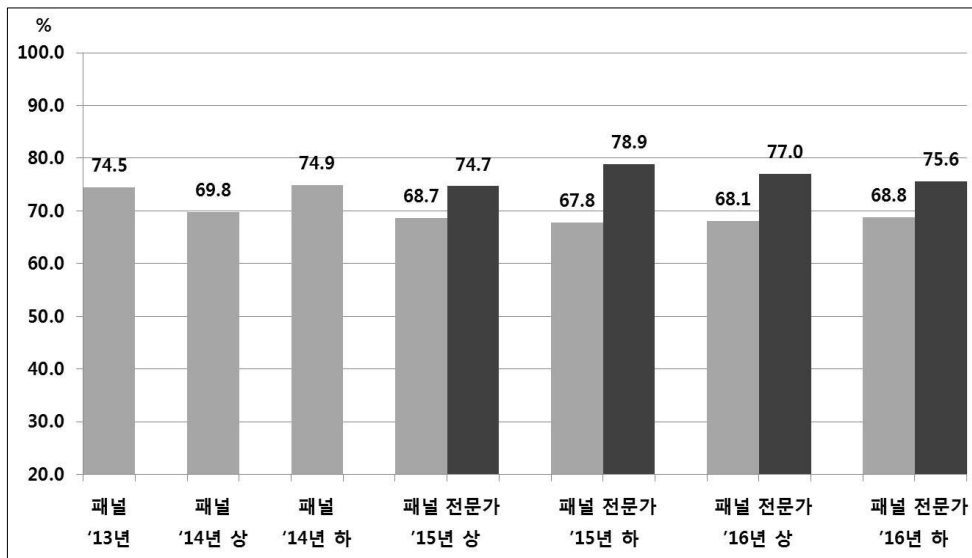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74.5	928	2.6	23.0	58.0	16.1	0.4
	‘14년 상반기 조사	69.8	970	2.2	28.0	54.9	14.4	0.5
	‘14년 하반기 조사	74.9	974	1.5	23.6	57.9	16.4	0.5
	‘14년 상·하반기 평균	72.4	—	1.9	25.8	56.4	15.4	0.5
	‘15년 상반기 조사	68.7	995	3.5	27.7	51.6	16.7	0.5
	‘15년 하반기 조사	67.8	984	2.4	29.8	48.7	18.7	0.4
	‘15년 상·하반기 평균	68.3	—	3.0	28.8	50.2	17.7	0.5
	‘16년 상반기 조사	68.1	952	2.3	29.6	52.7	14.9	0.4
	‘16년 하반기 조사	68.8	912	2.7	28.5	43.1	24.5	1.2
	‘16년 상·하반기 평균	68.5	—	2.5	29.1	47.9	19.7	0.8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74.7	162	3.7	21.6	50.6	23.5	0.6
	‘15년 하반기 조사	78.9	166	1.2	19.9	50.6	27.7	0.6
	‘15년 상·하반기 평균	76.8	—	2.5	20.8	50.6	25.6	0.6
	‘16년 상반기 조사	77.0	174	1.7	21.3	51.7	24.7	0.6
	‘16년 하반기 조사	75.6	164	1.8	22.6	43.3	32.3	0.0
	‘16년 상·하반기 평균	76.3	—	1.8	22.0	47.5	28.5	0.0

패널 중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3년 대비 5.7%포인트 감소하였고, 2015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하였다. 2014년 하반기 조사에서 상승했다가 이후 감소, 2015년 상반기 조사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반기에 비하여 2015년에 비하여 3.3%포인트 감소하였다. 2016년 패널의 체감도에 비하여 전문가의 체감도는 6.8%포인트 높았다.

[그림 6-4]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4]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세부변수별

<표 6-17>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11명 패널을 대상으로, 외식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상하반기 체감도 점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은 성별 남자, 연령군별 40대와 60대 이상, 권역별 중부권, 소득수준별 300만원대, 직업 중 주부

집단이었다. 특히 60대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표 6-17〉 2016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42	56.7	14.4	58.5	16.4	0.004
성별	남	421	58.6	14.6	60.5	16.6	0.024
	여	421	54.8	13.9	56.4	16.0	0.070
연령군별	20대	134	56.8	14.3	54.8	15.3	0.139
	30대	151	54.3	14.1	54.9	16.0	0.664
	40대	168	57.3	13.7	59.9	16.5	0.047
	50대	169	58.7	14.8	60.2	16.3	0.241
	60대 이상	220	56.4	15.0	62.6	16.8	<.001
권역별	수도권	275	56.4	15.1	57.0	15.9	0.563
	영남권	249	56.3	14.3	58.3	16.9	0.091
	중부권	173	56.8	14.3	59.5	16.4	0.039
	호남권	145	57.9	13.4	60.3	16.5	0.094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4	57.6	13.6	58.0	18.9	0.855
	100만원대	134	56.7	14.1	57.7	17.9	0.550
	200만원대	151	56.5	14.4	59.7	15.7	0.050
	300만원대	159	54.5	13.5	58.0	16.6	0.006
	400만원대	134	56.9	15.2	58.4	15.9	0.349
	500만원 이상	208	58.3	14.6	58.6	16.2	0.804
학력별	중졸 이하	78	54.2	13.1	59.5	17.7	0.086
	고졸	304	57.0	14.9	58.8	16.1	0.091
	대졸 이상	460	56.8	14.2	58.2	16.6	0.055
직업별	공무원	14	61.4	9.5	62.9	10.7	0.671
	자영업	85	59.7	13.6	61.5	14.4	0.400
	판매 서비스직	48	52.2	14.0	56.7	18.0	0.109
	기능직	30	54.7	15.7	57.3	14.6	0.403
	사무기술직	194	55.9	14.1	57.1	16.6	0.332
	사무관리직	99	59.8	15.8	60.7	17.6	0.586
	전문자유직	27	56.8	13.8	54.8	18.6	0.598
	주부	196	55.7	13.4	58.6	15.6	0.031
	학생	69	55.5	15.2	57.1	16.2	0.369
	무직	80	58.4	15.2	60.0	17.5	0.488

주) paired t-test

<표 6-18>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143명 전문가 대상으로, 외식의 안전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구분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6-18〉 2016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43	60.3	15.0	61.5	15.6	0.353
성별	남	82	63.2	15.2	64.1	15.3	0.609
	여	61	56.4	13.9	58.0	15.4	0.389
연령군별	20대	4	65.0	19.1	60.0	16.3	0.391
	30대	38	57.9	13.8	58.9	16.7	0.700
	40대	44	59.1	17.8	58.6	16.4	0.855
	50대	43	60.5	12.7	65.1	13.9	0.067
	60대 이상	14	68.6	12.9	67.1	12.7	0.720
권역별	수도권	101	59.6	14.7	60.8	15.7	0.463
	영남권	13	69.2	10.4	63.1	16.0	0.219
	중부권	15	57.3	16.7	61.3	16.0	0.334
	호남권	14	60.0	17.5	65.7	14.5	0.165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0	—	—	—	—	—
	100만원대	1	40.0	—	40.0	—	—
	200만원대	12	53.3	17.8	61.7	13.4	0.175
	300만원대	11	60.0	12.6	63.6	15.0	0.506
	400만원대	32	58.8	13.4	58.8	14.3	1.000
	500만원 이상	86	62.3	15.2	62.6	16.5	0.894
학력별	중졸 이하	0	—	—	—	—	—
	고졸	0	—	—	—	—	—
	대졸 이상	143	60.3	15.0	61.5	15.6	0.353
직업별	공무원	14	58.6	14.6	65.7	14.5	0.208
	자영업	1	60.0	—	80.0	—	—
	판매 서비스직	4	55.0	10.0	55.0	10.0	—
	기능직	0	—	—	—	—	—
	사무기술직	35	59.4	14.1	60.0	17.5	0.831
	사무관리직	41	60.5	15.2	62.0	15.4	0.570
	전문자유직	48	61.7	16.4	61.3	15.1	0.855
	주부	0	—	—	—	—	—
	학생	0	—	—	—	—	—
	무직	0	—	—	—	—	—

주) paired t-test

5) 단체급식의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6-19>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일곱 번의 단체급식食品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과 2016년의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전체감도는 2014년 하반기 조사 후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작년대비 약 2.7%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 체감도는 6.5%포인트 하락하였으나, 2016년 체감도는 전문가가 패널에 비하여 여전히 10.9%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6-19〉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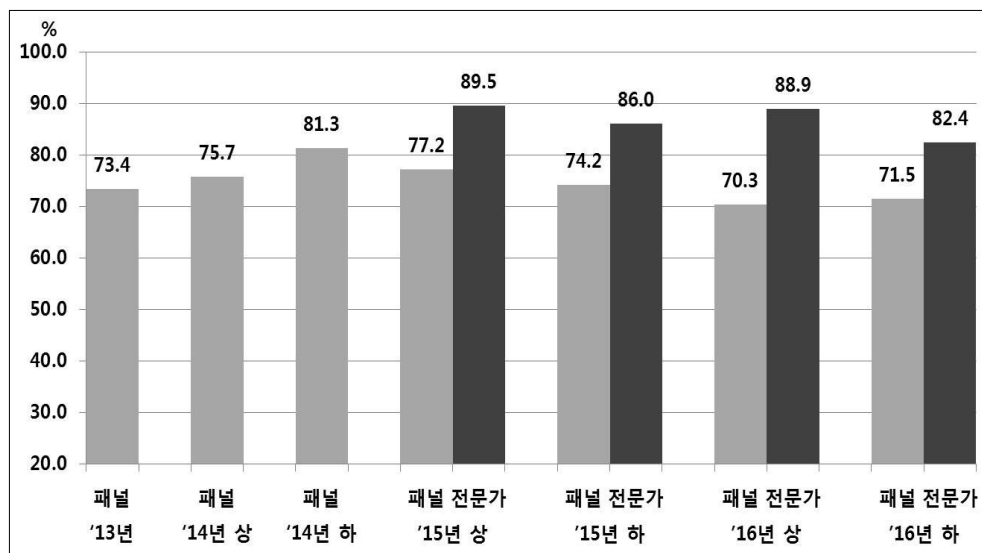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73.4	928	2.4	24.3	46.4	25.8	1.2
	‘14년 상반기 조사	75.7	560	2.5	21.8	42.1	31.8	1.8
	‘14년 하반기 조사	81.3	512	2.7	16.0	45.1	32.8	3.3
	‘14년 상·하반기 평균	78.5	—	2.6	18.9	43.6	32.3	2.6
	‘15년 상반기 조사	77.2	474	2.3	20.5	41.8	32.5	3.0
	‘15년 하반기 조사	74.2	507	3.0	22.9	40.0	32.0	2.2
	‘15년 상·하반기 평균	75.7	—	2.7	21.7	40.9	32.3	2.6
	‘16년 상반기 조사	70.3	505	4.0	25.7	38.4	28.7	3.2
	‘16년 하반기 조사	71.5	445	4.9	23.6	36.2	29.4	5.8
	‘16년 상·하반기 평균	70.9	—	4.5	24.7	37.3	29.1	4.5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89.5	114	0.9	9.7	38.6	47.4	3.5
	‘15년 하반기 조사	86.0	114	0.0	14.0	36.0	42.1	7.9
	‘15년 상·하반기 평균	87.8	—	0.9	11.9	37.3	44.8	5.7
	‘16년 상반기 조사	88.9	117	0.0	11.1	36.8	48.7	3.4
	‘16년 하반기 조사	82.4	108	0.9	16.7	27.8	51.9	2.8
	‘16년 상·하반기 평균	85.7	—	0.5	13.9	32.3	50.3	3.1

[그림 6-5]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5]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세부변수별

<표 6-20>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당시 단체급식 대상자였던 317명 패널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점 척도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표 6-20〉 2016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317	62.0	17.8	62.2	19.6	0.798
성별	남	209	61.4	18.4	61.6	20.0	0.876
	여	108	63.0	16.6	63.3	18.8	0.824
연령군별	20대	72	58.1	18.7	58.1	19.3	1.000
	30대	78	57.4	17.2	58.5	19.8	0.582
	40대	69	63.5	16.8	64.1	18.7	0.775
	50대	55	66.5	16.8	64.0	18.6	0.301
	60대 이상	43	68.4	17.0	70.7	19.7	0.418
권역별	수도권	89	61.8	19.5	62.5	20.2	0.741
	영남권	104	60.8	17.4	60.8	18.9	1.000
	중부권	71	64.5	17.3	64.2	21.1	0.892
	호남권	53	61.1	16.4	61.9	18.1	0.749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2	63.3	20.6	63.3	20.6	1.000
	100만원대	25	56.0	19.1	52.8	23.7	0.382
	200만원대	52	64.6	17.5	65.4	21.7	0.776
	300만원대	70	59.1	16.8	60.0	19.3	0.651
	400만원대	55	64.4	17.5	63.6	17.7	0.761
학력별	500만원 이상	103	62.5	17.9	63.5	18.0	0.571
	중졸 이하	3	60.0	20.0	60.0	20.0	—
	고졸	92	62.8	19.1	61.1	21.5	0.362
	대졸 이상	222	61.6	17.3	62.7	18.8	0.353
직업별	공무원	7	77.1	13.8	77.1	13.8	1.000
	자영업	20	59.0	17.7	59.0	22.9	1.000
	판매 서비스직	16	60.0	16.3	68.8	16.3	0.030
	기능직	17	67.1	22.3	65.9	24.3	0.791
	사무기술직	99	61.4	18.8	63.0	19.2	0.342
	사무관리직	44	59.5	16.4	62.3	18.9	0.349
	전문자유직	15	64.0	15.5	52.0	18.2	0.003
	주부	32	66.9	14.0	63.8	19.3	0.344
	학생	43	59.1	18.0	59.5	19.3	0.855
	무직	24	61.7	18.6	59.2	19.1	0.479

주) paired t-test

응답한 대상자 전체의 안전체감도는 상반기에 비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은 상반기에 비해 8.8점 증가하였고, 전문자유직은 12.0점 감소하였다. 그 외 분석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21>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단체급식 대상자였던 75명 전문가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든 층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6-21> 2016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75	68.3	14.4	67.5	16.0	0.694
성별	남	43	68.8	14.0	68.4	15.9	0.855
	여	32	67.5	15.0	66.3	16.4	0.712
연령군별	20대	2	60.0	0.0	50.0	14.1	0.500
	30대	22	67.3	17.0	62.7	17.8	0.329
	40대	26	67.7	13.9	70.8	16.2	0.294
	50대	22	69.1	13.4	69.1	13.4	1.000
	60대 이상	3	80.0	0.0	73.3	11.5	0.423
권역별	수도권	51	69.4	14.1	66.3	16.2	0.209
	영남권	5	72.0	11.0	72.0	11.0	—
	중부권	11	65.5	15.7	70.9	16.4	0.277
	호남권	8	62.5	16.7	67.5	18.3	0.56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0	—	—	—	—	—
	100만원대	1	60.0	—	40.0	—	—
	200만원대	6	60.0	17.9	73.3	10.3	0.175
	300만원대	6	73.3	10.3	70.0	16.7	0.611
	400만원대	14	67.1	12.7	61.4	14.6	0.263
	500만원 이상	48	69.2	14.9	68.8	16.5	0.864
학력별	중졸 이하	0	—	—	—	—	—
	고졸	0	—	—	—	—	—
	대졸 이상	75	68.3	14.4	67.5	16.0	0.694
직업별	공무원	10	66.0	16.5	72.0	14.0	0.468
	자영업	0	—	—	—	—	—
	판매 서비스직	2	70.0	14.1	60.0	28.3	0.500
	기능직	0	—	—	—	—	—
	사무기술직	22	63.6	13.3	61.8	16.2	0.648
	사무관리직	20	69.0	16.5	70.0	15.2	0.815
	전문자유직	21	73.3	11.5	69.5	16.3	0.104
	주부	0	—	—	—	—	—
	학생	0	—	—	—	—	—
	무직	0	—	—	—	—	—

주) paired t-test

6) 학교 주변 판매식품

가) 안전체감도

<표 6-22>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일곱 번의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과 2016년의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6-22〉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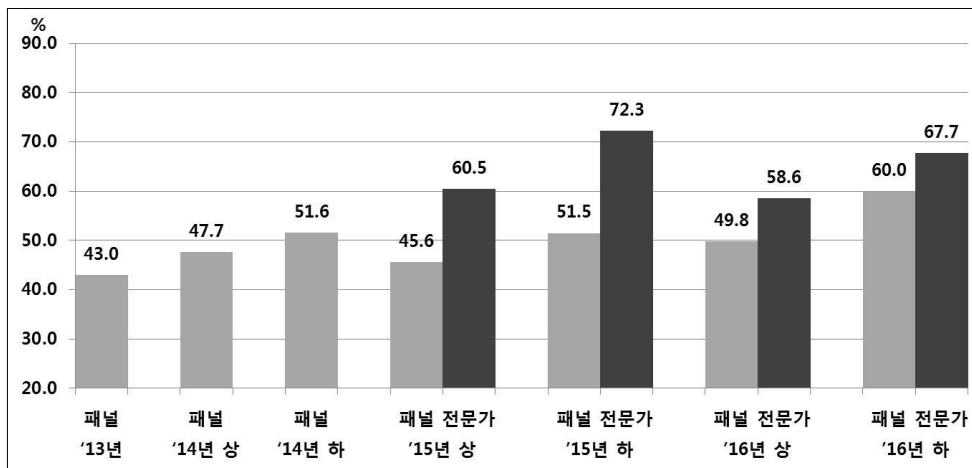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43.0	928	11.1	45.9	34.2	8.4	0.4
	‘14년 상반기 조사	47.7	970	6.3	46.0	36.8	10.6	0.3
	‘14년 하반기 조사	51.6	974	5.7	42.7	38.0	12.9	0.7
	‘14년 상·하반기 평균	49.7	—	6.0	44.4	37.4	11.8	0.5
	‘15년 상반기 조사	45.6	995	6.3	48.0	38.0	7.2	0.4
	‘15년 하반기 조사	51.5	984	6.2	42.3	41.0	10.4	0.2
	‘15년 상·하반기 평균	48.6	—	6.3	45.2	39.5	8.8	0.3
	‘16년 상반기 조사	49.8	952	5.9	44.3	39.9	9.5	0.4
	‘16년 하반기 조사	60.0	912	5.4	34.6	38.3	19.8	1.9
	‘16년 상·하반기 평균	54.9	—	5.7	39.5	39.1	14.7	1.2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60.5	162	7.4	32.1	46.9	13.0	0.6
	‘15년 하반기 조사	72.3	166	4.8	22.9	53.6	18.7	0.0
	‘15년 상·하반기 평균	66.4	—	6.1	27.5	50.3	15.9	0.6
	‘16년 상반기 조사	58.6	174	3.4	37.9	42.5	15.5	0.6
	‘16년 하반기 조사	67.7	164	2.4	29.9	37.8	29.9	0.0
	‘16년 상·하반기 평균	63.2	—	2.9	33.9	40.2	22.7	0.0

패널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8.5%포인트 증가하였다. 2014년에 비해 ‘매우 불안’과 ‘불안’, ‘보통’의 비율이 각각 0.8%포인트, 7.7%포인트, 2.7%포인트 하락하고, ‘안전’과 ‘매우 안전’은 각각 9.4%, 1.7% 증가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하반기에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15년에 비하여 4.6%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 6-6]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6]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세부변수별

<표 6-23>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11명 패널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세부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대상자의 전체 체감도는 상반기 점수에 비하여 하반기 점수가 4.8점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세부 구분에서도 대부분의 집단에서 유의하게 상승함이 확인되었다. 각 구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집단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권역별로는 영남권에서,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대에서,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집단에서,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었다.

〈표 6-23〉 2016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11	51.0	15.0	55.8	17.8	<.001
성별	남	410	52.8	15.7	57.7	17.8	<.001
	여	401	49.2	14.0	53.9	17.6	<.001
연령군별	20대	130	52.2	16.0	51.4	18.3	0.675
	30대	180	48.1	14.8	52.3	17.5	0.001
	40대	188	51.3	15.2	56.9	17.0	<.001
	50대	181	51.7	13.0	58.6	15.8	<.001
	60대 이상	132	52.4	16.1	59.5	20.0	<.001
권역별	수도권	256	50.9	15.2	54.8	17.8	0.001
	영남권	252	50.6	15.5	56.8	18.0	<.001
	중부권	161	51.1	14.3	56.0	16.9	<.001
	호남권	142	51.7	14.5	55.6	18.6	0.017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1	53.2	15.2	62.0	18.9	0.016
	100만원대	96	51.3	14.7	54.4	19.4	0.120
	200만원대	130	51.1	16.3	55.7	18.0	0.003
	300만원대	166	48.6	13.5	54.2	17.1	<.001
	400만원대	149	50.1	15.9	55.3	17.5	0.001
	500만원 이상	228	52.8	14.6	56.8	17.5	<.001
학력별	중졸 이하	38	52.1	15.8	54.2	19.7	0.473
	고졸	274	50.7	15.1	56.9	18.0	<.001
	대졸 이상	499	51.1	14.9	55.4	17.5	<.001
직업별	공무원	14	60.0	17.5	60.0	17.5	1.000
	자영업	68	51.8	12.6	57.4	16.2	0.006
	판매 서비스직	49	47.3	15.1	56.7	20.1	0.001
	기능직	30	52.7	13.4	58.7	21.0	0.095
	사무기술직	206	50.5	14.2	54.9	16.7	<.001
	사무관리직	109	51.4	16.4	56.9	19.7	0.001
	전문자유직	31	50.3	14.5	50.3	16.2	1.000
	주부	167	49.6	14.4	55.0	17.2	<.001
	학생	76	53.4	17.4	54.7	18.3	0.615
	무직	61	52.5	15.6	58.7	17.8	0.008

주) paired t-test

<표 6-24>에는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143명 전문가 대상으로,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하반기 체감도가 상반기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군별로 40대 응답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반기 체감도가 상반기에 비하여 3.4점 상승하였다.

〈표 6-24〉 2016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43	53.8	15.2	59.4	17.1	<.001
성별	남	82	56.6	16.0	62.0	16.8	0.001
	여	61	50.2	13.5	56.1	17.1	0.019
연령군별	20대	4	60.0	0.0	50.0	11.5	0.182
	30대	38	53.2	15.6	57.4	18.1	0.190
	40대	44	52.7	16.2	60.5	17.5	<.001
	50대	43	53.0	13.7	59.5	16.6	0.015
	60대 이상	14	60.0	17.5	64.3	16.0	0.336
권역별	수도권	101	53.9	15.4	59.0	17.3	0.005
	영남권	13	56.9	13.8	60.0	16.3	0.436
	중부권	15	50.7	18.3	57.3	18.3	0.019
	호남권	14	54.3	12.2	64.3	16.0	0.029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0	—	—	—	—	—
	100만원대	1	60.0	—	40.0	—	—
	200만원대	12	51.7	15.9	65.0	12.4	0.013
	300만원대	11	58.2	16.6	60.0	12.6	0.756
	400만원대	32	54.4	16.3	58.1	17.1	0.206
	500만원 이상	86	53.3	14.9	59.5	18.1	0.001
학력별	중졸 이하	0	—	—	—	—	—
	고졸	0	—	—	—	—	—
	대졸 이상	143	53.8	15.2	59.4	17.1	<.001
직업별	공무원	14	52.9	12.7	64.3	16.0	0.014
	자영업	1	40.0	—	60.0	—	—
	판매 서비스직	4	50.0	20.0	60.0	16.3	0.182
	기능직	0	—	—	—	—	—
	사무기술직	35	55.4	14.6	57.7	18.6	0.501
	사무관리직	41	54.1	16.3	61.5	17.0	0.006
	전문자유직	48	53.3	15.6	57.5	16.8	0.058
	주부	0	—	—	—	—	—
	학생	0	—	—	—	—	—
	무직	0	—	—	—	—	—

주) paired t-test

다. 식품안전정책

1)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추진

가장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조사는 2015년에는 부가조사로 실시되었고 2016년 하반기에는 기본조사로 수행되었다.

<표 6-25>에는 2015년 이후 상·하반기 식품 패넬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복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6-25>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단위: %)

항목	패넬				전문가			
	'15 상반기	'15 하반기	'16 상반기	'16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16 상반기	'16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16.0	16.1	17.9	16.0	24.2	21.0	21.1	24.1
나트륨 줄이기 운동	12.5	13.1	13.6	13.6	10.4	11.5	11.4	16.9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11.7	10.6	12.9	12.1	11.4	12.0	12.3	16.9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12.2	10.8	10.5	10.6	12.3	11.1	10.4	14.4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9.6	11.4	9.9	9.1	7.3	9.7	9.0	13.2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에게 정보 (음식점, 부적합 등) 공개	8.9	8.7	8.6	8.6	8.7	10.0	12.3	14.2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7.0	7.4	7.5	9.3	5.6	5.4	4.9	8.4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농약, 중금속 등) 강화	7.5	8.5	7.1	7.7	6.1	7.2	5.3	10.9
부적합한 식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제품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6.8	7.2	6.9	5.4	7.3	5.2	7.7	10.7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6.0	5.6	4.3	7.0	6.5	6.6	5.1	10.7
기타	1.7	0.7	0.8	0.6	0.2	0.2	0.5	0.0

패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두집단 모두 제시된 10가지 정책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 나트륨 줄이기 운동, 표시 확대, 학교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정책이 상위 4위 안에 포함되었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선택한 비율은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 응답 비율이 패널 12.5%, 13.1%이고 전문가에서 10.4%, 11.5%로 전문가 보다 패널층이 더 잘 추진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는 전문가는 21% 이상, 패널은 16%대로 전문가층이 더 잘 추진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선택한 비율은 2016년 상반기까지 패널에서 높았지만, 하반기 응답 결과에서는 패널 13.6%이고 전문가에서 16.9%로 전문가보다 패널에서 더 잘 추진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책만 전문가보다 패널층에서 더 잘 추진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2)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6-25>에서 선택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6-26>에 제시되어있다.

<표 6-26> 2016년 상·하반기 정책이 잘 추진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비교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5 상반기	'15 하반기	'16 상반기	'16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16 상반기	'16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34.0	33.1	35.4	39.9	46.9	33.1	47.7	51.8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30.5	36.6	31.4	30.4	16.7	15.7	18.4	14.6
식품관련 이슈 감소	18.9	15.4	16.9	15.1	22.2	17.5	18.4	17.7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인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10.8	8.6	10.0	7.6	5.6	6.6	7.5	11.6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4.4	4.0	3.4	4.4	4.9	1.8	3.4	3.7
기타	1.4	2.4	2.9	2.6	3.7	5.4	4.6	0.6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보면 상하반기 모두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이 최우선 이유로 조사되었고 이 비율은 패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는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됨을 선택한 비율(14.6%)보다 식품관련 사건사고가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17.7%)이 더 높은 점이 패널 조사 결과와 다른 점으로 분석되었다.

2. 부가조사

가. 불량식품 근절 노력

<표 6-27>에는 식품 패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7회차 조사가 되었고, 전문가 대상 조사는 2015년 상반기 이후 총 4회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조사 결과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의 1/4수준 이하로 감소하였고,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2015년에 비하여 패널의 인지 정도는 8%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전문가의 인지 정도는 1.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의 인지 정도가 패널에 비하여 10.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잘 알고 있음’을 선택한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27〉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인지 정도 결과 비교

(단위: 명, %)

구분		보통 이상	응답자 수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13년 조사	68.3	928	5.3	26.4	34.8	26.3	7.2
	‘14년 상반기 조사	76.9	970	2.1	21.0	42.3	31.3	3.3
	‘14년 하반기 조사	78.1	974	2.6	19.3	43.9	30.4	3.8

	‘14년 상·하반기 평균	77.5	—	2.4	20.2	43.1	30.9	3.6
	‘15년 상반기 조사	75.2	995	3.8	21.0	46.0	27.1	2.0
	‘15년 하반기 조사	77.6	984	5.8	16.7	42.9	31.7	3.0
	‘15년 상·하반기 평균	76.4	—	4.8	18.9	44.5	29.4	2.5
	‘16년 상반기 조사	80.0	952	2.6	17.3	44.3	32.1	3.6
	‘16년 하반기 조사	85.6	912	1.1	13.3	48.7	33.6	3.4
	‘16년 상·하반기 평균	82.8	—	1.9	15.3	46.5	32.9	3.5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90.1	162	1.2	8.6	29.6	45.1	15.4
	‘15년 하반기 조사	95.2	166	0.6	4.2	25.3	50.6	19.3
	‘15년 상·하반기 평균	92.7	—	0.9	6.4	27.5	47.9	17.4
	‘16년 상반기 조사	93.7	174	0.0	6.3	25.3	51.1	17.2
	‘16년 하반기 조사	96.3	164	0.6	3	29.3	56.1	11.1
	‘16년 상·하반기 평균	95.0	—	0.3	4.7	27.3	53.6	14.2

나. 불량식품 유통 이유

<표 6-28>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2013년 조사 이후 패널 응답자 중 40% 이상이 매 회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반면에 전문가는 2016년 상반기 조사까지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불량식품 유통의 주원인으로 응답하였는데, 2016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0% 이상이 패널과 같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약한 처벌을 주원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8〉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3 상반기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16 상반기	‘16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16 상반기	‘16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51.1	43.7	42.7	45.2	43.8	45.6	45.1	29.6	28.9	26.4	32.9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1.7	19.3	21.4	19.3	19.8	16.6	20.3	35.2	35.5	30.5	30.5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5.1	21.1	21.5	16.8	19.2	19.5	20.7	21.0	26.5	35.1	28.0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11.8	9.2	7.4	9.8	8.8	11.2	7.5	8.6	2.4	4.6	2.4
정부의 단속 소홀*	—	5.9	6.1	8.4	8.0	6.8	6.4	3.7	4.8	2.3	4.9
기타	0.4	0.8	1.0	0.4	0.3	0.2	0.1	1.9	1.8	1.1	1.2

주) 2013년 조사에서는 선택지에 없었음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가. <표 6-6, 7>에는 2016년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를 바탕으로 안전체감도를 100점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패널 조사 결과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하반기 조사에서 4.3점 상승하였으며, 세부분석층별로 분석하면 20대,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공무원, 사무기술직, 전문자유직, 주부, 학생층에서 상반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안전체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상·하반기 각 조사결과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200만원대 소득 집단에서 상반기에 비하여 체감도가 13.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에서 패널 조사 결과 하반기 조사에서 3.5점 상승하였다. 30대 이하, 영남권, 소득 100만원대와 400만원대인 경우를 제외한 전체 분석층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별로는 100만원대층에서 하반기 체감도가 상승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하반기 조사가 상반기에 비하여 4.2점 높았다.

다. 식품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에서 패널 조사 결과는 하반기 조사에서 상반기에 비해 2.9점 상승하였다. 20대와 40대, 영남권, 소득 100만원대와 40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졌고, 직업별로는 자영업, 주부, 무직인 경우에 유의하게 점수가 상승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하반기 조사에서 상반기에 비하여 3.2점 상승하였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하반기 점수가 15.7점 높게 나타났다.

라. 외식의 안전 영역에서 패널 조사 결과 하반기 조사에서 1.8점 상승하였고, 전문가 조사 결과 상하반기 조사결과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패널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세부분석층은 남자, 40대와 60대

이상, 중부권, 소득 300만원대, 그리고 주부로 분석되었다.

마.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에 대한 패널 및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의 체감도 점수는 상·하반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패널 조사에서 하반기에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분석층은 판매서비스직(+8.8점)과 전문자유직(-12.0점)이었다. 안전체감도는 하반기 조사에서 2.1점 하락하였으며, 권역별로 수도권에서, 직업별로 주부층에서 안전체감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세부분석층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바.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에서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안전체감도는 하반기 조사에서 4.8점 상승하였다. 그룹별로 보면 20대, 소득 100만원대, 중졸 이하, 직업별 공무원과 기능직, 전문자유직,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감도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하반기의 안전체감도가 5.6점 상승하였다. 권역별로 수도권에서, 직업별로 주부층에서 안전체감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문가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결과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호남권에서 10.0점, 공무원층에서 11.4점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결론

2016년 하반기 조사는 국정 상황에 따라 당초 추진 계획보다 약 1개월 늦게 12월 초에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2016년에 상·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함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총 7회차 조사가 완료되어 시계열적 비교, 분석결과가 산출되었다.

2013년 하반기에 시작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연도별 특징을 갖고 있다. 2015년부터는 전문가 조사를 포함시켰고, 부가조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대표 정책 10여가지에 대한 추진체감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발전의 흐름 속에 식품안전체감도가 처해있는 현황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국가통계로 승인을 못 받는 이유 및 향후 식품안전체감도를 포함하여 식품분야 통계가 나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었다.

2016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일부 설문지 순서 재정리 및 2013년에 추진하였던 조사항목별 정책설명 문구를 다시 추가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의 참고가 되었던 영국의 Tracker survey와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인식조사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해당국을 출장하여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과의 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2016년 조사결과를 보면 상·하반기 모두 다른 회차에 비해 최고의 체감도를 보였다. 패널들의 학습 효과, 식품부처의 정책홍보 강화, 대형 식품사고 미발생 등이 체감도 상승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특히 식품안전체감도는 현 시국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짐작하게 하였다.

2017년에 2회차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조사가 마무리 된다. 5년간의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성과가 진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7년에는 제 4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연도로 다음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와 더불어 이 정부가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대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미래전략 수립에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도 그간 지적되었던 여러 통계학적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향후 국가통계로 승인받을 수 있는 인식조사, 체감도 조사로 발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체계에 대한 재검토

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체계는 여러 통계학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1,000명 이라는 패널 수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 내재이다. 즉, 지역별 표본오차의 과다로 17개 시도별 조사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사례가 전무한 패널관리와 패널조사가 이원화되어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패널관리가 식품안전관리 부처의 산하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과다한 패널관리로 조사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패널관리와 조사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 조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새 정부출범이후 상반기부터 바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식품안전체감도의 시계열 분석 완성 및 시사점 도출

2017년에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총 9회차 조사가 실시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안전에 관해

여성, 고학력, 30대 층이 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도 현재까지 파악된 조사결과의 동향이다. 또한 식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은 존재하고 있음도 분석된 바 있다. 이처럼 총 9회차에 걸쳐 실시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총괄적인 시계열분석이 내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근거한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체계, 추진정책 및 제4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과 맥을 같이하는 식품안전관리의 미래 예측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결과 활용 확대 및 조사내용 검토

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의 활용도가 없지는 않지만 향후 활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사설계 수정안과 더불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세부영역중 체감도가 가장 낮은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및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의 지급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을 위한 조사내용을 개선하여 식품안전 관리의 전 분야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어야 명실상부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될 것이다. 즉, 기본조사의 세부조사분야에는 현재 5개 분야외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축산물의 안전, 정보 제공 및 소통, 영양정책 등의 분야가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사대상 전문가 범위 확대

2015년부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참여하는 200여명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풀(pool)이 현재는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전문가 풀(pool)에서 선정이 되고 있어 자칫 조사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에는 기본조사 분야에 농축수산물의 안전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전문가 대상 범위를 농축수산 분야까지 확대하여 조사대상 전문가가 선정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 고현우(2009). SWOT/AHP 분석을 이용한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전략.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32(2), pp. 104-111.
- 기상청(2015). 2015년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2009~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2009~2015).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09~2016).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1~2016).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1). 신호등표시로 우리아이 영양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 어린이 기호 식품 신호등표시제 기준 및 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1.03.2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13년 대통령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3.03.2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어린이날 대비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3.04.15).
- 식품저널(2010~2016). 식품유통연감. 서울: 식품저널.
- 안국찬, 목진휴, 박기묵, 김성철(2010). 사회조사와 통계기법. 법문사.
- 이동률(1998). 표본추출의 의의와 표본추출설계시 고려사항 및 표본의 크기. *고시연구*, 288(3), pp.397~399.
- 이승신(201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방안 소통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회 소비자포럼 발표자료(2013.10.04).
- 정기혜 외(2015).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4).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3).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3).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2).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 시스템 구축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2). 식품안전에 관한 시계열적 인식파악을 위한 조사설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5).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최종보고서.
- 통계청(2009). 국가통계 실무지침(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15). 제11차 국가통계위원회 회의 안건: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2015.10.07.) .
- 통계청(2013).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자료(2013.10.0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4/1/index.board?bmode=read&aSeq=309045 에서 2013.10.12. 인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2011).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 안전처 연구비 지원.
- 한장협, 윤상현, 김채복(2014). SWOT/AHP 분석을 이용한 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전략 연구: 대구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7(3), pp. 465-483.
- 한희선(2009). 조사설계를 위한 사회조사분석. 경기: 한국학술정보.
- 환경부(2014). 2014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Babbie, Earl R.(2009).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Cengage Learning. 고성호, 김광기, 김상욱(역).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Cengage Learning.
- Bartlett, J. E., II, Kotrlik, J. W., & Higgins, C.(2001). Organizational research: Determining appropriate sample size for survey research. *Information Technology, Learning, and Performance Journal*, 19(1), pp.43~50.
- 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2016). BfR Consumer Monitor.
- Food Standards Agency(2016).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 Wave 12.
- Hay, G. J., & Castilla, G.(2006, July). Object-based image analysis: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SWOT). *In Proc. 1st Int. Conf. OBIA* (pp. 4-5).
-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2016). 2016 Food & Health Survey: Food Decision 2016: The Impact of a Growing National Food Dialogue.
-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2015). 2015 Food & Health Survey: What's Your Health Worth?.
-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2014). 2014 Food & Health Survey: The Pulse of America's Diet: From Believe to Behaviors.
- Kenny, David A.(1987). Statistics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Boston: Little, Brown.

- Kirkwood, James; Robert Hubrecht(2010). *The UFAW Handbook on the Car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d Other Research Animals*. Wiley-Blackwell, pp. 29.
- Kish, L.(1995). *Survey Sampling*. Wiley-Interscience.
- NIST/SEMATECH. 7.2.4.2. Sample sizes required. e-Handbook of Statistical Methods.
- 食品安全委員会(2015). 食品安全モニター課題報告「食品の安全性に関する情報源について」の結果 (平成27年2～3月実施) .
- 食品安全委員会(2015). 食品安全モニター課題報告「食品の安全性に関する意識等について」 (平成26年8月実施) の結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열량저영양판별프로그램. <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에서 2013.12.10. 인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cfsm.foodnara.go.kr/home>.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http://www.bfr.bund.de/en/publication/bfr_consumer_monitor-195708.html
- European Commission, Public Opinion.
http://ec.europa.eu/public_opinion/index_en.htm
- Food Standard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 Tracker Survey.
<http://www.food.gov.uk/science/research/ssres/publictrackingsurvey>.
-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 Food Insight: Your Nutrition and Food Safety Resource. <http://www.foodinsight.org/research>.
- 食品安全委員会, 食品安全モニターからの報告.
https://www.fsc.go.jp/monitor/monitor_report.html

부 록 <<

부록 1.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인 사 말 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6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라는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정보, 식품사고 및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정책 등에 대한 식품패널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자 ID				조사표 번호				조사원 ID	

※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	전 화 번 호
조사 담당자		() -



조사표 기입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하거나 □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고, 주된 응답은 1개만 응답하십시오.

I

기본조사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크게 떨어짐 **1-1** 향으로
☐ **2** 떨어짐
☐ **3** 동일 → **2** 향으로
☐ **4** 나아짐 **1-2** 향으로
☐ **5** 크게 나아짐

1-1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 **2**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 **3**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 **4**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 **5**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 **6** 기타(내용:)

1-2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 **2** 4대 사회약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 **3**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 **4**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 **5**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 **6** 기타(내용:)

◆ 다음부터는 세부분야별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입니다.

수입 식품의 안전

2 귀하께서는 수입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안	}	2-1 향으로
☐ 2 불안		
☐ 3 보통	}	3 향으로
☐ 4 안전		
☐ 5 매우 안전		

2-1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 6 기타(내용: _____)	

유통식품의 안전

3 귀하께서는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안	}	3-1 향으로
☐ 2 불안		
☐ 3 보통	}	4 향으로
☐ 4 안전		
☐ 5 매우 안전		

3-1 제조·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
☐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3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부적절	
☐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 6 기타(내용: _____)	

외식의 안전

4 귀하께서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안	}	4-1 향으로
☐ 2 불안		
☐ 3 보통	}	5-0 향으로
☐ 4 안전		
☐ 5 매우 안전		

4-1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
☐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 6 기타(내용: _____)	

단체급식의 안전

5-0 귀하께서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현재 급식대상자이신가요?

- ☐ **1** 예 → **5** 항목으로
☐ **5** 아니요 → **6** 항목으로

5 우리나라 단체급식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불안
☐ **2** 불안
☐ **3** 보통
☐ **4** 안전
☐ **5** 매우 안전
- **5-1** 항목으로
 → **6** 항목으로

5-1 학교 및 보육시설, 회사, 군대의 급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2** 정부의 관리 미흡
☐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 **7** 기타(내용:)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6 귀하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불안
☐ **2** 불안
☐ **3** 보통
☐ **4** 안전
☐ **5** 매우 안전
- **6-1** 항목으로
 → **7** 항목으로

6-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 **6**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 **7** 기타(내용:)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7 귀하께서는 올해 (2016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불안	② 불안	③ 보통	④ 안전	⑤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8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크게 떨어질 것	② 떨어질 것	③ 동일할 것	④ 나아질 것	⑤ 크게 나아질 것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9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 ☐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 ☐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 ☐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 ☐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 ☐ 6 기타(내용: _____)

II 2016년도 부가조사

식품안전 관련 정보 이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귀하께서 평소에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복선택)

- ☐ 1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 ☐ 2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팸플릿 등
- ☐ 3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 ☐ 4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 ☐ 5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 ☐ 6 기타(내용:)

11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1 본인 및 가족의 경험
- ☐ 2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 ☐ 3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 ☐ 4 주변 사람의 의견
- ☐ 5 정부의 보도 자료
- ☐ 6 기타(내용:)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12 위 정책 중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 ☐ 1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 ☐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 ☐ 3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 ☐ 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 5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 ☐ 6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 ☐ 7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 ☐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 9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 10 나트륨 줄이기 운동
- ☐ 11 기타(내용:)

12-1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 ☐ 2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 ☐ 3 식품관련 사건·사고 감소
- ☐ 4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 ☐ 5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 ☐ 6 기타(내용:)

불량식품 근절

13 귀하께서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있음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14 귀하께서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 ☐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 ☐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 ☐ 5 정부의 단속 소홀
- ☐ 6 기타(내용: _____)

※ 긴 시간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인 사 말 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6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라는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정보, 식품사고 및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정책 등에 대한 식품패널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자 ID				조사표 번호				조사원 ID	

※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	전 화 번 호
조사 담당자		() -



조사표 기입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하거나 □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고, 주된 응답은 1개만 응답하십시오.

I

기본조사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1 크게 떨어짐 | } | → 1-1 항목으로 |
| ☐ 2 떨어짐 | | |
| ☐ 3 동일 | → | 2 항목으로 |
| ☐ 4 나아짐 | } | → 1-2 항목으로 |
| ☐ 5 크게 나아짐 | | |

1-1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 ☐ 2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 ☐ 3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 ☐ 4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 ☐ 5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 ☐ 6 기타(내용:)

1-2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 ☐ 2 4대 사회약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 ☐ 3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 ☐ 4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 ☐ 5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 ☐ 6 기타(내용:)

◆ 다음부터는 세부분야별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입니다.

수입 식품의 안전

2 귀하께서는 수입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안	}	→ 2-1 향으로
☐ 2 불안		
☐ 3 보통	}	→ 2-2 향으로
☐ 4 안전		
☐ 5 매우 안전		

2-1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 6 기타(내용: _____)

2-2 귀하께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작년과 비교하여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크게 떨어짐
- ☐ 2 떨어짐
- ☐ 3 동일
- ☐ 4 나아짐
- ☐ 5 크게 나아짐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3 귀하께서는 제조·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안	}	→ 3-1 향으로
☐ 2 불안		
☐ 3 보통	}	→ 3-2 향으로
☐ 4 안전		
☐ 5 매우 안전		

3-1 제조·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3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 (냉장, 냉동)이 부적절
☐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 6 기타(내용: _____)

3-2 귀하께서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직년과 비교하여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크게 떨어짐
- ☐ 2 떨어짐
- ☐ 3 동일
- ☐ 4 나아짐
- ☐ 5 크게 나아짐

외식의 안전

4 귀하께서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불안
- ☐ 2 불안
- ☐ 3 보통
- ☐ 4 안전
- ☐ 5 매우 안전
- **4-1** 항목으로
- **4-2** 항목으로

4-1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 ☐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 ☐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 ☐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 ☐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 ☐ 6 기타(내용:)

4-2 귀하께서는 외식의 안전관리 수준이 직년과 비교하여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크게 떨어짐
- ☐ 2 떨어짐
- ☐ 3 동일
- ☐ 4 나아짐
- ☐ 5 크게 나아짐

단체급식의 안전

5-0 귀하께서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현재 급식대상자이신가요?

☐ **1** 예 → **5** 항목으로

☐ **5** 아니요 → **6** 항목으로

5 우리나라 단체급식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안 } → **5-1** 항목으로

☐ **2** 불안

☐ **3** 보통

☐ **4** 안전

☐ **5** 매우 안전

} → **5-2** 항목으로

5-1 학교 및 보육시설, 회사, 군대의 급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2** 정부의 관리 미흡

☐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 **7** 기타(내용:)

5-2 귀하께서는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이 작년과 비교하여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떨어짐

☐ **2** 떨어짐

☐ **3** 동일

☐ **4** 나아짐

☐ **5** 크게 나아짐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6 귀하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1 매우 불안 | } | 6-1 항목으로 |
| ☐ 2 불안 | | |
| ☐ 3 보통 | } | 6-2 항목으로 |
| ☐ 4 안전 | | |
| ☐ 5 매우 안전 | | |

6-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 ☐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
| ☐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
| ☐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
| ☐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
| ☐ 6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
| ☐ 7 기타(내용: _____) |

6-2 귀하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작년과 비교하여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크게 떨어짐 |
| ☐ 2 떨어짐 |
| ☐ 3 동일 |
| ☐ 4 나아짐 |
| ☐ 5 크게 나아짐 |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7 위 정책 중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 ☐ 1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농약, 중금속 등) 강화
- ☐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 ☐ 3 부적합한 식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 ☐ 4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 ☐ 5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에게 정보(음식점, 부적합 등) 공개
- ☐ 6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 ☐ 7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 ☐ 8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 9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 10 나트륨 줄이기 운동
- ☐ 11 기타(내용:)

7-1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 ☐ 2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 ☐ 3 식품관련 이슈 감소
- ☐ 4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 ☐ 5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 ☐ 6 기타(내용:)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8 귀하께서는 올해 (2016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불안	② 불안	③ 보통	④ 안전	⑤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9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크게 떨어질 것	② 떨어질 것	③ 동일할 것	④ 나아질 것	⑤ 크게 나아질 것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10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 ☐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 ☐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 ☐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 ☐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 ☐ 6 기타(내용: _____)

II 2016년도 부가조사

불량식품 근절

11 귀하께서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1 전혀 모름	2 모름	3 보통	4 알고 있음	5 잘 알고있음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12 귀하께서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 ☐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 ☐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 ☐ 5 정부의 단속 소홀
- ☐ 6 기타(내용: _____)

※ 긴 시간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정책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조사는 비확률 할당표본으로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
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활용시 유의바랍니다.